

354, G  
929.35  
신 61  
85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全



209845

### 鵝洲申氏鷹巖公派乙丑譜序

惟我鵝洲申自麗至李朝數千多族散在嶺湖繼承忠孝官職德業文章人稱名門華族懿歟盛哉尊祖敬宗述先裕後莫如修譜故邑龜安東清州各派有譜已經許多歲月其後己亥年鵝洲大同作於幾百年未遑之事則實是吾族之幸而荏苒之間亦過數十餘星霜也其規模節次純用漢文使此住力國文後輩解得甚難豈不嗟嘆者乎且世道變遷人事異昔追逐於風潮汨沒於生業幾乎忘倫忘本不於此時修譜或恐功服至親視如路人也更謀大同力不可及故鷹巖先祖以下諸宗始發派譜之論協其力幹其事收錄一卷冊子家家可藏及其諱啣疑難處用國文解音人人可曉焉惟願同此諸宗念念在茲備盡尊祖之誠培養敬宗之道今日之派譜必爲後日之大同也仍此不已則吾之族安得不昌而熾歟將付印出責余弁首之文余本無文之人何敢塞責只在本孫之列不可無一言故忘拙敢叙顛末如右

乙丑元月 日

後孫 琪源 謹叙

乙丑譜序(譯文)

우리 鵝洲申은 高麗로부터 李朝에 이르기까지 數千多族이 嶺南과 湖南地方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서 祖先들의 遺業인 忠孝의 官職과 德業과 文章을 積이 이어받아 世에 世上 사람들이 우리 門을 名門 華族이라 일컬으니 아름답고도 아름

209845

답드다.  
 祖先을 높히 받들고 宗親을 恭敬하고 後孫들을 길러 부되게 하려면 오직 族講을 위는 길 뿐이니라. 고로 邑派와 龜派와 安東派와 淸州派에서는 各派別로 族講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오랜 歲月이 지났고 그후 己亥年(西紀一九五九年)에 이룬 鵝洲大同講은 幾百年동안에 이르지 못한 일을 이루었음인즉 實로 吾族의 多幸한 일이 되드다. 그리고 그러저러하는 사이에 또 數十年을 지나왔으며 그 族講의 규모와 절차가 尙전이 漢文만을 사용하여 國文만을 배운 後輩들이 解得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어찌 嗟歎하지 않으리오, 또 世道가 변천하고 人事가 달라지고 風潮에 휩쓸리고 生業에 골목하여 倫理도 잊어 버리고 根本도 잊어 버리게 되니 이때에 講을 단지 아니하면 후이나 功服(註①) 至親의 사이라도 길가는 사람이 보게 될까봐 두렵드다. 그러나 다시 大同講을 닦으려 해도 어려운 일인고로 鷹巖先祖以下 모든 宗親들이 派講을 닦을 것을 發起하게 되었다. 모든 宗親들이 힘을 합하고 일을 분담하여 한권의 책자를 만들어 집점이 간직도록 하였으며 또 그 규모에 있어서도 淮(諱) 贊(卿)이나 어렵고의심나는 것에는 各문으로 풀이하여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하였는지라 원컨대 모든 宗親께서는 마음을 여기에 두시어 祖先을 높히 받드는데 정성을 다하고 宗親을 公경하는 道를 닦고 기르는데 힘을 쓴다면 今日的 派講가 後日의 大同講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기를 나는치지 않는다 면 우리 일가가 어찌 번창하지 않으리오 명지 않아 勳勳을 함께라 나에게 머릿말을 쓰라고 청하거늘 나는 본래 無文한 사람인지라 어찌 감히 응하리오 마는 다만 本孫의 列에 있음으로 一言이 없지 못하세라 拙劣함을 무릅쓰고 감히 顛末을 叙하니 右記와 같드다.

乙丑(西紀一九八五年)正月

日

後孫 琪源 謹叙 하노라

註① 功服..小功(五個月)大功(九個月)의 복(服) 功服至親||복(服)을 입을 정도의 가까운 친척

目次

序文	.....	一
凡例	.....	五
鵝洲貫姓考	.....	七
先代遺蹟篇(寫眞)	.....	九
院祠 墓所 遺品寫眞	.....	二四
墳山圖(退齋公 上將公 參判公 承旨公 鷹巖公)	.....	二九
舊譜序	.....	三三
文獻	.....	三三
版圖判書公事蹟	.....	三四
版圖判書公啓辭	.....	三五
景賢祠記	.....	三七
退齋公奉安時告墓文	.....	三七
淸水書院景賢祠奉安文	.....	三八
常享祝文	.....	三八
杜門洞書院退齋先生奉安文	.....	三六
高州士林通文	.....	三八
退齋按廉使公遺蹟	.....	三九
密城誌	.....	四〇
居廬圖	.....	四〇
輿地勝覽	.....	四〇
護軍官帖	.....	四〇
旌閣碑	.....	四一
退齋公墓表	.....	四一
退齋公遺墟碑銘	.....	四一
雙竹圖詩	.....	四二
上將公墓碣陰記(諱始生)	.....	四二
判決事公墓碣陰記(諱翰)	.....	四二
參判公墓碣陰記(諱應奎)	.....	四二
左承旨公墓碣銘(諱夢得)	.....	四九
鷹巖公行狀(諱之行)	.....	五〇
鷹巖公遺事	.....	六三
鷹巖公墓碣銘	.....	六三
鷹巖公殉孝遺墟祭壇碑銘 並序	.....	七一
告由文	.....	七三

常享祝文	三七	官職解說	二四
都事公墓碣(諱命義)	七六	高麗의 官衙 및 官職	二八
鳳舞軒公墓碣銘(諱思遠)	七九	朝鮮의 官衙와 官職	三一
晚圃公墓碣銘(諱正遠)	八一	朝鮮時代의 科擧制度	五三
灘隱公墓碣銘(諱樂遠)	八二	朝鮮時代官職表	五八
本源分派圖	八五	朝鮮時代官衙所掌別號表	六二
行列圖	九四	朝鮮時代品階表	六四
系圖	九五	外方官職制의 圖解	六七
子孫錄	一	五聖位次圖	六八
跋	二七三	禮考	六九
任員錄	二七五	冠禮	七〇
附錄		婚禮	七〇
泉谷壇所笏記	一	喪禮(祝文附)	七五
祝文式 陳設圖	二	吊問節次	八九
墓祀笏記	三	祭禮(祝文附)	一〇一
族譜에 關한 一般常識	五	各黨稱號	一〇四
歷代王朝의 王系	一〇	修人事法	一〇
		千支 및 時候	一一
		計寸法	一一四
		東西洋年代對照表	一二五

凡例

- 一、今次 乙丑年(西紀一九八五年) 鷹巖公派譜는 先祖分들이 丙 내신 甲戌譜(西紀一九三四年)를 基幹으로 하고 己亥大同譜(西紀一九五九年)의 文獻을 參酌 하여 增譜編纂에 臨하였다.
- 一、本派譜는 單卷으로 編輯하였다.
- 一、本派譜製作은 四×六陪版洋裝 六段橫間譜로 編輯하고 自一世 至六世 六疊으로 하되 終疊은 다시 起頭欄으로 올려 五代單位로 하고 下系로 連系가 되지 못했거나 出系와 女婿의 境遇는 當者의 註記만으로 끝을 맺었으며 一疊과 六疊의 諱字나 啣字下에 見上, 見下로 表示하고 互連番號를 넣어 上下代가 連系되도록 하였고 右側에는 世代, 左側에는 派譜名을 記錄하였다.
- 一、宗史編에는 序文, 舊譜序 및 列先祖의 行狀, 墓碣, 墓誌銘, 遺蹟, 寫眞, 墳山圖等 文籍을 原文과 譯文을 并行收錄하고 翻譯을 하지 못한 部分은 原文만 收錄하였다.
- 一、系譜를 一目瞭然하게 하고 愛族心을 갖게 하기 위하여 本原分派圖 및 派系圖

를作成하였으며 그 下端에 互連番號를 넣어 索引에 便利하도록 하였고 現住所를 아는데까지 收錄하였다.

一、諱字와 啣字 밑에 國文으로 懸吐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

一、出入系는 當者註欄 次行生家欄에는 出系某后、入系는 養家欄 次行에 生父某라고 明記하였다.

一、生卒年月日은 干支와 西紀年號를 併記하였으나 既히 卒한일은 干支만 記載하였다.

一、現代人의 履歷에 學歷은 博士、職級에 있어 公務員은 事務官、敎職은 校長·大學敎授、軍은 將星級、社會團體 企業體는 重役級 以上을 基準으로 修單에 依據 登載하였다.

一、男女順次는 先男後女年齡順으로 하고 先代部分에 女가 먼저 出生하였으면 序一、二、三으로 區分表示하였다.

一、女는 出嫁女에 限하여 婿의 姓名、貫鄉、父名、外孫名、顯祖官爵某后、外孫 婿名等을 登載하였다.

一、傍註는 字와 號、初諱、啣、官名、官爵、事蹟、生卒年月日、墓所의 位置및 坐向、配位는 某封某貫、某氏、父·祖·曾祖의 諱 또는 啣字、顯祖某后、外

祖等과 生卒年月日、墓所 및 坐向等 舊譜와 修單에 依據 收錄하였다.

一、後孫이 無后이거나 所在不明으로 인한 未納單家系는 舊譜에 依據 登載하여 同族임을 알게하는 同時 追後修譜時 參考하도록 하였다.

一、末尾에 附錄을 別途로 收錄하여 參考에 寄與하도록 하였다.

### 鵝洲貫姓考

鵝洲는 巨濟의 屬縣이니 巨濟가 本海中島라. 新羅文武王 初에 稱置裳郡이요、後에 改名하다. 領縣이 三이니 鵝洲 溟珍 南垂縣이라. 高麗顯宗九年 改縣令屬縣이 三인데 鵝洲 松邊 溟珍하다. 出新羅地誌하고 至新羅景德王하여 改今名하여 爲巨濟郡하고 領縣은 如古하다. 高麗에서 드 因之하다. 出麗史地理誌하다. 蓋濱海風俗의 貫適外寇하여 羅麗以前에 數爲邊患.

### 貫鄉沿革

巨濟縣 新羅 文武王

初置

新羅 景德王

改爲

高麗 顯宗九年 置縣令

高麗 元宗十二年 僑寓于居昌之加祚縣

高麗 忠烈王時 併于管城今沃川郡

巨濟府 本朝 太宗朝 併于居昌縣號濟昌

世宗 還舊島爲縣

肅宗 陞府

巨濟縣 本新羅 巨老縣在巨濟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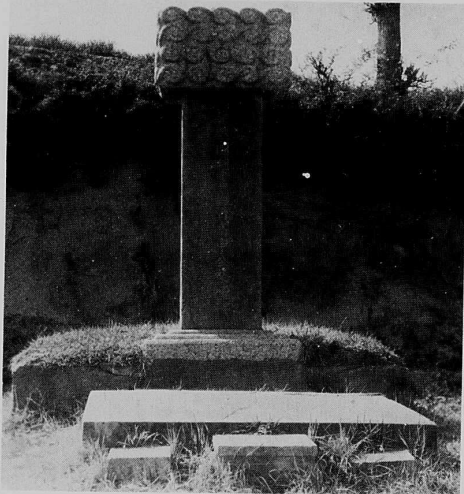
景德王 改今名巨濟郡領縣

鵝洲縣 本新羅 巨老縣 昭聖王 爲學生祿邑 高麗入巨濟

鵝洲村 巨濟寓加祚時 以本島內屬縣及驛院 置於加祚之境 鵝洲

村在東二十里

按 中世一門諸輝大小榜眼式書以鵝洲或梅城云者必以屬縣而互稱之歟



貞肅公 諱允濡 祭壇所  
所在 義城郡龜川面龍蛇洞



退齋 按廉使公 諱祐 墓所全景  
配位 淑人 若木柳氏 合祔  
所在 義城郡龜川面龍蛇洞 山39 卯坐



退齋 按廉使公 孝子閣  
所在 義城郡丹密面注仙洞(迅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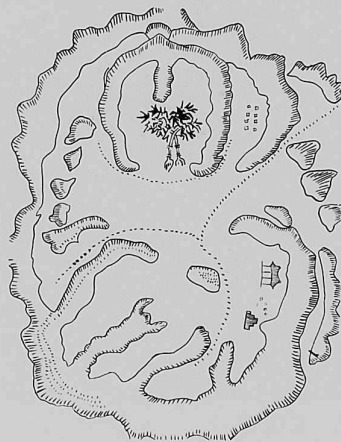
凍水書院明倫堂  
所在 義城郡丹密面注仙洞 (館洞)

可	黔	愚	退	
哇	洞	齋	齋	配
公	公	公	公	
趙	金	孫	申	
翊	宇	仲	祐	
靖	宏	敬		享
	奉	監	高	
	帽	曹	麗	
	寺	判	按	
	正	書	廉	
		司	使	
	豐	義	鶴	
	壤	城	洲	
	人	人	人	



退齋 按廉使公 護軍王旨

至正四年4月29日 (高麗忠惠王五年 西紀1344年)  
(彥陽公 15世曾孫 申景植 所藏)



雙竹圖



退齋 按廉使公 居廬圖



司直公配位 令人星州李氏 墓所全景  
所在：義城郡鳳陽面新禮洞子坐



判決事公 諱 翰 墓所全景  
所在：義城郡鳳陽面泉洞午坐



上將公 諱 始生 墓所全景  
配位 淑人安東金氏 雙墳  
所在：醴泉郡虎鳴面稷山洞(稷谷)甲坐



司直公 諱 介甫 墓所全景  
所在：醴泉郡虎鳴面稷山洞(東墓)甲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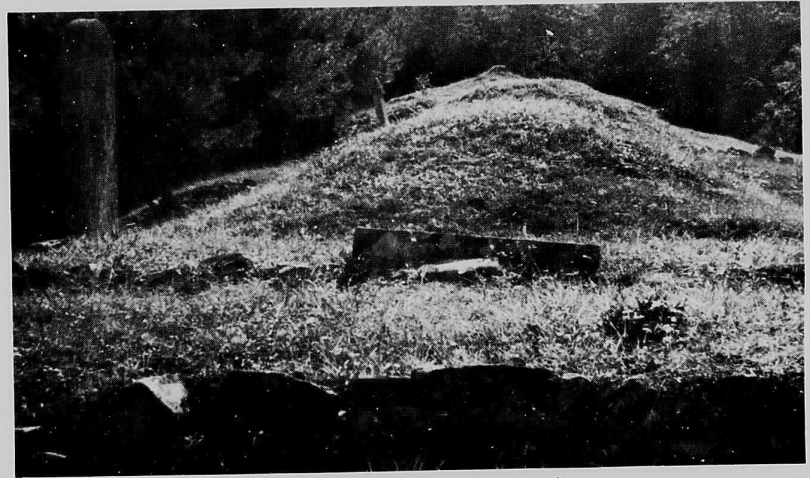
叅判公配位 贈貞夫人昌寧曹氏 墓所全景  
所在：義城郡鳳陽面新禮洞子坐



贈左承旨公諱 夢得 墓所全景  
配位 贈淑夫人月城朴氏 合祔  
所在：義城郡安平面石塔洞(石塔橋洞)甲坐



判決事公配位 淑夫人長髮吳氏 墓所全景(乾位墓附後)  
所在：義城郡 鳳陽面 泉洞午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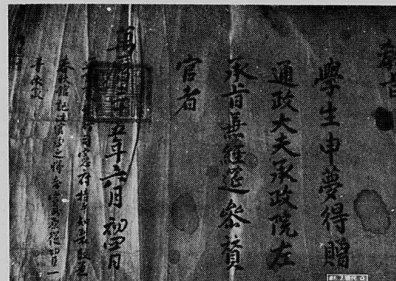
叅判公諱 應奎 墓所全景  
所在：義城郡鳳陽面泉洞午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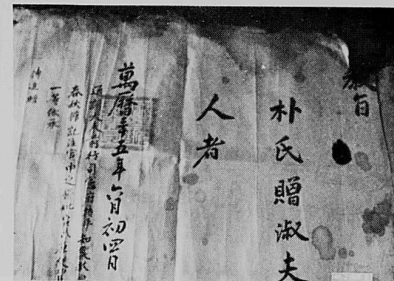
鷹巖公諱之孝墓所全景  
配位 咸昌金氏 合祔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億谷)寅坐



鷹巖公墓碑



左承旨公 贈職教旨



左承旨公配位 月城朴氏教旨



左承旨公配位 贈淑夫人高敞吳氏 墓所全景(配位墓階下)  
所在：義城郡安平面石塔洞甲坐



諱命 墓所全景  
配位 慶州鄭氏 合祔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億谷)良坐



主簿公 諱 孟堪 墓所全景  
所在：義城郡安平面石塔洞(石塔橋洞陽地)亥坐



鷹巖公 遺墟祭壇所  
所在：義城郡鳳陽面泉洞



都事公 諱 命 義 墓所全景  
配位 令人玉山張氏 雙墳  
所在：義城郡安平面石塔洞甲坐



諱季堪墓所全景  
配位平海丘氏合祔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紫山 壬坐



泉洞齋舍 只講堂  
所在：義城郡鳳陽面泉洞



稷谷齋舍  
所在：醴泉郡虎鳴面稷山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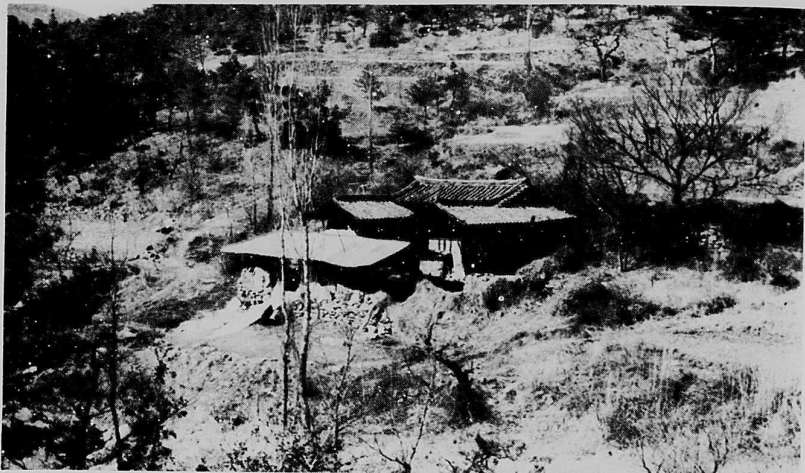
主簿公配位令人安東金氏墓所全景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甲坐



諱仲堪墓所全景  
配位開韶金氏雙墳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德谷)壬坐



諱仲堪配位真城李氏墓所全景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卯坐



鷹巖公齋舍  
所在：軍威郡軍威邑廣峴三洞



鷹巖公宗宅  
所在：義城郡鳳陽面花田洞 223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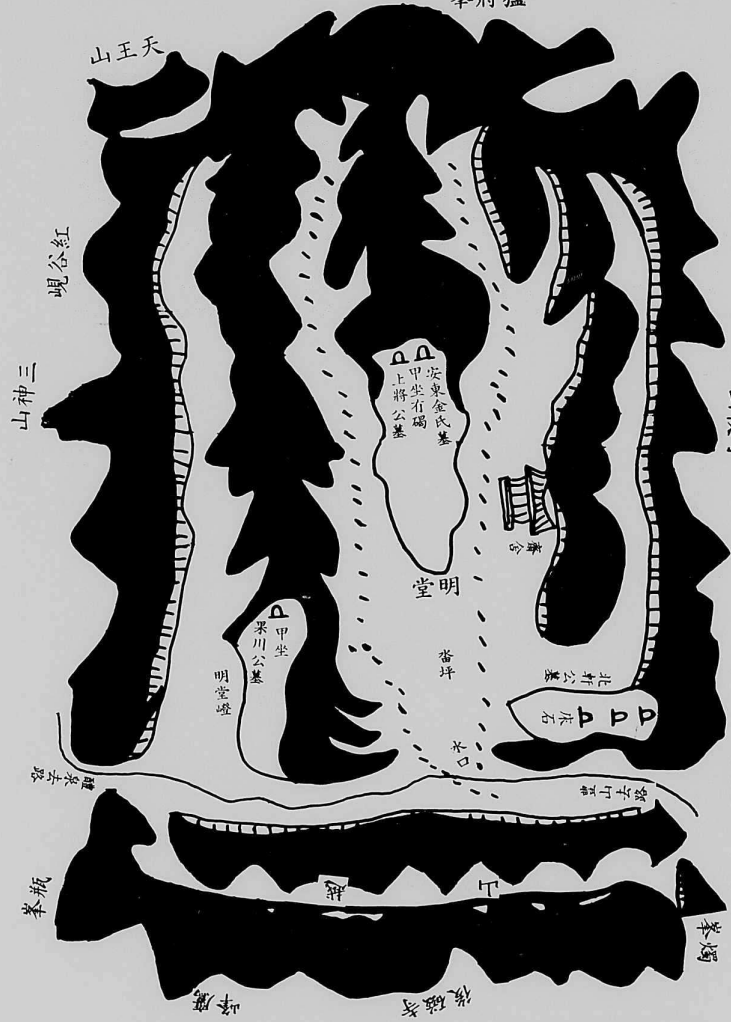
石塔齋舍  
所在：義城郡安平面石塔洞



稷谷講堂  
所在：醴泉郡虎鳴面稷山洞

圖山墳公將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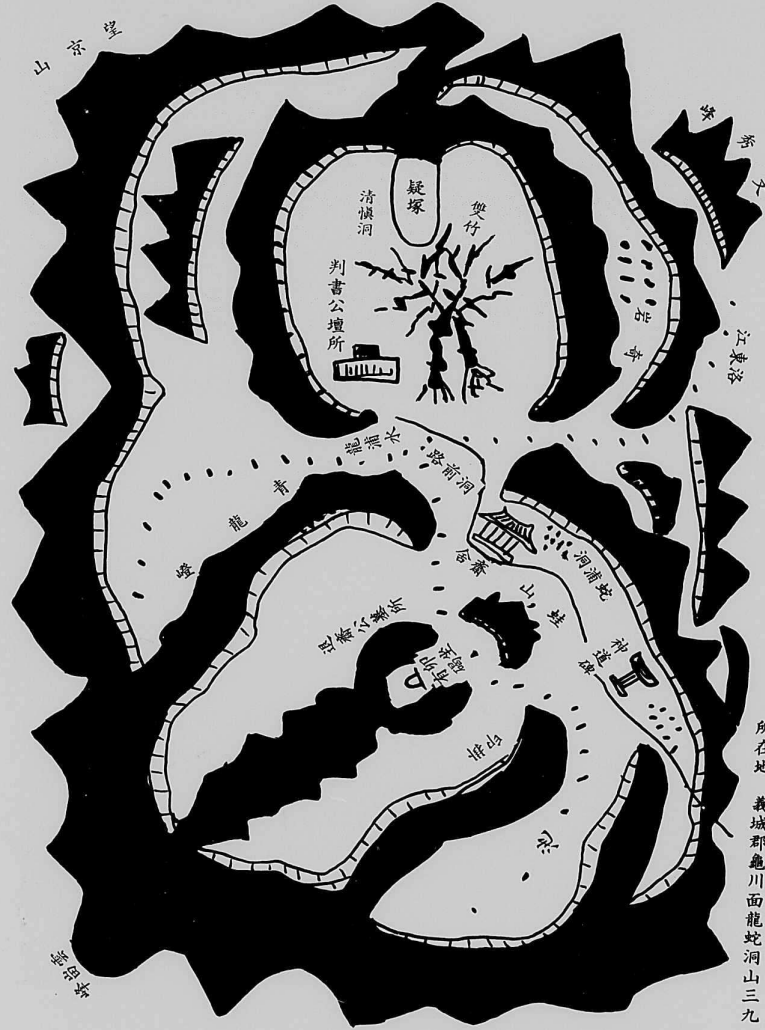
峯將猛



壬坎亥癸丑落脉丑艮起頭甲卯主峯甲入官甲坐丙得辛破

墓祀十月十八日定行

圖山墳公使廉按齋退



坤申九節庚兌一脉甲卯透迤仰入首卯坐丑得庚破

墓祀 陰十月十日 定行

所在地 義城郡龜川面龍蛇洞山三九

承旨公墳山圖(塔石)



乙辰落脈吳已

卯入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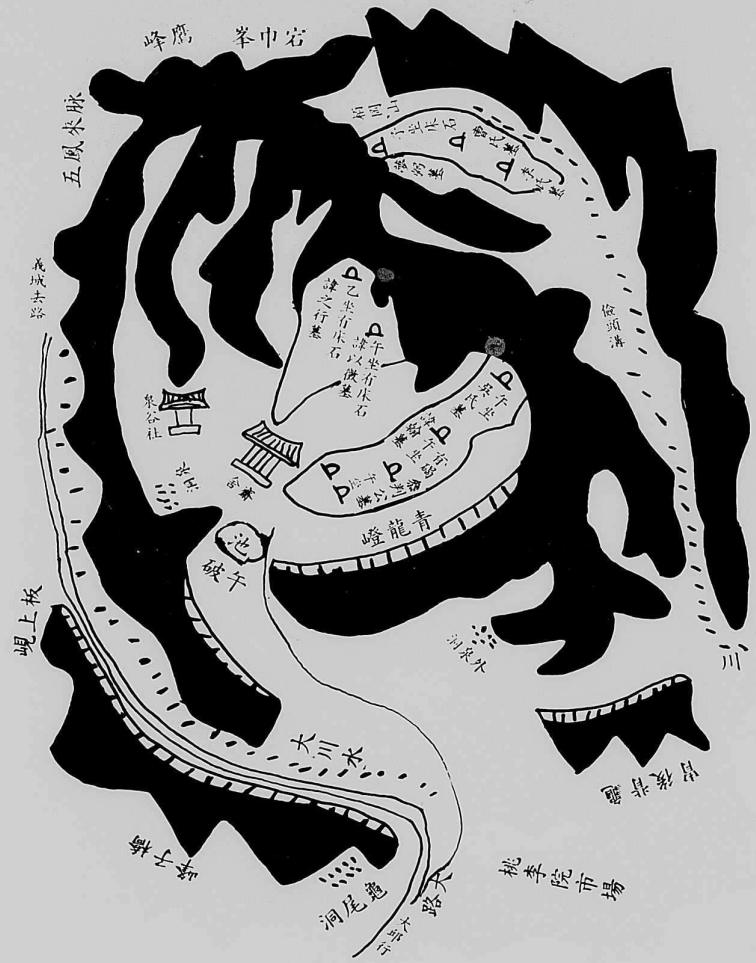
甲坐

乙得

西破

墓祀十月初五日定行

參判公墳山圖(洞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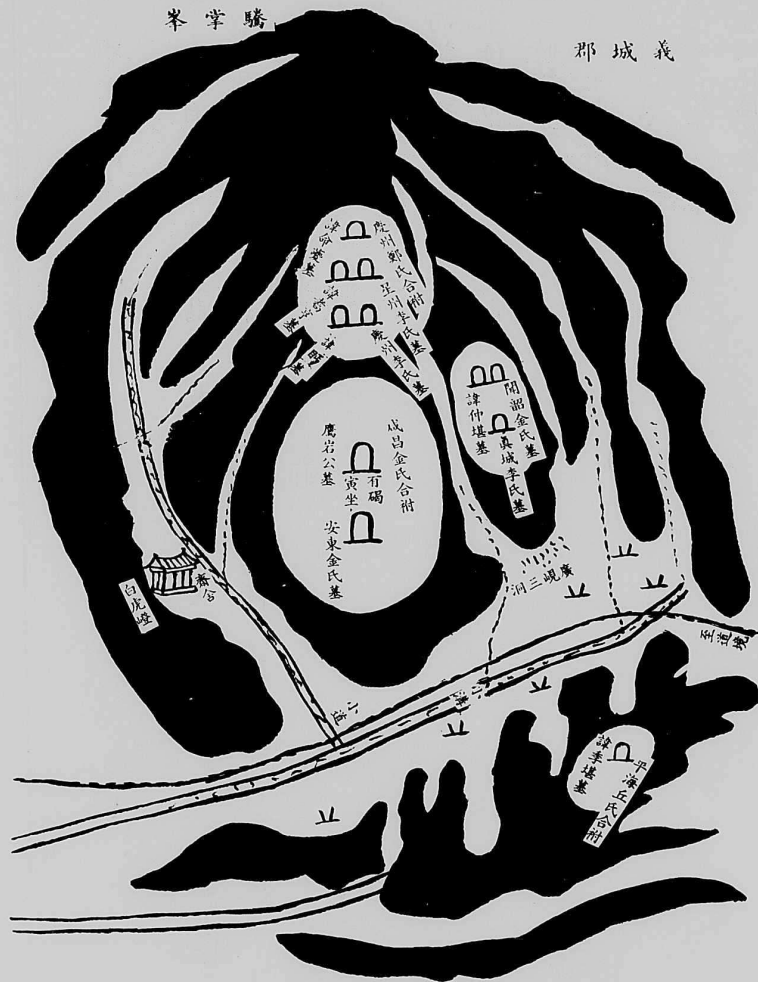


甲卯透迤巽辰落脈丙午起窩丙入首午坐午得午破

### 鷹巖公墳山圖

驕掌峯

義城郡



甲卯透迤寅艮落脉卯入首寅坐申得未破

所在 軍威邑鷹巖三河及板山

墓祀十月初二日定行

### 甲戌譜序

(西紀一九三四年)

氏之有譜昉自古昔天子賜姓諸侯命族姓者統于一也族者分其羣也及其支裔繁而後屬遠合之爲譜周官小史氏掌奠世繫辨昭穆故世家古族必修明譜系以推源溯本而收宗厚俗是聖王風勵世教之一道也我東之中華自高麗壯節公崇謙至鵝洲君益休爲受封分籍之祖鵝洲即巨濟屬縣也版圖公允濡以清直顯于世按廉公祐以孝著蹟而院享自後雲仍布漢湖嶺門闌比櫛蓮桂蟬聯稱爲吾東巨闕惟其區疆間闊而名面或錯行第漸遠而情義浸疎不有以會統而講修之則殆蘇氏所謂路人之無間者也又其事力多絀詢謀難諧勢所不免此派譜之所以不得已而作也偏而不圓雖若可恨然自其派分而後一家文獻之嫩亦云賊矣隸華聯芳輝映一時抗敵殉身血涕誓勉報國之忠也爲考盡職連世棹楔百行之原也敬歷清顯擅盟儒壇望實之重也養閑林泉耆德隆邵仁壽之驗也由是而承藉傳受宗匠林立徽猷懿範式至今未沫赫世箕裘之襲一開卷而瞭然如指掌苟使諸公之後承因是役而益修紹述之業則華宗再昌之會安知不基本於今日按是譜而更勉敦睦之誼則大同團合之期安知不踵成於來後而古聖之惓惓於序統明系者亦豈無所以而然哉元鎬燦基幹其事編第既完將付剞劂相鎬鍾榮甫越五舍問序於不佞吾祖兩侍郎公即同樞公之宅相也忝在自出不敢以年耄筆萎辭



遂盟手書于卷端爲鵝洲氏派譜序

蒼狗黃華節

完山後人 柳淵龜書

甲戌譜序(譯文)

氏의 族譜가 있어서 밝힘은 잊쳐오로 부러 天子가 諸侯에게 姓을 주었고 族에게 姓을 命한 것은 「一」로 統合함이니 族이란 그 羣衆을 나눈 것인데 그 支孫이 번성한 後 諸氏가 서로 合하여 譜가 되었다. 周官 小史氏가 世系를 맡아서 昭穆(註①)을 分辨하였으므로 世家 古族이 반드시 譜를 달아 밝히어 根源을 推仰하고 根本에 溯及하여 祖宗을 높이 고 風俗을 厚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聖王이 世教를 風勵하는 一道이러.

우리 나라 申氏는 高麗 壯節公 崇謙으로 부러 鵝洲君 益休에 이르러 封君을 받고 籍을 나눈 祖先이 되었으니 鵝洲는 卽 巨濟의 屬縣이라 版圖公 允瀛는 淸陵함으로써 世상에 드리웠고 按廉公 祐는 孝宗로써 顯著하여 院에 祭享하고 後의 雲仍(註②)은 호남 영남에 퍼져서 門閥이 隆비하고 進桂가 이어져 오리니 闕族이라 일컬어 왔으나 오직 그 主하는 구역이 달라서 이름과 聲명이 후서되하며 行第(註③)가 점점 멀어지고 情義가 엷어져가니 모여서 禮합하고 講話하고 訂지 않으면 자못 蘇氏의 이른 바 같가는 사람과 같은 처지로 될 것이고 또 그 일 인즉 禮의 많이 들고 의논 할 것이 어려움이 적지 않으니 勢不得已하여 이 派譜를 짓게 된지라 變변하여 원만치 못함이 恨스려움듯 하나 그러나 그 派分한 後로부터 一家 文獻의 아름다움이 또한 밝게 됨이라 棟華(註④)가 꽃다워一時에 빛나니 外적에 항거하여 몸을 죽이고 피(血)로 명세함은 나라에 忠誠이요 孝도를 다하고 貞節을 다하여 세상에 모범이 되는 百行의 근원이요 淸顯을 쉽게 겪고 儒壇에 명세함은 명예의 중(重)함이요 林泉에 閒養하여 德을 높이고 禮위를 높임은 仁壽의 증험이라. 이로 말미암아 籍을 이어받은 宗祖들의 법칙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없지 않고 箕裘(註⑤)의 世襲이 한번 책을 펴면 환하게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은지라. 진실로 諸公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번 講修에 因하여 더욱 紹述의 業을 닦게하면 申氏 宗族의 再昌할 기회가 어찌 오늘에 基本이 되지 아니하며 이 講修를 삼피어 다시 宗族의 宗譜를 힘쓰면 大同團合의 계기가 어찌 來後에 잇달아 이르지 못하며 古聖이 삼가 統合을 일삼고 系統을 밝힌 것이 또한 어찌 그

가 밝히 없겠으리요.

元鑄 燦基가 그 일을 맡아 編第가 이미 완성하여 장차 인쇄에 부칠새 相鑄, 鍾榮이 먼 길을 걸어와서 나에게 序文을 청하기를 吾祖는 兩侍郎公 卽 同樞公의 宅相(註⑦)이나 年老코 筆萎로써 스스로 붓을 잡지 못하사고 不佞이 드리어 손을 씻고 卷端에 써서 鵝洲申氏 派譜序文으로 한다.

完山後人 柳淵龜書

註① 昭穆.. 옛 宗廟의 제도. 中央에 太祖廟

左에 昭(三世 四世 六世를 계사) 卽 宗室을 모시는 차례

右에 穆(三世 五世 七世를 계사)

② 雲仍.. 五代孫 卽 來孫, 六代孫 卽 昆孫 七代孫 卽 仍孫 八代孫 卽 雲孫 즉 遠孫(遠孫)을 뜻함

③ 行第.. 行렬차레.

④ 棟華.. 형제.

⑤ 箕裘.. 父祖 世傳之業. 키(箕) 만드느 집 자손은 키를 만들고, 옷(裘)을 만드느 집 자손은 옷을 만드게 된다.

⑥ 甲戌.. 西紀一九三四年.

⑦ 宅相.. 장래에 높이 장 될 의손(外孫)을 이르는 말

又

夫姓者生也爲祖令之相生而下及百世族者屬也爲子孫之連屬而旁支別屬則各自爲氏是故一姓之祖連生百子千孫一家之屬分爲千戶萬家者也氏族各自一已視之雖有親疎之分自祖先視之均是子孫而固無親疎之別故尊祖敬宗而後孝弟之道行修族合譜而後敦睦之風興焉其如姓苑氏族志及歐陽蘇氏之譜是矣修譜固不美哉吾鵝洲之申與平山同祖而異貫者始祖壯節公後至光祿大夫侍郎公諱益休分封鵝洲君故也諱祐任高麗官至掌令爲全

羅道按廉使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三年朝夕號哭雙竹生墓前事聞 旌閭有二子光富光貴子孫之繁衍其麗蓋不尠而修譜尚未遑也支分派別而世代推遷則不識某公爲幾世先祖睽離散處而親屬疏遠則不知某人爲何派後裔誠可歎也若失今因循則散者愈散遠者愈遠雖欲使之尊祖敬宗而修其孝悌敦睦之行寧可得乎宜乎不問宗支遠近大同合力以爲吾宗一統之譜是誠今日諸宗之本意而邑派諸宗議或矛盾力又未逮獨清龜派遂詢謀收單編成若干卷付諸剞劂而頒于派宗是譜也奚但止尊祖敦族而已亦將爲明彝倫厚風俗之一助也

乙亥四月 日

後孫 光鎬 謹撰

又(譯文)

대저 姓이 칸 「生」이니 祖上으로 부터 아배로 百世에 미치고, 族이 칸 「屬」이니 子孫의 連屬으로서 旁孫 支孫이 別屬 하면 곧 各自 氏가 되므로 一姓의 祖가 百子千孫을 連生하고 一家의 屬이 나뉘어 千戶 萬家가 되는지라. 氏族 各自가 보면 비록 親疎의 구별이 있으나 祖先으로 부터 보면 모두 한 子孫이오 親疎의 分別이 없다. 그러므로 祖先을 높이고 宗親을 공경한 後에 孝悌의 道가 行하고 宗보를 닦고 和睦을 合한 後에 敦睦한 風化가 興하니 그 苑氏의 族誌와 歐陽氏의 蘇氏의 族譜가 이것이니 譜를 訂는 일이 진실로 美譽가 아니겠는가. 우리 鵝洲申은 平山과 同祖 異貫이 되기는 始祖 壯節公後로 光祿大夫 侍郎 公諱 益休께서 鵝洲에 封君된 까닭이라. 諱 祐께서 高麗 때에 官이 掌令에 이르러 全羅道 按廉使가 되었고 父 版圖判書 諱 允濡께서 卒하심에 廬墓살이 三年 동안 朝夕으로 號哭하니 雙竹이 墓前에 나다 이 事實이 朝廷에 들리매 旌閭로 褒彰되었고 二子를 득었으니 光富 光貴이며 子孫의 連屬은 그 수효가 甚히 많아서 譜를 訂는 일은 아직 바쁘지 않다. 支孫이 나뉘어 지고 派가 갈라져서 世代가 멀어지면 某公이 몇대 先祖인지도 모르고, 呼려져서

親屬이 疎遠하면 某人이 어느 派 後裔인지도 알지 못하니 진실로 可歎할 일이라 만약 이제 기회를 잃으면 恐어진 者가 더욱 恐어지며 멀어진 者가 더욱 멀어져 비록 宗親을 높이고 宗親을 공경하여 그 孝悌敦睦의 行을 하고자 하나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오 마땅히 宗親 支孫의 別고 가차음 것을 묻지 말고 大同合力하여 우리 宗親의 一統한 族譜를 訂으면 진실로 今日 모든 宗親의 本意이며 邑派의 모든 宗議가 或 矛盾되고 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관의래 홀로 清龜派는 三디어 收單하여 若干卷을 編成 刊行하여 派宗에 나누었으니 이 譜가 비단 祖先을 높이고 一族을 敦睦하게 할 뿐만 아니라 彝倫을 밝히고 風俗을 厚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乙亥四月 日

後孫 光鎬 謹撰

版圖判書公事蹟

公諱允濡本諱元濡避高麗忠宣王名改之奉翊大夫版圖判書兼軍器寺別檢校事以清名直節表顯當世人比之唐介墓在尚州丹密縣清慎洞不幸失其墓設壇以祀之子按廉公府君嘗廬其墓故至今密人稱其洞曰居廬洞

版圖判書公啓辭

高麗忠烈王六年正月壬辰以左承宣申允濡本諱元字道謙忠宣王名以允字代今當從允字除版圖府判書兼軍器寺別檢校事夏六月丙申元皇帝以東國所上表牋語涉不敬詔徵撰表人撰表人皆以計避之不欲行公進啓其略曰伏以方今國事可謂無可爲己凡爲臣者不避夷險以殉王職是固其分也今

廷臣當彼元困我之日鼠畏狼顧爭自謀回思全身若千金之重忘爲國如弊廬之賤終無一人臨亂者如是而國將何保臣請斬其輕國愛身之輩以勵其餘擇能事專對之人使不生患幸甚於是命下集賢殿提學柳得韶等四人于獄七月甲子遣政堂文學李英仁魏元凱等赴京師

出東史  
纂要

### 涑水書院景賢祠上樑文

孝宗丙申(一六五六)

高興 李元圭 鋤谷

一邦遺化既醉心於當時百世不忘宜辦香於茲土即此規模之革舊忽焉風采之鼎新嘗觀昔賢經過之鄉必有後來瞻仰之所臥龍菴設諸葛之號偶然相符棲鳳院名道卿之行不過一宿茲皆出於好賢之攸篤矧今仁者遺澤之所存恭惟退齋申先生誠通鬼神本立忠孝血淚入土竹抽孝子之心風霜灑途棠映御史之節推其君子之居最近所以親炙其德允深愚齋孫先生視民如傷澤物爲利活我壽我福我出靈佛於西天懋斯懃斯悶斯呼慈母於赤子不謂其暫留一日至于今永戴二天雖先後遠近之不同實觀感欣慕之無間去後遺愛猶知事生之薦度即茲妥靈敢昧尚賢之以禮載經營之爰始亦謀度之自初尸祝以安已經諸老先生指教民彝同好益見一縣多士之心勤覩虹樑之忽騰喜鳥革之如跂羣山卓立瞻氣像之戔戔大川彎回悟本源之混混牲幣俱潔二丁之享祀始修門牆益高諸子之依歸有所願有朋自遠而來者當見

賢思齊而敬焉人母曰即亡瞻之在前仰之在上道如是而可入則爲孝出則爲忠無墜先輩之儀形益懋古人之事業助而善頌樂此成功拋樑東二子高名孝與忠莫謂典型今已遠表章將欲啓羣蒙南涑水晴光玉鏡涵樂園中當日樂請君須向此中探西山高萬頃豈能躋雖然勉勉無停步分寸攀緣自有梯北道波浩浩流無極泝洄如欲尋真源從此撐船各努力上水若增清山更爽當見洋洋知所趨莫令貿貿迷方往下倚檻平看千頃野不耕而獲非所聞務學當如務農稼伏願行上樑之後道一變而至魯己百能而加人左圖右書有朝夕游泳之樂上棟下宇無風雨震陵之災但知聖賢之經訓蓄奮不憂貧而憂道豈愿富貴之膏梁文繡母外治而外營將使荒濱寂寞之餘庶覩盛際文俗之化

### 景賢祠記

安東 權震翰 洛濱

商山治之東有密縣縣之西涑水上有祠焉乃申退齋孫愚齋兩先生揭虔尸祝之所也按退齋麗朝人也居家而雙竹著孝感之異立朝而風采振一代之聲俱載於三綱錄輿地誌古所謂可祭於社者其不在於斯人歟愚齋去退齋最後而莅是邦即本朝 中宗(一五〇六) 仁宗(一五四五)廟世臣也治爲一代最而仁愛尤深於是縣也縣之人去思之無已碑頌之不足遂依狄梁公故事立生祠以寓其慕時則退爺餼享之典未舉焉益切於一時耳目之所及而百世已定之議則

必有鄭重而不敢容易者亦有數關焉泊于 萬曆(宣祖二十五年西) 壬辰之亂祠宇遺像蕩然於 兵燹中越四十三年 崇禎乙亥(仁祖十三年西紀) 一六三五年 重建而還安之於是縣中父老仍與之謀曰愚

老遺愛誠不可泯而以退翁淑行尚闕緝儀於蓄德旌異之地此吾輩之羞也盍亦妥其靈而并享之乎倡議者趙公光瑩權君堵孫君克昌也領其說而翕然以定者愚伏鄭先生蒼石李先生沙西全先生也趾其美而追述者申臺省悅道兄弟也撫實而掄揚者李臺省元圭金大諫應祖也議克合遂從之廣其室而合祀焉時大明崇禎甲申(仁祖二十二年西) 紀一六四四年 越十二年丙申(孝宗七年西) 紀一六五六年

歲冬十一月也是舉也吁亦盛矣噫縣之轄於商境僻而地偏去州序最遠不有君子而為之表率則小子後生於何考德而興起哉兩先生存而樹風猷歿而著徽烈無是懿德則世惡知節義之可尚無是崇奉則人孰知趨向有方哉祀典之舉不舉在兩先生無所增損而宇宙公論至今日始定則諸公敦尚扶獲之功有裨於風化也不淺矣扶民彝植名教其自此根抵矣余之生世苦晚雖未得親炙於兩賢之世而去賢人之居若此其甚近聞其風仰其德亦莫吾若也齋舍諸君屬余記其事余作而辭曰秉彝好德之誠心余不必後於人而若其敘事而記實則自有其人焉余何敢當諸君屬愈懇不舍義不敢終辭遂舉其顛末而粗述之

退齋公奉安時告墓文

八世孫 適道 虎溪

猗歟我祖挺生麗末嶽降之靈冰玉之潔得自家庭正直之節立朝崢嶸僚案震縮湖節剛明賦污屏息匪風冽泉莫奈運訖自靖以獻志遂罔僕惠以携歸甘心蹈迹至孝格天血淚化竹鐫石數字萬世不泐表飾門閭赫赫耳目高蹈危行宜享芬苾鄉後詢同建祠躋餼祭社古義有待今日雲仍感戴虔告冥漠

涑水書院景賢祠奉安文

密於尚顏 實乃僻縣 地偏以左 庠學最遠 不有君子 曷樹風聲 按廉挺世 本立道生 至誠感神 筍抽泣血 大字鐫石 赫赫前日 月城鸞樓 文翁化蜀 異治登聞 徵黃增秩 深仁厚澤 泱民肌骨 惟我兩賢 前後揆一 世遠人亡 芳躅如昨 民彝同好 報死寧忽 顧惟生祀 制度踈略 矧茲鄉賢 俎豆尚闕 合祀并享 先正遺教 乃卜新基 有儼清廟 溪山動色 雲物增輝 涓吉妥靈 酒香牲肥 清明如昨 典型愈新 庶幾款格 曠我後人

孝宗丙申十一月 日

大司諫 金應祖 撰

常享祝文

持身廉潔 守官忠直 孝通天地 誠貫雙竹 本立道生 千古準則 鄉邦永慕 歲薦牲特

杜門洞書院退齋先生奉安文

卓矣先生 膺期鍾精 孝感天神 志秉春王 陶牧襟懷 圃冶忠直 遭世艱虞 之死罔僕  
杜門一時 名垂無極 凡在播紳 疇不欽仰 况茲陽九 益切羹墻 幸有諸賢 慕義淑祠  
意有不偶 競相趨事 新廟赫赫 松京之墟 乃覺茲區 迥別他處 是昔行旆 徜徉之所  
於焉建祠 膾炙千禩 今奉先生 揭虔東位 共義羣賢 儼臨緝儀 培植綱常 光前迺後  
高風尚凜 芳躅不朽 將事之始 潔薦虔誠 願垂顧享 佑啓文明

甲戌九月 日

後孫 學錫 撰

尚州士林通文

兩賢合享時

麗朝按廉使退齋先生乃本縣人也居判書公憂廬墓泣血三年雙竹生于墓前事聞于朝表飾

門閭以孝子名其里立石識其所居又按國家輿地誌公之誠孝感鬼神而翰造化缺其處濁世  
能皎潔其身亦無疚於行藏之道蓋亦左右之嘗與聞者也竊惟一行一藝成名者皆足以祭於  
社而惟我先生通天地亘萬古卓異之行尚闕芬苾之禋孰不為之慨然也哉前於月城君孫先  
生建廟之後縣中父老曾以我先生并享事奉稟于愚伏蒼石沙西三先生已定奉安之議而俟  
廟偏狹未果列享為前輩之深歎者雅矣今者祠宇將傾棟礎已撓生等不量力力之微將營重  
修之舉茲將厥由稟定于鄉先生增加數椽之宇方舉合享之議而歲比不登役匡力綿馴致半  
途之廢未免悔賢之謂豈不為吾儕之所共羞也歟伏願諸君子誠存好賢同聲一心并力共事  
幸甚

退齋按廉使公遺蹟

先祖諱祐居尚州丹密縣任高麗官至奉常大夫司憲府掌令全羅道按廉使麗朝故事分遣近  
侍于諸道祭告山川名曰祭告使因以察守令賢否觀風俗美惡考貢賦均制度廣詢博訪以行  
刑賞以對上問名曰按廉使兼是二職其重莫比公當麗季昏濁之時廉潔自持遯世終身考版  
圖公卒公廬墓三年朝夕號哭有二竹生于墓前人以為孝感所致事 聞旌閭名其里曰孝子  
里刻石今在丹密縣路左事在國乘及輿地誌公娶崑山君柳益貞女生二子墓在丹密蛇浦兌  
向原元至正四年四月二十九日除神虎衛護軍王旨藏于家

密城誌

高麗申祐應孝廉官至按廉使後遭世昏濁能皎潔其身可謂得行藏之道矣居廬三年泣血不輟雙竹生於墓前事 聞于朝表飾門閭立石道周以孝子名其里

其上標文曰孝子順孫按跡而出又曰孝水云云流一源

居廬圖

護軍申祐尚州人父版圖判書允濡卒居廬三年有二竹生于墳前人以爲孝感所致旋閭

實網行

輿地勝覽尚州

孝子申祐官至護軍其父版圖判書允濡卒居廬三年有二竹生于墳前人以爲孝感所致事

聞旋閭

護軍官帖

王旨極行申祐爲神虎衛保勝攝護軍者 至正四年四月二十九日

密縣即丹密縣在尚州東五十里有川名曰渭水世傳以爲孝子縣東有鳳城書堂

三續

旋閭碑

在今丹密西館洞里

孝子里刻石高麗奉常大夫司憲府掌令全羅道按廉使申祐之閭

退齋公墓表

尚之轄丹密縣傍有小石碑立路左刻曰孝子里故老相傳以爲按廉使申公所居也過者敬之謹按公諱祐仕高麗官至掌令嘗爲全羅道按廉使麗朝故事以時分遣近侍于諸道祭告山川廉問民俗黜陟守令之幽明名之曰按廉使蓋極一時之選也公處昏濁之世能皎潔持身事父母盡孝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三年朝夕號于墓有雙竹生于墓前人以爲孝感事 聞旋閭以孝子名其里事在國乘及輿地勝覽公有二子曰光富光貴光富有二子曰士贊士廉士廉爲彥陽縣監其玄孫元祿又以孝行趾公美 旋閭公之八世孫今侍講院文學達道氏與余友甚善一日以家狀示余而言曰吾先祖歿已數百年矣衣冠之藏在所居東十里許蛇浦兌向之原而墓道無表子孫又散居遠地展省不能以時恐久遂湮夷樵牧或登丘隴則雖雲仍亦不得識其處况其卓節之行又將泯泯無傳豈不悲且懼哉族兄承旨公在世時暨與余諸同宗謀伐石具碣礪未及樹而歿今願得公一言而剞劂之使先德顯於後則爲賜大矣敢拜以請余惟按

廉公之孝誠既又感鬼神而幹造化赫赫在人耳目奚待蕪拙而傳顧余尚鄉之末學而於公又外裔也於義有不得以辭者遂致其狀而叙之如右其立廟歷官次叙及家居行誼年代已遠而文籍無徵不得以詳焉其子孫衆多亦不能盡錄略書于左見今在朝者文學君及其兄適道祥雲道察訪弟悅道禮曹佐郎其族兄承旨公名曰之悌有文名取大科爲士類所重不幸而未克壽有子名弘望進士文學君有子名在圭皆俊秀而溫雅余所未及知者當亦不少申氏之祿蓋未艾也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又曰君子萬年永錫祚胤非公之謂也耶嗚呼休哉

崇禎 月 日 正憲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 教兼 經筵叅贊官春

秋館修撰官藝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 鄭經世 述

退齋公墓表(譯文)

尚州의 管轄區域인 丹密縣境에 小石碑가 竝의 左便에 서 있으니 새겨 말하기를 孝子里라 옛 新은이 가 서로 傳함에 있어 按廉使 申公이 居住하던 바라 하여 지나는 人들들이 가 서 敬하 하더라 상가 按하여 보니 公의 諱는 祐이고 高麗 벼슬을 하여 官이 掌令에 이르렀고 일찌기 全羅道按廉使가 되었다 麗朝 故事에 때때로 近侍臣으로 하여금 여러道에 나가서 보내서 山川에 祭告하고 民俗을 檢問하여 郡守와 縣令의 어둡고 밝음에 黜陟(내쫓고 승급함)함을 이를하여 按廉使라 하니 대개 지극히 한 時代에 僻壤이라 公이 어둡고 흐린 世上에 處하여 能히 清白하게 물을 가지고 父母성김에 孝를 다하여 父-版圖判書 諱允濩-의 卒함에 三年을 廬墓하여 朝夕으로 墓에서 부르짖으니 變내나누가 墓앞에 나 있는지라 남들이 孝의 感應이라 하여 事實을 들어 대거리에 證표하고 孝子리로 그 마을을 이름한 事實이 國史와 輿地勝覽에 있다. 公이 二子를 들에 光富와 光貴요 光富가 二子를 들에 曰 士贊과 士廉이요 士廉은 彦陽縣監이요 그 玄孫元祿이 또한 孝行으로써 公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旌閔하였고 公의 八代孫은 即今에 侍講院文學(벼슬 이름) 達道氏

는 나와 더불어 벗함이甚히 좋았더니 하국은 家狀으로써 나를 보이고 말하기를 우리 先祖가 歿世하신지 이미數百年이라 衣冠을 장군 居住하시든 東쪽 十里하 「蛇浦」西向原에 있으니 墓道에 表石이 없고 子孫이 또한 遠地에 散居하여 展掃와 省墓를 能히 時節로써 못하니 두려워하건대 오래되면 드리어 湮夷(빠지고 상함)해져서 樵童牧子들이 혹시 丘壠에 오르면 비록 子孫들도 또한 어딘가 그곳을 알지 못거늘 하물며 그 높은 節介의 行實이 또한 將次인명해 傳함이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고 또한 두렵지 아니할까 族兄承旨公이 世上에 계실때 옛 모든 宗으로 더불어 伐石하기를 賈해 碇(돌은돌) 碣(비석) 갖추기로 하였더니 미처 세우지 못하고 歿世하셨으니 이제 願컨데 公이 하신 말씀은 언어 새겨서 先德으로 하여금 後世에 나라이게 하여 寸심이 敢히 결하고 請함이라 함 새 내가 생각하니 按廉公의 孝誠이 旣히 또한 寸心을 感動하고 造化를 幹旋하여 빛나게 사함의 耳目에 있으니 어찌 無拙함을 기다려 傳하리오 돌아보건대 나는 尚州郡에 末學이고 公에게는 또한 外裔라 義理에 있어서 辭讓치 못함이라 드리어 그 行狀을 參考하여 右와 같이 叙事하고 그 廟에 서서 官을 지님과 다음에 몇몇집에 居해 誼를 行함은 年代가 이미 멀고 文籍이 徵據가 없어서 不得已 詳細치 못하고 그 子孫이 衆多하나 또한 能히 다 記錄치 못하여 대략만 左에 쓰노라 보니 即今에 在朝한 者는 文學君과 그의 兄適道는 祥雲察訪이요 弟悅道는 禮曹佐郎이요 그의 族兄承旨公의 名은 曰之悌니 文名이 있어 大科를 取해서 士類의 所重함이 되었더니 不幸히 能히 壽를 못하고 아들이 있어 名曰弘望은 進士요 文學君의 아들이 있어 이름은 在圭가 다 俊秀하고 溫雅하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者도 應當 또한 許지 않을 것이니 申氏의 福祿이 대개 다 하지 아니 함이라 詩傳에 曰孝子가 다 하지 아니 하여 永達히 너의 類를 尊다 하였고 又曰君子의 萬年에 永達히 福祿의 아들을 尊다 하였으니 公을 말함이 아닌가 嗚呼라 아름답도다.

※ 鄭經世 字業任 號愚伏 晉州人 宣祖十九年文科 官吏曹判書贈左贊成 諡文莊 (西紀一五六三年生西紀一六三三年卒) 柳成龍門人 享道南 研經 德林(以上賜類) 孤山院

退齋公遺墟碑銘 并序

丹密尚之隙也地僻而偏宜無以章於世然有所謂館洞里碑之曰孝子里有川橫其前稱之曰孝水川之上巋然而立者曰涑水書院蓋以麗朝按廉使退齋申公嘗居於此也竊稽麗乘士大夫無禮俗未有服三年者雖以朴尚衷之賢其所以自異於人者不過食素朝堂耳公性至孝父卒終三年廬墓朝夕號于前淚血至地有雙竹生墓前人以爲孝感事 聞旌其閭孟子曰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吾聞之矣失其身而能事其親者吾未之聞也公當麗季溷濁嘗以按廉使專制湖南黜陟已而歸田里以終其身即館洞里是已輿地誌曰皎潔其身行藏能得其道嗚呼公之能事親盡其孝者豈非不失其身有以致之者耶公歿殆三百年環密城孝子踵相接棹楔相望識者謂自公發之至若公之裔孫皆以孝友趾其美今以其最著者言之曰元福以孝友薦朝廷授一命曰元祿至孝 旌閭享藏待書院曰道道曰道道曰道道俱以孝友有士林望而道道當 仁廟丁卯丁丑倡義師達道斥和議悅道扈 駕南漢嘗以死自誓曰興孝以孝載密城誌續錄曰之孝死壬辰倭及臨絕血書寄弟勉死 國弟曰之悌有孝友德行享藏待書院曰之益曰鐔曰鈇皆以孝 旌閭曰弘望以孝友清直稱曰濂 贈持平以孝嗚呼何其盛也公之享涑水書院也愚伏蒼石沙西諸先生實主之而愚伏表其墓所以闡揚之無憾公之諸孫猶以

公之所居里久或湮沒謀伐石以文之幾世孫道通氏千里走京師屬濟恭記其事濟恭作而曰懿哉斯役也後之人式其閭不如師其人師其人不如師其心師其心又莫先於百行之源如使人之過密城者因是石以慕其人慕其人以及其心鄉而州州而國洞洞焉興於百行之源克底於比屋可封則是役也未必不爲之倡也其有補於風教大矣濟恭何敢辭公諱祐號退齋鵝洲人也公之父諱允濡官版圖判書有直節人比之唐介云銘曰亂邦不居跡何其潔也爲子盡分行何其篤也是惟申按廉故里聞公之風者是效是則 上英祖之四十一年乙酉

嘉善大夫原任司憲府大司憲兼藝文館提學春秋館事 蔡濟恭 撰

退齋先生遺墟碑銘 (譯文)

丹密은 高州의 古刹이라 地帶가 窮僻하게 偏在하니 世上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館洞이란 마을이 있어서 碑名을 孝子里라 하고 또 名들이 그 實을 잇는 것은 孝水라고 稱하며 그 내외에 늘게 設는 것은 涑水書院이라 하니 대개 麗朝에 按廉使로서 退齋申公이 그 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麗史를 보건데 士大夫도 禮俗이 없으며 三年服을 입는 者도 잇지 않으니 비록 朴尚衷같은 賢者라도 그가 凡人과 다른 것은 官界에서 精進한데 不過했던 것이다. 公은 性이 至孝해서 父喪에 三年을 마치도록 廬墓해서 朝夕으로 墓前에서 號哭하여 淚血이 땅까지 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旌竹이 墓前에 나니 사람들은 孝感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朝廷에 上聞되어 旌閭를 하였던 것이다. 孟子는 말하기를 「그自身을 잃지 않고서 能히 그 父母를 섬기는 者는 내가 드렸으나 그 自身을 잃어버리고 能히 그 父母를 섬기는 者는 내가 들지 못했노라」고 하시었다.



公은 일찌기麗末에 混濁할 때를 當해서 按廉使로서 湖南에서 黜陟을 獨担하다가 열마 뒤에 田里로 돌아와 終身을 하였으니 그 곳이 바로 館洞里였다. 『輿地誌』에는 「그 自身을 깨끗하게 하여 進退에 能히 그 道를 守했다」고 記錄하였으니 嗚呼! 公이 能히 그 父母를 섬겨 그 孝道를 다한 것은 어찌 그 自身을 잃지 않았던 所致가 아닌가. 公이 자신 지저의 三四百年인데 密城의 周圍에는 孝자가 서로 잇기여서 그 門戶가 相望하니 識者들은 公으로부러 나온 것이 라고 말하였다. 公의 後裔들도 모두다 孝友로서 美行을 하였으니 이에 가장 著名한 이로 말한다면 元福은 孝友로서 朝廷에 薦擧되어 一命을 받았고 또 元祿은 至孝로서 莊園에서 藏待書院에서 尊享을 받았을 뿐 아니라 適道 達道 悅道 등도 모두다 孝友로서 士林의 重望을 받았는데 適道는 仁祖五年(西紀一六二七年)과 十五年의 胡亂때에 義軍을 組成하였고 達道는 和議를 反對했으며 悅道는 王駕에 扈衛해서 誓死하여 망하되 「孝로써 忠을 이롭다」고 하였다. 『密城誌』에는 「之孝는 壬辰亂에 倭人의 矚에 卒었는데 臨終에 血書를 써서 아들에게 부쳐 國家를 爲해 죽기를 勸勉하였고之 弟도 孝友와 德行이 있어서 藏待書院에 尊享되었으며 之益鐔 缺 등도 모두 孝誠으로서 莊園가 되었고 弘望은 孝友와 清直으로서 稱頌되었으며 採는 六行으로써 薦擧되었고 濂은 孝道로서 持平으로 贈職을 받았으니 嗚呼라! 어찌 그렇게 盛한가.

公이 澗水書院에 尊享되는데는 愚伏 蒼石沙西의 여러 先生이 實로 主張했는데 愚伏은 그 墓所에 表誌까지 하여서 闕提하는 데 遺憾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公의 여러 後孫들이 오려려 公이 所居하던 마을이 오래가면 湮沒될까 해서 碑石에 글을 새기기로 合謀가 되었다. 그래서 몇 代孫道通氏가 千里를 涉하여 내게 그의 事蹟을 記述해달라고 付託하기에 나는 일어나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이 事役이여 後人이 그 莊園에 敬禮拜함이 그 人物을 師事함만 같지 못하고 그 人物을 師事함은 그 衷心을 模範함만 같지 못한다. 그 衷心을 模範으로 함에는 또한 百行의 源보다 더 먼 거 함것은 없으니 萬若에 密城을 지나는데 著로 하여금 이 碑石으로 因해서 그 人物을 景慕하고 그 人物을 景慕해서 는 그 衷心에까지 미쳐서 鄉에서는 州로 州에서는 國으로 모두 敬虔하게 百行의 源에로 興起해서 能히 頂禮마라 可封할 人物이 나게 된다면 이 事役이야말로 하지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의 風教에 도음이 있음이 큰 것이니 내어찌 敢히 辭免할까」라고 하였다. 公의 諱는 祐이시고 號는 退齋이시니 鵝洲人이다. 公의 考의 諱는 允瀛이니 官爵은 版圖判書로서 直節이 있어서 唐介(宋代에 參知政事로서 王安石과 자주 論爭한 人物)에 비하였다. 이에 銘하느니 亂邦에서는 居하지 않았으니

니 事蹟이 어찌 그리 깨끗하며 子息되어서는 分을 다하였으니 行蹟이 어찌 그리 篤實한가 이것은 오직 申按廉의 故里에서 公의 遺風을 들은 者는 이것을 본받고 이것을 法받을지이다.  
 ※ 蔡濟恭 字伯規 號樊巖 平康人 英祖癸亥文科 正祖戊申領議政 諡文肅

題雙竹圖詩

孟宗泣冬竹雪裏青笋生 王裒攀墓柏樹枯春不榮 人子苟盡道天必格 至誠今看雙竹圖 閱是尚書瑩尚書有是子 寶樹振家聲 湖節旣化俗 栢臺曾蜚英 墓側廬三年 血泣哀惇惇 至孝神亦知 地祇有所呈 亭亭碧玉竿 異哉物之槓 雙叢傍馬鬣 侍立如弟兄 乃知孝子心 與竹同其貞 大凡植物中 此君聖之清 其實風風食其節 松栢爭所以 感於孝欲與孝子 并芟除築場地 不因根本萌苞矣 豈偶然效異通靈精 王立塚隧外 猗猗卓數莖 樹德似於賢 凜然瘦骨勅 葉露如淚滴 林禽爲哀鳴 聲寒野風吹 影淒山月晴 生何並不孤 此理吾且明 後於按廉者 世有黃陸名 其枝本乎根 孫亦祖 攸行寢郎及子姪 善行俱可評 炷掌侍母疾 祈天達五更 身以當白刃 賊虜猶人情 天教鷗擊雉 王雀比豈輕 一家三斷指 門閭宜寵旌 如竹不待培 天性非琢成 先人美其事 文字炳縱橫 鄉黨聳瞻聆 人人歎且驚 家行永不墜 庶或裨世程 孝以傳 苗裔何須金 滿籬至今孝 子里片石何崢嶸 腹食景賢祠 春秋薦犧牲 復觀三綱錄 流芳若蘭蘅 人誰無父母 世多鷗臯籜 嗟我幼失慈 羨他遺君羹 所怙亦已矣 白首悲孤煢 撫圖憶古人 潛然露我纓

歲辛亥三月 顯宗十二年 下泮 進士 南陽 洪錫箕 謹稿

上將公墓碣陰記

公諱始生鵝洲人官至禦侮將軍副司勇高祖諱祐奉常大夫司憲府掌令全羅道按廉使事父  
母至孝父判書公卒公廬墓三年朝夕號哭有雙竹生于墓前事 聞旌閭會祖諱光貴知鳳州  
事祖諱希信通訓大夫丹陽郡守父諱乾內禁衛公娶比安縣監金三近女生四男長以甫訓導  
次介甫司直次用甫縣監次善甫教授子孫散居于本府豐山清州義城而居義城者尤昌大承  
旨之悌其子正言弘望實爲公五六代孫也各派繁衍幾至累百餘人公積德餘蔭有以延及後  
昆也歟公移居于安東郡豐北鼎寺洞

丙辰四月 日 改堅

九代孫 貴龜識

判決事公墓碣陰記

公諱翰字國憲鵝洲人高麗按廉使諱祐六代孫高祖諱希信丹陽郡事會祖諱乾內禁衛祖諱  
始生禦侮將軍考諱介甫司直妣星州李氏司猛仲孚女配掌令吳永年女生三男四女長應奎  
次應璧次應參長女適朴汝舟次女適李張次女適南應鍾次女適李普應奎生二子夢得夢弼  
應璧生二子弘俊英俊應參無後夢得生七子之孝之悌之信之義之行敬之訓夢弼無已出

叅判公墓碣陰記

以之行爲后弘俊生二子之善之問英俊生一子之忠之悌登 宣祖己丑甲科官至同副承旨  
之行以財補 國除知中樞府事蒙追 贈三代公自安東來居義城以外鄉也墓在本縣金磊  
坊泉洞子向原配 贈淑夫人長髻吳氏墓在後遺蔭所暨雲仍蕃多不能悉記

七代宗孫 天翹 謹書

公諱應奎字文仲判決事諱翰長子內外世系詳載判決公碣陰配昌寧曹氏忠順衛良範女二  
子七孫亦載判決公碣陰墓在判決公墓前配 贈貞夫人曹氏墓在本縣下川坊新禮洞柏岡  
午向原即祖妣星州李氏墓後也

六代宗孫 天翹 謹書

左承旨公墓碣

公諱夢得字商卿鵝洲人高麗按廉使諱祐之八代孫也高祖諱始生禦侮將軍會祖諱介甫司  
直祖諱翰 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考諱應奎 贈嘉善大夫工曹叅判妣昌寧曹氏 贈貞  
夫人嘉靖己亥生萬曆丁未終前夫人朴氏同葬于義城西面安平橋洞東甲坐庚向之原夫人  
考敏樹妣咸陽朴氏嘉靖庚子生隆慶己巳終生三男一女長之孝次之悌登己丑甲科官至承

旨有功蒙推恩次之信女適金希孟後夫人高敞吳氏生四男之義之行之敬之訓弱冠妖第五子之行出爲同生弟判尹公諱夢弼後以財補國除同知中樞府事蒙追榮三代長孫命羲有三男其餘內外孫合五十餘人後夫人墓在前

崇禎三年十二月二十六日

孫進士弘望謹書

吳氏墓前碣陰夫人左承旨申夢得之妻考諱士翼妣咸昌金氏嘉靖丙辰生天啓癸亥終有四子見承旨公墓碣陰

### 鷹巖公行狀

昭敬王二十五年五月二十三日鷹巖先生申公殉于韶州下泉之巖穴中氣象慘惡時機急迫有不忍言者矣其後三百年餘后孫相鎬悼時史之無徵念先徵之泯沒採取前後諸先生所纂述以附續編一日泫然語在寬曰先祖事實略在篇中然獨行狀一編不顯子其叙次之在寬敬對曰已悉矣何待贅錄曰編輯之例非狀無以備全誌其勿辭謹按公之從玄孫進士公震龜所撰遺事曰公諱之孝字達夫鵝洲世也申氏之源出於高麗金紫光祿大夫鵝洲君諱益休麗末司憲府掌令諱祐父喪廬墓雙竹生墓前事聞旋其間自是勲爵相承爲山南大族會祖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諱翰祖贈嘉善大夫工曹叅判諱應奎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

旨諱夢得妣贈淑夫人月城朴氏贈叅議敏樹女贈淑夫人高敞吳氏叅奉士翼女公之外祖朴氏也嘉靖辛酉三月十八日戊寅生公天姿粹美英爽絕倫九歲丁母夫人憂哀毀終制自十餘歲已有成人器度天性方嚴正直豪奴悍僕皆畏戰無敢違令與弟梧峯先生諱之悌受學于惟一齋金先生勵志力學晝夜勤苦金先生大奇之同門諸友憚公之剛毅莊重不敢狎昵年十八爲校任一時儕流莫不敬服鄉長者莫不敬待年二十五鄉人推爲校長公端坐終日容儀整肅諸生無敢喧嘩過者皆趨無敢吏履而步自少文華瞻饒屢應鄉舉輒崑選山南諸子無不讓頭左承旨公常曰扶我門戶者必此兒也梧峯先生嘗曰吾兄自幼少有志於學比長頗見成就四書及經傳皆手書日誦之其專致於事業有非朋徒所能及而區區踐履之實惟有舍弟知焉弟以不才先兄竊名兄雖不以得失介意而弟每以兄之懷玉不售爲一恨也壬辰五月倭寇搶攘梧峯先生時爲宣城宰在官公獨奉母吳夫人在家避亂入隱于巖穴有一二倭卒往來山下公射殪之賊疑有人而不能跟尋一日乳兒在巖穴啼號不已公懼倭聞而踵之褻及于親乃抱兒別處林間倭遂隨至畏公風儀卓絕不忍遽害終剔左肩而去流血淋漓公解兒襁褓瘡就息巖穴自度其不能起欲寄語于梧峯而無紙筆乃取葛嚙之爲筆濡其血書諸衫遺命送宣城其書大槩謂吾之遇害命也老母則自有他弟君惟盡忠死國可也干戈搶攘中或得死所而死之者恐無以尋其遺骨則君足掌書宣城二字以爲的云云越數晝夜而沒年甫三十二尚忍言哉晦屏先生書血書拾錄畧曰噫梧峯府君嘗以此血書藏之笥篋間其後我曾王考嘗閱

家中舊蹟得是書不勝感歎乃袖往傳于公之五世孫海雲時代已久血字模糊袖衫朽落觸手粉飛顧其兩袖尚全字行宛然如昨中忽失火血書并入灰中豈不悲哉及其見燒雖無人記比明文首尾數句辭意表表父老尚相與傳誦公之七世孫鼎普嘗爲予說血書顛末愀然欲淚欲予爲之收拾俾有可考而過者公之諸后孫某某懇之僅成一錄令人觀之有足據此而信其全書者云云又書收錄後曰嗚乎昔張巡與南霽雲共被喝脅臨死乃呼雲曰南八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千載之下尚令人慄然豎髮也若夫以家居無官守者猝然被賊鋒臨死方奄奄垂絕而乃濡血作書遠寄百里外以勉其殉命者此雖在骨肉兄弟間蓋亦難能豈容其暇念及遠哉與夫即地相呼語者其所處豈不異哉若血書一事實前古未有也此與張巡事亦絕異矣非平日定力卓然有立于中者能如是乎龜窩金先生敘之曰嗚乎當倭奴充斥之日人之被害於凶刀之下者蓋不獨公也惟其創血淋漓之中生死俄頃之間而書設百里外之弟有若床第上對面說話身死之不恤而臣節之勉盡家私之不槩而殉國之惓惓其友于德愛之情親君死長之義炳然如丹直可以質鬼神而爭日月矣此則惟公獨能之而非人人之所可勉而及也噫以如其精神氣魄操執識見引而置之可爲之地則必當以勉弟者自勉而爲江淮之保障不幸而爲巡遠景卿之所爲亦不必多讓惜乎其闕而不試遭罹凶禍其亦可悲也已立齋鄭先生曰夫能辦天下之至難者必能立天下之大節而無疑今復自平日已決一死而遇死地即死亦易耳至於竄伏巖穴方以圖生爲心者猝被賊刃於意外則必將驚劫之不暇疾痛之不堪而乃於垂死

幾絕之際念及於同室之爲王臣者劃其他日殉節后不失其尸之策此天下之至難也倘微精神氣魄過絕人遠甚自其平日熊魚之辨已定於中撐腸拄腹只是忠孝二字則一朝遇變其孰能辦此江臯柳先生曰公平居好讀書日誦四子經傳手抄性理要語以資講習其創卒臨絕幾字血書詳緩激烈有牖下將死者之所不能及豈非其素所講明見得者有以致之歟宜其爲梧峯之兄也壺谷柳先生曰公自少以風裁器局見憚於輩流及長與梧峯同遊大方又以力學見推則其於忠孝倫彝固已講之熟矣而臨危致命雍容整暇自有不期然而然者矣譽其已然之迹而見其將然之心則巖穴亦戰陣血衫是華袞一死而忠孝具焉若公者其可謂死而不朽者矣拓庵金先生書殉孝碑曰方公之受刃也半體墜落流血如川其慘毒何如而公神閒氣定處置從容一書辭意不啻丁寧首句八字言自己之不密而凜然殉孝之意可見末句七字言季氏之當殉於國而足掌書二字所以備原濕之求也處己則以殉孝自決勉弟則以殉忠相勉樂共子所謂民生於三事之如一所在即致死者非是之謂歟公之后孫鼎世氏識曰惟我七代祖府君之沒距今二百有餘年當時南溪西潭敬亭懶齋諸先生誄詞暨縣誌畧叙踐履之實而血書顛末泯沒不著蓋世之知府君者鮮矣族祖竹厓公始述遺事族叔晦屏公編成拾錄又曰府君之滿腔丹血字字成碧而一幅綉衫又化烈焰掇拾於斷爛之餘者無由登聞天聽未蒙華袞之褒此豈非後孫結髓之恨也遂與家兄及族叔維星族兄鼎宅氏族姪思國謀所以壽其傳者蓋綴拾題識爲原編遺事誄碣諸文字爲附錄著世系于卷端追附識銘于卷末云云公之配成昌

金氏習讀疆女男長曰命羲義禁府都事次曰命夔都事男曰孟堪主簿曰仲堪曰季堪仲房男曰耆亨都事其登科者玄孫曰天杰生員曰天達生員五世孫漢雲進士公之墓在義城坂反山負震原與夫人同封鷹巖一麓即今泉谷也遠近士林之感愴寓慕之所也後孫正遠學遠膺基環基等築壇而護其墟立石而表其壇士林逐年崇奉之鍾善相鎬氏竭誠力至今不替焉嗚乎忠孝二字是互萬古不墜在人者也公之後孫布南北櫛比繁衍莫不以報本守志爲第一件事予以見公之一脉心法垂垂不已也昔吾西潭先祖與先生爲莫逆交鶴巖講學之會播人傳誦在寬今奉先祖遺誄于先生之實紀其所感涕如拜兩家先祖于几席之下也茲不敢違相鎬氏之請以寓契家後生之微忱焉

丙戌春二月上旬

後學 唐城 洪在寬 謹書

鷹巖公行狀(譯文)

소경왕(昭敬王 선조(宣祖)의 시호(諡號)) 二十五年 (서기 一五九二年) 五月二十三日 음양(鷹巖) 선생(先生) 生공(申公)이 의성(義城) 하천(下泉 지명(地名)) 암혈(巖穴) 가운데서 卒호(歿考 호호를 위하여) 하시었다. 그때 기상(氣象)이 참후하고, 시기(時期)가 급박(急迫)하여 차마 말 못할 바가 있었다. 그 후 三백여년이 지나, 후손(後孫) 상조(相鎬)씨가 그때의 시사(時事 그대의 역사)의 정현(正顯)바 없음을 슬퍼하고, 선대(先代)의 사적(事蹟)이 민몰(泯沒)되어 전함을 열려하여, 이전의 여러 선생들의 친술(纂述)한 바를 채택(採擇)하여 續編(續編)에 부치고, 어느날 현연(法然 은평을 뜻하는 모양)히 재공(在寬)에게, 『선조의 사적이 간략하게 편중(篇中)에 있으나, 행장(行狀)』 한 편이 없으니, 자비가 그 글을 하라』하여, 재공(在寬)이 정대(敬對)해 『이미 모두 다 아는 바이니 어찌 배록(贅錄)하라』하니 『책을 편집(編輯)하는 예(例)는 행장(行狀)이 없으면 그 진지(金誌)를 갖출 수 없으니 사양(辭)할라』하였다.

(行狀) (註①) 한 편이 없으니, 자비가 그 글을 하라』하여, 재공(在寬)이 정대(敬對)해 『이미 모두 다 아는 바이니 어찌 배록(贅錄)하라』하니 『책을 편집(編輯)하는 예(例)는 행장(行狀)이 없으면 그 진지(金誌)를 갖출 수 없으니 사양(辭)할라』하였다.

삼가 인창(按察)하니 공(公)의 종헌손(從玄孫) 진사(進士) 진귀공(震龜公)이 소친(所撰)한 유사(遺事 죽은 사람의 생전의 나래에 공이 맡은 비속이치) 이 서로 이어 경상도의 저족(著族 유명한 집안) 이 되었다. 증조(曾祖)는 통정대부(通政大夫) (註⑤) 장예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로 증직(贈職)되었고, 휘(諱)는 헌(翰)이요, 조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註⑥) 공조(工曹) 참판(參判)으로 증직(贈職)되었고, 휘(諱)는 응(應)이요,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註⑦)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丞旨)로 증직(贈職)되었고 휘(諱)는 몽득(夢得)이요. 어머니는 숙부인(淑夫人) (註⑧)으로 증직(贈職)되었고 월성박씨(月城朴氏) 증참의(贈參議) 민구(敏樹)의 따님이요. 증직(贈職)으로 숙부인(淑夫人) (註⑧)으로 증직(贈職)되었고 월참봉(參奉) 사익(士翼)의 따님이요. 공(公)의 외조부(外祖父)는 박씨(朴氏)이다.

가정(嘉靖) (註⑨) 신유(辛酉 병축(丙寅)十六年) 三月 十八日 戊寅에 태어났다. 공은 타고난 모습이 아름답고 기품(氣品)이 배어났다. 九세에 모친상(喪)을 당하여 지극히 슬퍼하며 예제(禮制)를 마치었다. 十여세로 부러 이미 성인(成人)의 도량(度量)과 재능이 있었고, 타고난 성품(性品)이 방정(方正)하고 엄숙(嚴肅)하며 정직(正直)하였다. 호노란 부(豪奴悍僕 사나운 부) 이라고도,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공의 영(令)을 어기지 못하였다. 계씨(季氏) 오봉선생(梧峯先生) 지계(之梯) (註⑩)와 함께, 유일계(惟一齋) 김선생(金先生) (註⑪) 언기(彦琦)에게 한문을 배움에 큰 의지(意志)로 크아 힘써 공부하니 김선생이 크게 기뻐하여 여기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 동료들은 공의 강학하여 글하지 않고(剛毅) 장엄(莊嚴) 정중(鄭重)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치압(親狎 가까이함)하지 못하였다.

나 이 十八세에 향교(鄕校)의 임원(任員)이 되니 그때의 동무들이 모두 정부(敬服)하고, 향내(鄕內)의 어른들도 정(敬待)치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 나 이 二十五세에 사림(士林)이 추친하여, 향교의 교장(校長)이 되니, 공이 종일 제실에 단정히 앉았으면, 용모와 거동이 정제(整齊)하고 숙정(肅靜)해서, 제생(諸生)들이 향부로 더불어 웃고, 그 곳을 지나가는 자도 조용히 걸어갔다. (無敢成履而步) 신술(新術)과 고지(高知)가 지 못함

공은 어릴 때부터 글장의 성묘(瞻鏡) 경(鏡)이 나뉘어 함 하던, 여러 번 향시(鄕試)에 응시(應試)하니, 우수한 성적으로 피선(被選)되었다. 산남(山南) (註12) 선비들이 양두(讓頭) 의(義)의 자(子)를 가리킴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좌승지공(左丞旨公)의 『의(義)의 문호(門戶)』를 부지(扶持)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의 리라』 하였다.

오봉선생(梧峯先生)이 일찌기 『나의 형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을 깊었고, 장성(長成)함에 자못 성취하여 사서(四書) 및 성경(聖經)을 모두 손수 쓰고 날로 송독(誦讀)하니, 그 오로지 힘쓰는 사업은, 벗들이 응히 미치지 못하였고, 또 그 구구(區區)히 실천하는 실상(實狀)은 오직 이 동성이 알뿐이다. 동성의 부계(不才)로 선형(先兄) 죽은 형(兄)을 가리킴의 명망(名望)을 그윽히 하니, 형은 비록 득실(得失)에 개의(介介)치 않으나, 동성은 매양 형의 품은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퍼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한다.』 하였다.

임진(壬辰) 서기(西紀) 1592년 五월에 왜구(倭寇)가 장양(捨擲) 배(船)의 선(船)을 버림 하고 그 때 오봉선생이 선성(宣城) 의(義)의 고(高)고 현감(縣監)으로 임명(任命)되었을 때 오봉의 홀로 어머니(寡母) 오부인(吳夫人)을 모시고 있었다. 피난하여 암혈(穴)에 숨으니 한 두 왜졸(倭卒)이 산하(山下)를 왕래하는 지라. 공(公)이 활을 조아 죽여 없애니(射殮), 왜졸이 사람이 있으니 혼자를 찾지 못하여 의심하더니 어느 날 유아(乳兒)가 암혈(巖穴)에 있으면서 울고 그치지 않으니, 공(公)이 왜졸이 암혈(窩)에 어머니에게 미친 것을 두려워하여, 유아를 안고 다른 숲속에 숨으니, 드디어 왜졸이 따라 들어왔으나 공의 풍채(風采)와 의용(儀容)이 뛰어나 차마 해(害)하지 못하니, 마침내 의족(義脚)을 칼로치고 달아나니 유혈(流血) 흐르는 피(血)이 임의(淋瀝) 흐르는 물(水)과 같음 하여 공(公)이 아이를 싣고 포대를 풀어 상커를 싸매고, 암혈에 나아갔으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동생 오봉선생에게 절별의 글(書訣)을 보내려 하였으나, 지필(紙筆)이 없으니 활을 삼아 붓으로 하고 그 피에 써서 적상에 유명(遺命) 죽은 자의 말이이

이 되니, 선성(宣城)의 오봉선생에게 보내니, 그 글의 대개는 『내가 해(害)를 당한 것은 명(命)이라 할 것이다. 노모(老母)는 다른 동성이 있으니, 근(君)은 오직 충성(忠誠)을 다하고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이 옳을 것이다. 난리가 어수선하니, 복 죽을 곳을 얻어 죽되라도, 그 유골(遺骨)을 찾지 못할까 두려오니, 근(君)은 발발의, 선성(宣城)의 두자를 써서, 표적(標的)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 벗남의 지난 뒤에 물(沒)하니, 나 이 겨우 三十二세라, 이 죄 그 슬픔을 말할 수 있겠는가.

회병신선생(晦屏申先生) 체인(體仁) (註13) 이 쓴 형서습록(血書拾錄) 형서(形書)를 찾아 모은 것의 『술포다. 오봉부군(梧峯府君)이 일찌기 이 형서를 상자에 장제(藏在) 하였더니, 그 후 우리 증조부(曾祖父)가 집인의 구적(舊籍) 오래된 서적(書積)을 찾아 봄에 이 형서를 얻어 감탄하여 마지 않고, 그를 공(公)의 五세손 해운(海雲)에게 전하니, 세월이 오래되어 형자(血字) 피로 쓴 글자가 모호하고, 명주(明州) 직삼이 깨어 떨어져, 손을 라면 분가루 같이 날아 없으니, 두 소매는 온전하여, 글씨가 완연하다. 하니, 중년(中年)에 실화(失火)로 형서도 함께 재(灰)가 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 화재를 비록 기억하는 사람은 없으나, 형서의 첫머리와, 끝의 몇 구(句)는, 말과 뜻이 명확하여, 어른들이 서로 전하니, 공의 七세손 정보(鼎普)가 형서의 권말(顯末)을 설명하고, 술포(酒浦)나에게 형서를 수습하고, 고증(攷證)케 하라 하였다. 지년(知年)공의 후손(後孫) 모모(某某)가 정선(正善)들과 겨루는 기록을 이루니, 사람들이 봄에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그 권서(全書)를 추리 민을 민하다.』 하였다. 또 그 수록(收錄)을 쓴 후에 『아! 옛날 당대(唐代)에 장순(張巡) (註14) 이 남계(南霽雲) (註15) 과 함께 공장과 협박으로 죽음을 이르자, 순(巡)이 은환(隱환)을 불러 『남팔남아(南八男兒)』 (註16) 죽는다.』의 (議)를 지 아니한가』 하니, 천년(千年)이 오늘날에도 두려워 머리가 굳는다(慷慨) 정(正)의 기(氣)가 굳어짐』. 만약 그와 같은 때의 원로(元老) 관(官)로 비유함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가, 갑자기 적(賊)의 칼날을 받아 죽음을 이르면, 피(血)에 붓을 써서 글을 써서 멀리 백 리 밖의 동생에게 보내어, 나락을 위하여 글(書)을 달라고 할 것을 힘쓰게 하니, 가령 형제간이라도, 또한 어력을 것이다. 어느 해가의 생각이 먼데까지 미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만 그 처지에 서로 불리 말하는 자, 그 처(處)한 바가 다르지 않겠는가! 형서(血書) 血書 一事는 전고에 없었던 일이라. 장순(張巡)의 일과 함께 드문(絕異) 일이다. 평소 확정된 학문의 힘이 뛰어나, 중심(中心)에 즉(即) 축(蓄)되지 않았으면, 능히 이러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와(龜鶴) 김선생(金先生)(註17) 공(坡)의 서문(序文)에 『왜졸(倭卒)이 이나라에 꺾겼던 날에, 흥한 칼날에 해(害)를 입은 자가, 공 혼자자가 아니련만, 유형이 임리하고 생사가 경각에 있는데, 백리 밖의 제씨(季氏)에게 마치 평상위에 서, 대면하여 말하듯이, 결별(決別)의 글을 써서 죽음을 근심치 않고, 신하(臣下)의 대절(大節)을 다 하도록 힘쓰게 하고 사가(私家)의 일을 거리키지 않고, 그국(殉國)나라를 위하여(殉國)에 힘쓰게 하니, 형제간의 우애(友愛)의 정(情)과 나라를 위하여 사장(死長)나라를 위하여(殉國) 하는 의(義)로움이 밝기가 단지(丹直)였다고 하니, 가히 귀신에게 묻고 일화와 다를 것이다. 이는 공 홀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은 힘써 노력하여도 미칠바 아니니라. 슬프다. 이와같은 정신과 기백으로 식견(識見)을 뛰어 유위한 치자(治者)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제씨(季氏)에게 힘쓰게 한 것을 당연히 스스로 힘썼을 것이고, 세상의 대평(泰平)이 보장 되었을 것이다. 불행히 원대한 뜻으로 그경(景)의(註18) 할 일을 스스로 하여 뒤지지 않았다. 애선(哀惜)하도다 요절(夭折)하여 고결한 행의(行義)를 시용(試用)하지 못하고, 흉화를 일으키니 또한 슬플뿐이로다.』라고 하였다

임계(立齋) 정선생(鄭先生)(註19) 종로(宗魯)가 『대개 천하의 어려운 일을 힘쓰는 자는 천하의 대절(大節)을 실행(實行)함에, 의심이 없으니 그 스스로 충절(忠節)을 위하여 한번 죽기를 결심하였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임형에 들어서 살기를 도모한 사람이, 뜻밖에 갑자기 저의 칼날을 받으면 겁에 질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공금이 끊이지 않는 때에 한 집안의 임금의 신하되는 등생에게 뒷날 슬절(殉節)할 것과, 슬절후사제(死休)를 잃지 않을 것을 회책하니, 천하에 지구히 어려운 일이다. 정신과 기백(氣魄)이 뛰어나지 않고, 그평소 충주진면(忠則盡命)과 효당약력(孝當竭力)의 두 사상이(燕魚之辨)(註20) 신중(慎重)에 정립(定立)되고 간진(肝臟)에 사무치지 않았더라면, 갑자기 변을 당하여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고,

강고(江阜) 유선생(柳先生)(註21) 심춘(審春)이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여, 날로 사자(四子)(註22)의 경전(經傳)을 송독(誦讀)하고, 성리요어(性理要語)를 초(抄)해서 공부하는 자로도 하고, 그 죽음에 다달아 몇자의 형서는 상완(詳緩)과상(詳緩)하고 격열(激烈)하니, 집안에서 죽은 자의 미칠바 아니다. 항상 정신과 기백과 식견(識見)을 갖춘 사람이 가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오봉선생의 형이었음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쿠(壺谷) 유선생(柳先生)(註23) 범후(範休)이 『이릴때부터 풍채(風采)와 재능과 도량(度量)을 그 등우들이 두려워하더니, 장성함에 오봉선생과 함께 대방가(大方家)에 공부하고 또 힘써 배워서, 칭찬을 받았으니, 그 효(孝)의 이론(義論)은 진실로 추강(秋剛)의 공(公)의 것보다 한 것이다. 죽음의 끊이지 않는 위험에 다달아 정신을 차리고 은화한 태도(態)는, 스스로 그리던 것일 것이요, 그러한 장거(壯舉)는 그 마음으로도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임형은 공전장려이요(戰陳), 혈삼(血衫)의(血衫)은 곧 화문(華文)이라. 죽어도 불후(不朽)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최암(拓庵) 김선생(金先生)(註24) 도화(道和)가 순묘비문(殉孝碑文)에서 『공(公)이 저의 칼날을 받아 반체(半休)가 떨어지고 유형이 여천(如川) 하였으니, 그 참혹하였음이 여파하였을까, 공이 정신을 차려 조용히 형사를 쓰니, 사의(辭意)가 정녕(丁寧)할뿐 아니라, 머릿고(句) 여덟자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순묘(殉孝)를 위하여(殉國)의 간폐(肝肺)에서 무치는 듯이 나타났고 곧(句) 일곱자는 제씨(季氏)의 순국(殉國)에 당하여 발바닥에 선성(宣誠) 두 글자를 써서, 그 유골을(註25) 그릇것을 예비 하였으니, 자기는 순묘(殉孝)를 자결(自決)하고 제씨에게는 순국(殉國)을 힘쓰게 하였으니, 난공자(樂共子)(註26) 이른바 민생(民生) 삼사(三事)(註27)의 한결같은 공 목숨을 바치는 데 있었다 하였으니 이를 말함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공(公)의 후손(後孫) 정세(鼎世) 씨 지문(識文)에 『나의 7대조응암공(鷹巖公) 부근(府君)의 물(沒)이 2백여년 전이라. 그 대남계(南溪) 이선생(李先生)(註28) 보(輔)와, 서담(西潭) 홍선생(洪先生)(註29) 위(璉)와, 정정(敬亭) 이선생(李先生)(註30) 민성(民成)과, 난계(懶齋) 신선생(申先生)(註31) 열도(悅道) 등의, 뇌사(誄詞)가(誄詞)가 현지(縣誌)의 역사(史)에서 문조(文調)에 나타나, 공의 행적(行跡)의 실상(實狀)이 기록 되었으나 형서(行狀) 전말은 빠져 없으니, 세상에 부근(府君)의 형서(血書)의 사실을 아는 자는 드물다.』라고 하였다

족조(族祖) 죽애공(竹厓公) 지귀(震龜)가, 비로소 유사를 기록(記述)하였고, 족조(族祖) 최병공(晦屏公)이, 승부(捨錄)를 편성(編成)하였고, 또 부근(府君)의 만간(滿腔)에(만)의(滿) 단형(丹血)에(단)의(丹)에(단) 자자(字字)히 정성을 다하였으니, 한쪽 귀삼은 재(灰)가 되어 없었고, 남은 것을 모았으니, 인공(仁公)께 알릴질 없나 화근(華根)의 보상(保實)을 받지 못

하지였다. 후손의 골수에 사목칠(卅)이 아니겠는가! 가형(家兄) 및, 족자(族叔) 유성(維星), 주형(族兄) 정려(鼎宅)씨, 족질(族姪) 사극(思國)과, 함께 절이 전하고자 수습(收拾)하여 서제(書題)와, 기문(記文)으로, 원편(原編)으로 하고, 유사(遺事)와, 뇌사(誄詞)와, 비문(碑文)과, 그 밖의 여러 글자로, 부록(附錄)하고 세계(世系)를 진단(卷端)에 붙이고 지명(識銘)을 책 끝에 붙였다.

공의 배위(配位)는 함창김씨(咸昌金氏), 습독(習讀) 註(註) 강(強)의 따님이다. 장남 명희(命羲)는 금부도사(義禁府都事) 註(註) 요, 다음은 명기(命藎)요, 도사의 아들 명간(孟堪)은 주부(主簿)요, 다음은 종감(仲監)이요, 다음은 계강(季堪)이다. 종친집 아들, 구형(鬍亨)은 도사(都事)다. 등과(登科)한 사람은, 현손(玄孫) 천걸(天杰)은, 생원(生員) 註(註) 이요, 천달이(天達) 생원이요, 五세손 한운(漢雲)은, 진사(進士)이다.

공의 도는 의성(義城) 행정구역 개편으로 근위로 편입됨 (판반산(坂反山) 부진원(負震原)이란)에 부인(夫人)과 동방이다. 응암(鷹巖)은 공 지금의 천곡(泉谷)이다. 원근의 사림(士林)이 슬퍼하고 우모(寓慕)하는 곳이다. 후손 정원(正遠), 학원(學遠), 응기(應基), 경기(璟基) 등이, 단(壇)을 모아 그 옛터를 보호하고, 입석(立石)하여 그 단(壇)을 밝히고, 사림이 해마다 호이 반들고, 종선(鍾善)과, 상호(相鎬)씨가, 정성을 다하여 지금까지 이어온다. 슬프다! 충효(忠孝) 자는 단고에 공(公)하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公)의 후손이 남쪽에 즐비하게 번창하여, 보본(報本)하는 정성을 첫째로 하니, 공의 심법(心法)의 한 배이 이어질이라. 옛적에 우리 서당(西潭) 선조(先祖) 후계관의 가, 선생과 함께 후암(鶴巖) 강학(講學)의 모임에서, 막역(莫逆)한 교분(交分)이 있었음은 세인이 널리 아는바다. 재관(在寬)이 이제 선생의 유사(遺事)와, 뇌시문(誄詩文)과, 실기(實紀)를 받드니 양가(兩家) 선조의 괴서(几席) 밑에서 비유는 것 같아, 감리 상호(相鎬)씨의 청(淸)을 어기지 못하고 양가의 천계(天契) 천계에 있었에 후생(後生)의 정성을 부치는 바이다. 병술(丙戌)을 春 二월 상순(上旬) 후학(後學) 당성(唐城) 홍재관(洪在寬)은 삼가 쓴다.

주해(注解) ① 행장(行狀) :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의 행적(行蹟)을 기록하는 글

- ②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고위 대의 문관(文官)의 품계(品階) 중 일품계(從一品階) 상(上)
- ③ 사헌부지평(司憲府知平) : 정(正) 사(司)인 사(司)의 품계(品階) 중 일품계(從一品階) 상(上)
- ④ 사헌부지평(司憲府知平) : 사(司)인 사(司)의 품계(品階) 중 일품계(從一品階) 상(上)
- ⑤ 사헌부지평(司憲府知平) : 사(司)인 사(司)의 품계(品階) 중 일품계(從一品階) 상(上)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文獻

濼(鵝)를 금하는 일을 관장함.

- ④ 정문(旌門) : 증신 효과 어머니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그들의 살던 곳에 정문(旌門)을 세움.
- ⑤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관(任官) : 정(正) 삼품(三品) 당상(堂上)인(正三品堂上)인.
- ⑥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임관(任官) : 정(正) 삼품(三品) 당상(堂上)인(正三品堂上)인.
- ⑦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관(任官) : 정(正) 삼품(三品) 당상(堂上)인(正三品堂上)인.
- ⑧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⑨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⑩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⑪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⑫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⑬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⑭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⑮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⑯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⑰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⑱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⑳ 승정원(承政院) : 원명(元命) 王命의 측근(側近)을 관장함.



- ㉑ 장고(江魯) 육선생(柳先生) : 이름은 심춘(審春) 일계(立階) 정선생(鄭先生) 종로(宗魯) 문인(文憲公) 육부조(柳厚祚)의 아버지
- ㉒ 사자(四子) ① 공자의 넷째 자 안회(顔回) 자공(子貢) 자로(子路) 자장(子張) ②老子 자자(莊子) 문자(文子) 열자(列子)
- ㉓ 호곡(浩谷) 육선생(柳先生) : 이름은 범휴(範休) 관은(管恩) 대부(大夫) 전행안(全行安) 通訓大夫前行安邊府使 본관은 전주(全州) 大山先生象靖의 門人 産源의 자
- ㉔ 척암(拓庵) 김선생(金先生) : 이름은 도화(道和) 본관은 의성(義城) 육(柳) 정계문인(定齋門人) 파리장서(長書)의 즉모자. 문장으로 유명.
- ㉕ 원습(原濕) : ① 낮고 습기 찬 땅, 시경(詩經) 于彼原濕 ② 늪은 땅과 낮은 땅 ③ 원(原) : 묘원(墓地)
- ㉖ 난공자(樂共子) : 인명
- ㉗ 삼사(三事) : 나라를 다스리 때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조항 ① 정덕(正德) 이용(利用) 옥성(厚生) 을 말하기도 하고 ② 삼공(三農) 을 말하기도 한다. 삼공 : 농경 하를 추수, 또는 평지 농 산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 ㉘ 남계(南溪) 이선생(李先生) : 이름은輔號 南溪 本貫은 延安 松鳩 軫의 弟 西厓 柳成龍의 門人
- ㉙ 서당(西潭) 홍선생(洪先生) : 이름은 위(璣) (一五五九—一六二四) 조선조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육서애(柳西厓) 문인(官)은 병조정랑(兵曹正郎) 사예(司藝) 예원(呂守)을 지냈다.
- ㉚ 정경(敬亭) 이선생(李先生) : 이름은 민성(民成) 자는 관보(寬甫) 본관은 영천(永川) (一五七〇—一六二六) 이조참의(更曹參議)을 지내고 정묘 호란(胡亂)에 정성파도의 병장(義兵將)을 지냈으며 시문 글씨에 능하였고 직언(直言)으로 유명. 의정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
- ㉛ 난계(懶齋) 신선생(申先生) : 이름은 역도(悅道) 자는 진보(晉甫) 요. 본관은 아주(鵝洲) (一五八九—一六四七) 장여현(張旅軒)의 문인 仁祖二年文科에及第 掌令 능주부사(綾州牧使)를 지냈다.
- ㉜ 음독(習讀) : 조선조 때의 훈련원(訓練院) 종구품(從九品) 무관.
- ㉝ 금부(金部) : 조선조 때의 義禁府都事 : 종구품(從九品) 참상관(參上官)의 금부 : 상의 전무를 맡는 일을 관장함.
- ㉞ 주부(主簿) : 종육품(從六品) 참상관(參上官)
- ㉟ 생원(生員) : 소과(小科) 경의(經義) 시험에 합격한 사람. 상사(上舍)
- ㊱ 진사(進士) : 소과(小科) 초장(初場)에 합격한 사람.

### 鷹巖公遺事

公姓申諱之孝字達夫以嘉靖辛酉三月十八日戊寅生容顏粹美英爽絕倫九歲丁母夫人憂哀毀終制天性方嚴正直自十餘歲已有成人器度豪奴悍僕皆畏戰無敢違今年纔成童與弟梧峯先生諱之悌受學于惟一齋金先生勵志力學晝夜勤苦金先生大奇之同門諸友憚公之剛毅莊重不敢狎昵年十八爲校任一時儕流莫不敬服鄉長者亦不以後生待之二十五鄉人推爲校長公端坐齋室容儀整肅諸生無敢誼諱過者皆趨末敢曳履步焉公自少文筆瞻饒累應鄉舉輒居菟選南中才子無不讓頭考左承旨公嘗曰扶我門戶者必此兒也壬辰五月倭寇搶攘梧峯先生時爲宣城在官公獨奉親在家避亂入下川後山隱于巖穴間有一二倭卒往來山下公射殪之賊疑有人而不能跟尋一日乳兒在巖穴啼號不止公懼倭聞而踵之禍及於親乃即抱兒別處林間倭遂隨至公風儀卓絕不忍遽害終別左肩而去流血淋漓公解兒襁褓瘡就息巖穴自分其不能起欲寄訣語于梧峯先生而無紙筆乃取葛爲筆濡其血書諸衫遺命送宣城其書大槩謂吾之遇害命也老親則自有他弟君惟盡忠死國可也干戈搶攘中有或得死所而死之者恐無以尋其遺骨則君足掌書宣城二字以爲的云云越數晝夜而歿是實五月二十三日也年甫三十二曷勝痛哉以公之才之行不得有爲於世而畢竟非命豈非天耶敬亭

李先生平生少許可其誄詞曰賢明福德理偏訛時運關天獨奈何可想公英資雅望之見推於士類也懶齋中公嘗撰聞韶誌述公美蹟頗商覈而不及血書一事意亂離中事人未及知者歟吾先祖梧峯先生嘗草公墓誌而未成余嘗見其遺草而今失之重爲可恨也已公嘗手抄文選一冊藏在本孫家梧峯先生追題卷尾曰吾兄自幼少有志於學比壯頗見成就四書及經傳皆手書日誦之其專致於事業有非朋徒所能及而區區踐履之實惟有舍弟知焉云爾則公之文雅志行亦可想見矣嗚呼公之歿今至百四十八年當時遺蹟傳在人口昭昭如昨日事而若終無紀叙則世代久遠之後葛由而徵也哉肆余不量無識惟公休軌之湮沒是懼粗述之如右百代之下庶有因此而得公之大槩者矣

歲丙辰五月十八日

從玄孫 生員 震龜 謹述

鷹巖公遺事(譯文)

공의, 성은 신씨(申氏)요, 휘(諱)는 지효(之孝)요, 자(字)는 달부(達夫)이다.  
 가정(嘉靖 명세종(明世宗) (註①) 신유(辛酉 1571년) 3월 18일 무인(戊寅)에 태어났다. 열네살이 아름답고 기품(氣品)이 빼어났다. 9세에 모친상(喪)을 당하여 몹시 슬퍼하며 예제(禮制)를 마쳤다. 천성(天性)이 방정(方正)하고 엄숙(嚴肅) 정직(正直)하였다. 14세에 노닐어 이미 성인(成人)의 재능과 도량이 있어서 호노한부(豪叔悍僕)라도, 감히 그 영순(令尊)을 어기지 못하였다.  
 나이 겨우 심중(成童)에 이르러, 계씨(季氏) 오봉선생(梧峯先生)의 문(門)에 (註②)와, 함께 유일(劉) 김선생(金) 언기(元) 공부하는 여러 동년들은 공(公)의 강직함과 글하지 않고 장엄(莊嚴) 정중(鄭重)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친압(親狎)하지 못하였다.

(惟一齋金先生彥璣) (註③)에게 수학함의 근본은 의지(意志)로 즉 약 힘써 공부하니, 김선생이 크게 기뻐하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 동년들은 공(公)의 강직함과 글하지 않고 장엄(莊嚴) 정중(鄭重)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친압(親狎)하지 못하였다.  
 나이 18세에 향교(鄕校)의 임원(任員)이 되니, 그 동년들이 모두 경복(敬服)하고, 향내(鄕內)의 어른들이 후생(後生)으로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25세에 향인이 추천하여 향교의 교장(校長)이 되어 공(公)이 제설(제설)이 없었던 의용(儀容)이 정숙(整肅)하여, 제생(諸生)이 감히 떠들지 못하고, 지나가는 자도 조용히 걸어들었다. (無敢成履而步) (註④)  
 공(公)은 어릴 때 부러, 문필(文筆)이 더욱더하여 여러 번 향시(鄕試)에 응(應)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니, 남평(南平)의 계자(啓子)들이 모두 양두(讓頭)하지 않는 사람의 없었다. 좌충지공(左丞直公)의 『문과』의 문(門)을 부지(扶持)함자는 반드시 이 아이 일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진(壬辰 1592년) 5월에 왜(倭寇)가 창양(倉梁)을 침략하니, 그 때 오봉선생(梧峯先生)이 선성(宣城)의 현감으로 있어서, 공(公)이 홀로 노모(老母)를 모시고 있다가 피난하여 전천(下川) 퇴산(退山) 사이의 측이 있으니 한두의 줄(樓竿)이 산하(山下)에 왕래하는 자라 공의 활을 쏘아 죽여 없애니, 격이 사람이 있으니 호적을 찾지 못하여 의심(疑心)하니, 어느날 유아가 암혈에 있으면서 울고 그치지 않으니, 공이 왜종(왜종)을 알면 화가 어머니에게 미칠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안고 다른 숲 사이에 숨으니 왜종이 드디어 따라 들어왔으나, 공의 품의(風儀)가 뛰어나, 차마 해(害)하지 못하니 마침내 왜종이 깨를 칼로 치고, 달아나니, 유혈(流血)이 임의(淋漓)하여 공의 아이를 섰포대를 끌어 상처(傷處)를 싸매고 암혈에 나갔으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함을 알고, 계씨(季氏) 오봉선생(梧峯先生)에게 절벌의 글을 부쳐 보내려하였으나 지필(紙筆)이 없으니 활을 씌어 붓으로 하고, 그의 피겨서 절삼의 유명(遺命)을 써서 선성(宣城)의 오봉선생에게 보내니 그 글의 대강은 『내가 해(害)를 당한 것은 평이라 할 것이다. 노모(老母)는 다른 동생이 있으니 큰(君)은 오직 충성(忠誠)을 다 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이 홀을 것이다.』

난리가 나 어수선 하니 혹(或) 즉을 뜻을 얻어 죽리라도, 그 유골(遺骨)을 찾지 못할까 염려되니, (註) ①은 발바닥에 선성(宣城) 두자를 써서 표(標)의 이 피게 하라』하였다. 몇달이 지난 뒤에 문(沒)하니 나의 (註) ②은 (註) ③과 (註) ④이 지 원통하지 않겠는가, 공의 재조(才操)와 행의(行義)로 세상에 유위(有爲)하게 쓰이지 못하고 비명(非命)에 마치고 어찌 천수(天數)가 아니겠는가.

정경이 선생 민성(敬亭 申先生 民成) (註) ⑤이 평상 리 높고 지내던라 그 뇌사(誄詞) (註) ⑥의 『(註) ⑦은 영명(英明)한 자질(資質) 그 이세(理勢)가 잘못되고 시운(時運)은 관친(關天) (註) ⑧하니 홀로 어찌 하라』하였으니 공의 영명(英明)한 자질(資質)과 아담한 인망을 사족(士類)가 추장(推崇)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난계 신선생 열도(懶齋 申先生 悅道) (註) ⑨가 문소지(聞韶誌)를 씀에 공의 미적(美蹟)을 기술(記述)하였으나 혈서(血書)의 사실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생각컨대 난리중이라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였음이 아닌가』라고 하였고, 그의 선조 오봉선생(梧峯先生)이, 일찌기 공의 묘지문(墓誌文)의 초(草)를 원상하지 못하였음을 보았더니, 그 유초(遺草)마저 잃어버렸으니 지들한(恨)이 뉘뉘이다.

공이 일찌기 문선(文選) 관책(官冊)을 초(抄)하여 본손가(本孫家)에 장재(藏在)하였더니, 오봉선생(梧峯先生)이, 그 책(冊)에 (註) ⑩를 보켜 『오형(吾兄)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이 있어, 장성(壯成)함에 자못 성취하여 사서(四書) 및 성경(經傳)을 모두 초(抄)해서 남도(南道) 송주(誦讀)하니, 그 오로지 사업을 이루었음은 동부들이 다룰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실천하는 실상은, 오직 이 동생이 알 뻔이다』라고 하였다.

술포(蘇圃) 공의 문(沒)이 이제 百四十八년이라, 당시 유적(遺蹟)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어 어찌 일과같이 밝으나, 마침내 기서(紀叙)가 없으면 세월이 흘러간 뒤에 어찌 증명할 수 있으랴! 우선 나의 불량무식(不量無識)으로 공의 미적(美蹟)이 인물(湮沒)할까 염려하여 간략하게 기술(記述)하니 백대(百代)의 후라도 이로 인(因)하여 공의 행적(行蹟)의 대장을 알기를 바라는 바이다.

병진(丙辰) 서기 年 五月 十八日  
중현손(從玄孫) 생원(生員) 진귀(震龜)는 삼가 글(述)한다.

### 鷹巖公墓碣銘

日不佞拜申公弼周氏公出先蹟錄授不佞曰吾先祖歿今百八十有一歲矣影響且味馬無所尋遂竊恐潛德懿烈終湮沒而無傳將有樹于瑩域願子之惠以文也不佞以非其人踧蹐不敢承後一日公又辱枉申前請益勤曰子於梧峯先生實外裔而吾先祖則梧峯兄也義敢辭乎不佞遂不獲終辭乃敢僭率而敘之曰公諱之孝字達夫鵝洲人會祖翰 贈判決事祖應奎恭陵叅奉 贈工曹叅判考夢得 贈左承旨妣 贈淑夫人月城朴氏士人敏樹之女公幼歧嶷異凡兒甫成童與弟梧峯從惟一齋金公彥璣學學曰就金公甚器重之年未弱冠遊校院儕流敬憚推服二十五爲校長端坐齋室諸生無敢誼譁失儀者治公車業有雋聲累捷鄉解輒居

註 ① 가정(嘉靖) : 명(明) 세종(世宗)의 연호(一五二一—一五六六)  
② 오봉(梧峯) 신선생(申先生) : 이름은 지계(之愷) 자(字)는 승보(承甫) (호) (號)를 오계(梧峯)라고도 하고 본관(本貫)은 아곡(鵝洲) (一五六一—一六二四) 정연(正演)에 조정량(禮曹正郎) 참원부사(昌原府使) 승지(承旨)를 지낸 의성(義城)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제향).  
③ 유일계(惟一齋) 김선생(金先生) : 이름은 언기(彦瓊) 본관은 광산(光山) 회계(退溪) 문인, 문장(文章)으로 유명.  
④ 두감에이보(無敢曳履而步) : 감히 신을 신고 걷지 못한, 전(轉)하여 조용히 걸어 간다는 뜻.  
⑤ 정경(敬亭) 이선생(李先生) : 이름은 민성(民成) 자는 관보(寬甫) 본관(本貫)은 영천(永川)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내고 정묘(丁卯) 호란(胡亂)에 경상(京)의 병장(義兵將)을 지냈으며 시문(詩文) 글씨에 능했고 직언(直言)으로 유명 의성(義城)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一五七〇—一六二六)  
⑥ 난계(懶齋) 신선생(申先生) : 이름은 열도(悅道) 자는 진보(晉甫) 본관은 아곡(鵝洲) (一五八九—一六四七) 장여현(張旅軒)의 문인 인조(仁祖二年)에 문과(文科) 관(官)은 장령(掌令) 능주목사(綾州牧使)를 지냄.

前列承旨公嘗曰此兒能復立申氏壬辰五月倭兵搶攘時梧峯知宣城縣在官公獨奉老在家避巖穴間倭踵至釵公左肩血流淋漓公臨絕嚙葛爲筆濡血書所著紬衫遺命寄梧峯槩謂吾之藏身不密不孝孰甚焉老親則有諸弟奉侍君既委身王室有職守當臨亂授命而矢石赴死之日恐無以尋屍幸於足掌書宣城二字俾識之云此其血書顛末而梧峯公會孫叔範氏閔家中書篋偶得是書既驚歎不已歸遺公五代孫海雲而顧歷年久血字糝糊破缺恨無以辨其全文也公生 明宗辛酉不淑于壬辰得年三十二公容儀秀俊性質方嚴平居好讀書四子經傳手書日誦又抄性理書好語以資省覽志氣激仰操履篤確方其避禍也以呼吸垂絕之命神閒色定不動毫髮而 君親一念炳然如丹至以血書縷縷勉弟至今數百載之下拊覽遺蹟凜然猶有生氣吁亦烈哉配咸昌金氏習讀疆之女墓于本縣億谷板反山負震原與公葬同穴有二子長命羲次命夔命羲有三子長孟堪仲堪季堪命夔有一子耆亨銘曰

揭揭我公天賦超詣惟孝于親亦既友弟聲譽藹蔚粵在妙歲既豐其畀奚運之豔函鋒所懼疇不隕穫公乃從容蹈刃不懼遙寄訣語血字煌煌嗟季許身當死封疆曷求委骸其視諸掌忠肝攸激天日炳朗至死不變矯矯其強我諗太史誰闡潛光公身不有公後必昌竊彼億谷寔公之藏銘以詔之庶扶綱常

上之四十六年庚寅十月 日 豐川後人 任必大 謹撰

鷹巖公墓碣銘(譯文)

어느날 不佞(註①)이 中公 弼周氏를 비운즉 公이 先頭錄을 不佞에게 보이면서 「나의 先祖가 沒하신지 百八十餘年인데 影響도 至은 明確치 못하여 찾을 바가 없으니 衷心에 祖先의 潛德 懿烈이 마침내 湮沒되어 後世에 傳함이 없어질까 저어린바 장자 瑩域에 墓碣을 세우고자 하니 자네의 글을 願한다」라고 하거늘 不佞이 그걸 사람이 못된다고 사양했더니 그 後어느날 公이 또 집에까지 찾아와서 前日에 청했던 것을 더욱 強要하거늘 이에 應하여 「자네는 梧峯先生의 外裔이고 나의 先祖는 곧 梧峯의 兄이니 義로 敢히 사양하겠으리오」이에 敢히 의참스럽게 叙하니 公의 諱는 之孝요 字는 達天요 本貫은 鵝洲이다. 會祖의 諱는 翰이시며 判決事에 증직되었고(註②)。 祖의 諱는 應奎이시며 恭陵祭 奉이였으며 工曹祭判에 증직되었으며 考의 諱는 夢得이시며 左承旨에 증직되었다. 她是 贈淑夫人으로 月城朴氏 士人 敏樹의 女이시다. 公은 어렸을 때 법상관 아이들과는 다르니 자라서 그 아우 梧峯과 惟一齋 金公彦瓊氏門 下에서 배를새 학문이 나날이 나아감에 金公이 甚히 그릇(器) 될됨을 重히 여기되라. 나이 아직 弱冠(註③)도 아니 되어서 校院에 擧았더니 功課들이 公정하고 득려위 하여 二十五세에 擧대를 받아 校長이 됨에 齋室에 단정하게 앉았으니 諸生이 敢히 시고롭게 行儀를 잃은 者가 없었고 官車를 다스리는데 俊聲이 여러번 있었으니 承旨公께서 「이 아이가 能히 다시 申氏 家門을 세우리라」하더니 壬辰(註④) 五月에 倭兵이 창졸간 들이닥칠 때에 梧峯은 宣城縣官에 있었고 公이 홀로 肅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계시다가 巖穴間에 피했더니 倭兵이 와서 公의 左肩을 찔러 流血이 暗 아서 公이 絶命에 臨迫되도 정신을 가다듬고 枕(蓆)을 씌어 붓을 만들어 皮를 적어 입었던 袴裳 소매에 써서 梧峯에 게 부치라고 하였다. 그 글은 「나의 몸 간직함이 극되치 못하여 不孝가 심하였다 肅은 신 어머니는 아우들이 君은 이미 王室에 몸을 바치었으니 亂에 臨하여 목숨을 다할 작오를 하는데 矢石中(註⑤)에서 죽던 날에 屍體를 못찾 을가 저어하니 요행으로 발바닥에 「宣城」二字를 써서 알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血書의 顛末이며 세월이 후 러서 梧峯公 會孫 叔範氏가 家中의 書篋에서 血書를 偶然히 發見하여 驚歎해 마지못하고 公의 五代孫 海雲에게 주 었더니 歷年이 오래 되어 血字가 糝糊하고 찢어지고 해서 그 全文을 辨별할 수 없는 恨이 된다.

公이 明宗辛酉(註⑥)에 生하여 壬辰에 禍를 당하니 時年이 三十二되라

公은 容儀가 俊秀하고 性質이 方嚴하며 평소에 讀書을 좋아하고 四子經傳(註⑦)을 書寫하여 日(日)로 의우고 또 性理書를 초(抄)하여 반정하는 資料로 하였고 志氣가 높고 操履가 篤실함에 그 화(禍)를 피하려 하다가 暮齒이 끊어지려 하는 즈음에 또 정신이 狂가롭고 열광빛이 변치않고 踰을도 음적이 아니하여 冥冥과 어버이에 一念이 불꽃처럼 吐을 라 血書로 아의에게 격려한 것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오히려 生氣가 있다.

아아 장렬하다. 配에 咸昌金氏 習讀強의 따님이시니 本縣 億谷 板反山 負震原에 公과 합장을 하였었고 二子를 득시 어 長子는 命羲요, 次子는 命堯이며, 羲의 三子는 孟堪 仲堪 季堪이었고, 堯의 一子는 嵩亨이었다.

銘曰

揭揭我公 天賦超詣 높고 드높은 우리 鷹巖公이시어 타고난 성질이 뛰어나다.

惟孝于親 亦既友弟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아우에게 우애하사.

聲譽藹蔚 粵在妙嚴 어리었을 적부러 名聲이 盛했도다.

既豐其界 奚運之盤 이미 그 배를어 聲이 隆부했거늘 어찌 運數에 맞지 아니했던고

凶鋒所罹 疇不隕獲 흉한 칼날앞에 누가 떨어져지지 않으리오

公乃從容 蹈刃不懼 公이 이에 从容하사 칼날 맞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도다.

遂寄訣語 血字煌煌 멸리 死別의 말을 부친에 血書가 빛났도다.

嗟季許身 當死封疆 아아 아우는 몸을 돌아보지 말고 죽음으로 官에 封하라.

曷求委骸 其視諸掌 어찌 시체를 찾으리오 그 발 바닥을 보라.

忠肝攸激 天日炳朗 충성된 마음이 격동한 곳에 하늘의 해(日)가 빛나고 밝았도다.

至死不變 矯矯其強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아니하여 굳게고 굳세도다.

我諗太史 誰閔潛光 내가 생각하건대 어느 歷史家가 이 글은 빛(光)을 들어내서 밝히리오.

公身不有 公後必昌 公은 몸은 비록 돌아가셨으나 公의 後孫은 반드시 창성하리라.

竊彼僂谷 寔公之藏 저 고요한 億谷에는 公의 幽宅이 있음이라

銘以詔之 庶扶綱常 銘으로써 告하오니 願컨대 綱常을 扶들게 하소서

上之四十六年庚寅(註⑧)十月 日 豐川後人 任必大 謹撰。

- 註 ① 不佞...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쓰는 말
- ② 贈判決事... 死後에 判決事 職을 나라이서 주는 것, 以下「贈」字는 다 위와 같음
- ③ 弱冠... 남자 스무살
- ④ 壬辰... 宣祖壬辰은 西紀一五九二年
- ⑤ 矢石... 화살과 돌이니 卽 옛날 전쟁에 사용된 무기
- ⑥ 明宗辛酉... 西紀一五六一年
- ⑦ 四子經傳... 四子는 孔子 孟子이니 論語 大學 中庸 孟子 四書를 말함
- ⑧ 上之四十六年庚寅... 英祖庚寅 西紀一七七〇年

鷹巖公殉孝遺墟祭壇碑銘 並序

嗚呼此鷹巖先生申公殉孝之墟也何謂殉孝蓋當執徐島寇之難公將母避匿於巖穴間猝遇賊即挺身受賊刃而全其母於危禍之地非至孝而能如是乎爲母而殉其身非殉於孝者歟不寧惟是方公之受刃也半體墜傷流血如川其慘毒何如而公神閒氣定處實從容既攬葛而醫之又截衫而裁之濡血作書寄與宣城宰宰即仲弟梧峯先生之悌也其書曰藏身不密爲賊所害又曰足掌書宣城二字首尾凡十五字厘可記認而一書辭意不啻丁寧首句八字言自己之不密而凜然殉孝之意可見也未旬七字言季氏之當殉於國而足書二字所以備原濕之求也處已則以殉孝自決勉弟則以殉忠相勉欒恭子所謂人生於三事之如一所在即致死者非是之謂歟若公者真可謂忠孝兩全而賢於趙苞輩遠矣公諱之孝字達夫其先鵝洲人也曾祖曰翰 贈判決事祖曰應奎參奉 贈參判考曰夢得 贈左承旨妣月城朴氏 贈參議敏樹之

女妣高敞吳氏叅奉士翼女公朴氏出也生於嘉靖辛酉歿於萬曆壬辰時年三十二葬于本縣板反山震兌之原公氣質英爽才性穎拔及成童與弟梧峯登惟一齋金先生彥璣之門學業日就金公每以遠到期之弱冠爲校長終日端坐以禮自持諸生敬服無敢怠慢失儀者旁治公車業屢魁於鄉承旨公喜曰此兒能復立吾門也平居好讀書取四子諸經手書口誦又抄性理格言以爲服膺之資梧峯嘗追書其尾曰吾兄平日用力大有條理此足以見公之爲學矣是以死生危迫之際雍容整暇自有不期然而然者雖其姿質之美異於人而學問之力又焉可誣也配咸昌金氏習讀疆之女有二男命羲義禁府都事命夔子孟堪主簿仲堪季堪夔子耆亨都事孟堪子睦盼護軍瞻仲堪子瞻武科季堪子晬耆亨子昞瞻以下不盡錄其登科者玄孫天杰生員天達生員五世孫漢雲進士嗚呼今距公之世三百有餘歲矣實蹟已梓矣遺墓已碣矣而獨鷹洞一麓蕪沒榛荒斑斑鮮血之痕風磨而雨洗烈烈揮寫之跡烟消而雲滅則千古志士之涕安得不賴賴爾乎是宜後嗣子孫之行過於是瞻仰之是者盡然而傷痛怵然而感泣圖所以髣髴寓慕之地也於是後孫正遠學遠膺基環基等築壇而護其墟立石而表其壇將舉歲一之享以致如之誠使族任相鎬囑余記其事余雖老洫不堪而旋伏念先大夫龜窩先生題跋之文載在實蹟則申君之請豈不以龍門之契歟何敢辭遂不揆而敘顛末以爲天下後世爲人臣子之勸焉銘曰

巖巖我公天賦挺特梧翁難兄惟一高足奎辦熊魚爰自象勺 國有寇難奉母巖隙凶鋒如電

我身奚惜鬻葛書衫字字腔血百里宣城一體相勗噫茲鷹洞惟巖不泐點點苔痕黝黝山色陟降如在風悲雨咽乃築之壇乃樹之石特書二字庸警衰叔凡有彝衷疇不涕雪

前行義禁府都事 聞詔 金道和 撰

告由文

代本孫作

仝人

恭惟我祖天賦英英一齋高弟梧老難兄生三義重見得分明適值寇難奉母奔迸凶鋒閃忽禍迫俄頃挺身捍衛半體墜零濡血作書遙寄宣城勉爾殉國痛我傷生字字腔血伯仲杲卿卓彼鷹峯千古不傾苔花寂歷血痕印青風磨雨浴社宇吞聲藐茲孱孫怵靡寧迺詢諸族爰謀妥靈築之壇壝覆之棟楹亭亭者石可詔千齡陟降在上一氣懷清風馬雲車髣髴來迎擇日趨將粗效菲誠山川出色草木含馨節屆霜露感慕京京清酌潔粢敢告冥冥謹告

常享祝文

仝人

衛母誠孝勉弟忠悃遺風肅然喚醒後人

殉考遺墟祭壇碑銘(譯文)

송포다! 이곳은 응암선생신공(鷹巖先生申公)께서 근호(殉考)하신 유리(遺墟)이다. 어떻게 근호(殉考)를 하였는가

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當)하여 공(公)은 어머니를 모시고 암혈간(巖穴間)에서 피란(避亂)을 하시다가 창고간에 적(賊)을 만나 몸으로 적(賊)의 칼날을 받아서 어머니를 위화(危禍)의境地(境地)에서 생명(生命)을 보전(保全)해 드렸으니 창으로 지극(至極)하신 효(孝)가 아니면 어찌 능(能)히 이와같이 하였으리요. 어머니를 위(爲)하여 그 몸을 죽였으니 효(孝)에 있어서 순(殉)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고? 그뿐만 아니라 공(公)이 적(賊)의 칼날을 받았을 적에 반체(半體)가 떨어지는 큰 상처를 입으셨고 되는 흉터 내(川)를 이룩하였으니 그 참혹(慘毒)이 어떨것는가? 그리하여도 공(公)은 정신(精神)을 잃지 않았고 기분을 진정하여 죽위가 조용하자 이미 섬고있던 힘으로 빛을 만들고 또 저삼을 쫓아 피를 적셔가며 물을 써서 선성정주(宣城城主)에게 보내니 정성정주(宣城城主)는 곧 글씨 오봉선생(仲弟 梧峯先生之弟)이시다. 그 형서(血書)에 장신불밀위적소해(藏身不密爲賊所害) 또 죽장사선성이자(足掌書宣城二字)라고만 하여 수미(首尾) 총(總) 심오자(十五字)만 겨우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 천문(天文)의 뜻은 자세히는 모르되 수(手)광자(首句八字) 즉(卽) 장신불밀위적소해(藏身不密爲賊所害)는 자기(自己)의 불밀(不密)을 말하여 능(能)凜然(凜然)히 순효(殉孝)의 뜻을 나타냈음을 옛 불구가 있다 하겠고 말(末句七字) 즉(卽) 「죽장사선성이자(足掌書宣城二字)」는 제씨(季氏)에게 순국(殉國)할것을 종용한 것이며 말바닥에 두자를 쓰라고 한것은 순국(殉國)에 다른 유물(遺物)을 찾기 위하여 갖추어 바치니 자기(自己)에 처(處)하여서는 순효(殉孝)로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아울러 금은 순(殉)함(殉)을 권하였으니 난공자(樂孔子)가 이른바 인생(人生)의 삼사중(三事中)에 여여일(如)한 소재(所在)는 즉(卽) 치사자(致死者)라 하였음은 사람이 있는바를 한정한다 하다가 옮겨 죽는 것이 인간(人間)이라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공(公)과 같은분은 참으로 충(忠)과 효(孝)를 다 갖춘 분이라 이를 수 있고 조포(趙抃)의 무리들과는 어지심의 차이가 멀다 하겠도다.

공(公)의 휘(諱)는 지효(之孝)요 자(字)는 달부(達夫)이시며 그 선조(先祖)는 아즉인(鵝洲人)이시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한(翰)이시며 판결사(判決事)에 증직(贈職)되었고 조(祖)의 휘(諱)는 응(應)이시며 참봉(參奉)이시고 참판(參判)에 증직(贈職)되었고 선고(先考)의 휘(諱)는 몽득(夢得)이시며 좌승지(左承旨)에 증직(贈職)되었다. 선비(先妣)는 월성박씨(月城朴氏) 증참의(贈參議) 민수(敏守)의 따님이요 선비(先妣)는 고창오씨(高敞吳氏) 참봉(參奉)사의(士翼)의 따님이니 공(公)은 박씨(朴氏)의 소생(所生)이었다. 가경신유(嘉靖辛酉) (서기 一五六一年)에 태어나시

여 만력임진(萬曆壬辰) 서기 一五九二年)에 돌아가시니 그때의 나이가 三十二세였다. 본현(本縣) 지금의 근위읍(軍威邑) 광현동(廣峴洞) 판반산진래원(板反山震兌原)에 장사(葬事)하다  
 공(公)은 기질(氣質)이 영성(英爽)하고 재성(才性)이 뛰어난다. 자라서 아우 오봉(梧峯)과 더불어 유일제인기(性理格言)를 선생(惟一齋金彦環先生)의 문하(門下)에서 학업(學業)을 탐음(探音)에 학업(學業)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함에 김공(金公)은 매양 원대(遠大)한 기대(期待)를 공(公)에게 가지게 되었다.  
 공(公)이 약관(弱冠)에 교장(校長)이 되어 종일(終日) 단정(端正)히 앉아 예절(禮節)로서 몸가짐을 하니 제생(諸生)들이 경복(敬服)하여 감(敢)히 배반(忿慢)하게 예의(禮儀)를 잃은 자(者)가 없었고 향시(鄕試)에 응(應)하면 반드시 장원(壯元)을 하니 증지공(承旨公)이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능(能)히 우리의 가문(家門)을 복흥(復興)시키리라 하겠도다.

평소(平素)에 독서(讀書)를 좋아하여 사자제경(四子諸經) (註①)을 베껴쓰고 암송하고 또 성리격언(性理格言)을 초(抄)하여서 실천(實踐)하는 바항으로 삼으니 오봉(梧峯)이 일찌기 그 말미(末尾)에 죽서(述書)하여 이르기를 그의 형님은 평일(平日)에도 공부(工夫)에 힘쓰기를 크게 조리(條理)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족(足)히 공(公)의 학문(學問)의 함을 가(可)히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겠도다. 이렇므로 사생위박(死生危迫)함에 당하여도 태연(泰然)하고 여유( 여유)가 있어 보임은 스스로 그렇게 하자고 아니하여도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하였으니 그 자질(資質)의 미(美)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학문(學問)의 역량(力量)이 우월함을 또 어찌 거릿이라 하리오 배(配)는 함창김씨(咸昌金氏) 習讀(習讀)의 따님으로써 이남(一男)을 두었으니 장남(長男)은 명희(命羲)로 의금부(義禁府)의 참봉(參奉)이었고 차남(次男)은 명기(命基)이며 명희(命羲)의 자(子)는 명강(孟堪)은 즉부(主簿)이고 다음은 중강(仲堪) 계강(季堪)이며 명기(命基)의 자(子)는 구형(耆亨)은 도사(都事)이며 명강(孟堪)의 자(子)는 목(睦) 다음은 민(昐)으로서 호(諱)이며 다음은 천(瞻)이며 중강(仲堪)의 자(子)는 권(暉)은 무과(武科) 계강(季堪)의 자(子)는 수(晔)이며 구형(耆亨)의 자(子)는 면(昞), 진(瞻), 증(澄) 이하(以下)는 다 기록하지 않고 등과(登科)한 자(者)에 현손(玄孫) 천걸(天杰) 생원(生員), 천달(天達) 생원(生員), 오세손(五世孫) 한운(漢雲) 진사(進士)이다.  
 슬프다! 공(公)이 돌아가신지가 거금 삼백여년(距今三百餘年)이라 실적(實蹟)은 이미 책으로 출판되었고 묘상(墓碣)

도 세워졌으나 오직 응동(應洞)의 산록(山麓)만이 황폐하며 당시의 아롱진 선혈(鮮血)의 흔적은 바람에 강리고 비에 씻겨 저열열(烈烈)한 휘사(揮毫)의 자취가 연기살이 살아지고 그름처럼 멸(滅)해 갔음인즉 천고(千古)의 뜻있는 선비들의 눈시울을 어찌 적시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옥손들이 당연히 진작 행하여야 할 것이라 이에 이르러 바라보며 이를 마음 쓰리리게 슬퍼하여 울부짖을 바 이른다. 이에 옥손(孫後) 정원(正遠) 학원(學遠) 응기(膺基) 경기(璟基) 등(等)은 단(壇)을 쌓고 빈 리를 드로하고 돌(石)을 세워 그 단(壇)을 표(表)하고 일년(一年)에 한번씩 제향(祭享)을 베풀어서 제사를 대와 같이 지성(至誠)을 다 하고 자랄게 족정(族姓) 상호(相繼)를 시켜 나에게 그 사적(事蹟)의 기록을 축락(囑託)하기를 내 비록 늙어서 장담키능 어려우나 선대부(先大夫龜寓先生)께서 쓰신 발문(跋文)(註②)이 실적(實蹟)에 실려 있으니 신군(申君)의 칭讚(稱讚)함이 어찌 응문(龍門)의 제(坂)가 아니겠는고 감(敢)히 사양치 못하고 드디어 의람되게 그 전말(顛末)을 써서 이를 천하(天下) 후세(後世)에 남의 신하(臣下) 되고 자식(子息) 된 자(者)들에게 권면(勸勉)하노라.

銘曰

巖巖我公 天賦挺特 九巖山같이 높은 우리 공이시여 天賦가 빼어났도다.  
 梧峯難兄 惟一高足 梧峯의 어진 형님이요 惟一齋先生의 秀弟子로다.  
 蚤辦熊魚 爰自象勺 일찌기 熊魚(註③)를 판단하여 이에 스스로 占兆하였도다.  
 國有冠難 奉母嚴際 나라에 冠難이 있어 어머니를 바위틈에 모셨도다.  
 凶鋒如電 我身奚惜 흉한 칼날이 번개같이 어머니를 바위틈에 모셨도다.  
 嘯葛書衫 字字腔血 휘슬 씌어 저상에 글을 쓰니 字字이 피가 맺히었도다.  
 百里宣城 一體相勗 백리길 宣城을 兄弟가 한몸되어 서로 도왔도다.  
 噫茲厲洞 惟巖不泐 슬프다 이 厲洞에 오직 바위가 없어지지 않으리다.  
 點點苔痕 勁勁山色 점점이 이끼 흔적이오 點點은 山色이로다.  
 陟降如在 風悲雨咽 오르고 내릴제 제시는 것 같아 바람도 슬퍼하고 비도 그 슬퍼하도다.  
 乃築之壇 乃樹之石 이에 단을 쌓고 이에 비석을 세웠도다.

特書二字 庸警衰叔 特書二字 忠孝는 쇠해가는 이시대를 항상 깨우쳐 주도다.  
 凡有彝衷 疇不涕雷 무릇 본심이 있는 사람 그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오.

前行(註④) 義禁府都事 聞韶 金道和 撰

고유문(告由文) 본손(本孫)을 대신하여 지음 중인(中人)

공손(公孫)이라 생각하신데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천부(天賦)가 영영(英英)하시어 일제(一齋) 선생의 수제자(秀弟子)이시고 오분(梧峯) 할아버님의 어진 형님이시다. 어려서부터 의리(義理)의 중(重)함을 분명(分明)히 견득(見得)하시 마침내 그 의(難)를 당하여 어머니님을 모시고 달아날게 흥한 칼날이 번듯이 어 화(禍)가 정각의 미침에 몹으로 호위하다가 반제(半體)가 칼날에 의하여 떨어져진지라 혈서(血書)를 하여 딸과 신심(宣誠)의 부칠 때의 「너는 함께서 죽노(殉國)하고 나의 죽음은 원통하다」라는 글자가 자자(字字)이 피에 맺혔으니 안고정(顏景卿)의 일과 바꿈가도다. 저 늙은 응봉(膺峯)은 천고(千古) 도록 기록을 지 않으리라 청대에 핀 꽃은 피흔저의 표적(標識)으로 되었으니 정정(亭亭) 허후(許後) 비석이 천년(千年)을 새글되을이오니 이 잔악한 손자가 축척(愾惕)을 드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양(憂) 해 편치 못하여 여러 치족(髣髴)에게 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기를 도모할세 단(壇)을 쌓고 돌(石)을 세워 표적(標識)으로 되었으니 정정(亭亭) 허후(許後) 비석이 천년(千年)을 이올게라 오르고 내리는 천상(天上)에 계시니 일기(一氣)가 맑게 개이면 풍마운거(風馬雲車)로 방불(髣髴)히 내려오실지라 렉일하여 조호(趙好) 비성(粗効菲誠)을 다하면 산천(山川)도 빛이 나고 초목(草木)도 향기를 먹음을지라 상로(霜露)가 이미 내린 계절에 경성(京京)(註⑥) 허삼모(感慈)하여 청작(淸酌) 결자(潔菜)로 명면(冥奠) 허삼고(敢告) 하나이다

常享祝文(譯文)

衛母誠孝 어머니를 호위함에는 진실로 효도를 다 하였으며  
 勉弟忠悃 아우를 勉勵함에는 충성을 다했도다  
 道風肅然 담진공(潭津公)이 극연하여



喚醒後人 愚인을 불러 일깨우드다.

- 註 ① 四子諸經…孔子 曾子 子思 孟子的 經書
- ② 跋文…책과 文章의 末尾에 기록한 글
- ③ 熊魚…熊掌과 魚肉이다. 美味인데 한꺼번에 들을 수 없다. 取하지 못함. 경우에 그중 하나만 取한다. 生과 死를 取한다. 死가 義인 경우에는 生을 버리고 死를 取함을 熊魚의 判이라 한다.
- ④ 行…官職보다 官階가 높은 사람의 벼슬이름 위에 붙여 일컫는 말.
- ⑤ 고경(果卿)…顔果卿이 安祿山을 격퇴하다가 舌(舌)를 끊겨도 구릿음을 말지 않았다. 故事가 있음
- ⑥ 京京…근심이 계속하는 모양. 憂心京京이라.

### 都事公墓碣

公諱命羲字宅囑鵝洲人高麗按廉使諱祐十世孫曾祖諱應奎 贈參判祖夢得 贈左承旨考諱之孝壬亂血書勉弟死 國有鷹巖事蹟妣咸昌金氏習讀疆女公萬曆甲申生 仁祖戊辰 除都事乙亥終葬承旨公墓前甲坐原配玉山張士人敏業女歿壬午墓雙墳有三子孟堪主簿仲堪季堪二女李丕金汝孝孫暎武科盼護軍曾孫天杰天達并生員玄孫漢雲進士内外諸孫多不盡錄

#### 都事公墓碣(譯文)

公의 諱는 命羲요 字는 宅囑요 鵝洲人이니 高麗按廉使 諱祐의 十世孫이며 曾祖의 諱는 應奎 贈參判이오 祖의 諱는 夢得 贈左承旨요 考의 諱는 之孝 壬亂血書(註①)를 하였고 아욱에게도 殉國하고 장려한 것이 鷹巖事蹟에 있음. 她是 咸昌金氏習讀疆의 女 萬曆甲申(註②)에 公을 生하시다. 仁祖戊辰(註③)에 宣敎即義禁府都事에 除授되었었고 乙亥(註④)에

別세하시니 承旨公墓前甲坐原에 葬하고 配는 玉山張士人 敏業의 女이시며 壬午(註⑤)에 歿하시니 墓는 雙墳하다. 三男二女를 育였음에 長은 孟堪이며 主簿요 次는 仲堪이요 次는 季堪이다. 塚에 李丕, 金汝孝, 孫暎은 武科盼은 護軍, 曾孫 天杰, 天達并生員, 玄孫 漢雲 進士, 内外 諸孫은 다 기록하지 않음.

註 ① 壬亂血書…公이 壬辰 亂中에 臨絶手書.

公의 諱는 之孝이시니 梧峯은 宣城의 城主로 在官하였다. 公이 母夫人 吳氏를 모시고 鷹洞岩穴에 居였더니 왜적이 찾아 와서 公의 左肩을 칼로 쳐서 피 바다에 致하였다. 公이 絶命에 臨하여도 정신이 不亂하고 從容하기가 平常時와 같았다. 屍를 洗어 피를 씻어서 屍상을 벗어 손수 棺을 해서 宣城아욱에게 奉치고 塋명 하였다. 그 血書는 그 後에 不幸하게 五灰燼되어 全文이 없어지고 血書首尾拾錄에 겨우 錄다섯 字만 남았다. 『藏身不密爲賊所害首二句八字足掌書宣城二字尾一句七字』

- ② 萬曆甲申…西紀一五八五年
- ③ 仁祖戊辰…〃一六二八年
- ④ 仁祖乙亥…〃一六三五年
- ⑤ 仁祖壬午…〃一六四二年

### 鳳舞軒申公墓碣銘

聞韶今義城之舊號也韶舜樂山之九峯列其前而重重焉若聞韶之鳳來儀於九成也郡以聞韶山以鳳爲名而西馳略三十里許有面名鳳陽而臺曰鳳舞者間一溪而在其陽自古智士之以物形名其山川必有故也其爲地也不露不僻泉冽而林清正宜有志者所以養閑棲息之所也有一處士搆數椽於臺一邊閒寂處多植梧竹於庭院扁其楣曰鳳舞軒蓋其意必將有鳳雛之來舞也耕於斯讀於斯以終一生而馬鬣之封亦在於局内三峰山下壬坐之原今花田洞凍

谷池內也至于今過其下者指點而祖謂曰是古處士鳳舞軒中公體魄之藏也與之稱頌籍籍云日東夷君與其宗侄永焄持遺事一通而來余曰吾五代祖鳳舞軒府君雖無官爵之顯承先裕後居家百行士友宗族之所共推許者人亡世遠架箱手澤又盡化兵燹爲其子孫者寓慕無地縱云口碑曷若堅碣墓前以爲永世之羹牆願叔惠以銘也余聽焉以思非不知文非其人而來余者以余爲族裔也義不敢終辭乃敢僭率以叙之曰公姓申諱思遠字允之號鳳舞軒鵝洲世也源出於高麗金紫光祿大夫鵝洲君諱益休麗末奉翊大夫版圖判書諱允濡諡貞肅生司憲府掌令全羅道按廉使諱祐號退齋杜屋罔僕侍墓泣血淚化雙竹以忠孝旌其閭享涑院生諱光貴連五代官行職繼三代兼贈行而有曰諱之孝號鷹巖左承旨諱夢得之子也亦以忠孝士林壇享泉谷生諱命羲宣教郎義禁府都事生諱孟堪主簿生諱瞻生諱天達生員於公高祖也會祖諱得雲祖諱維錫考諱鼎首妣月城李氏嘉善大夫慶洛女公生以正宗乙卯卒以憲宗癸卯七月一日享年纔四十九於乎惜哉夫士學修齊治平之道而不擇時君之可與有爲出脚於名利之場不辱於官海之風波者幾希矣然以公之才之能假之以壽則安知聖主安駟之聘於鳳舞軒哉此豈非朱子所謂是皆天命之所爲非人智力之能及者也耶配丹陽禹氏益續女生丁巳卒辛卯四月十五日與公墓同原壬坐無育繼配永川李氏通德郎貞復女生癸酉卒乙丑三月十二日前配西同坐生一男二女男益命女密陽朴永煥真城李斗綱益命生五男鴻基性基載基英基環基綱男明坤周坤驥坤宜坤寅坤鑽坤鴻基男光鎬命鎬性基男仁鎬載基男

京鎬進鎬敬鎬英基男泰鎬錫鳳璟基男聖鎬鍾宇鍾休光鎬男宰洙成洙出鏞洛命鎬繼男成洙宰洙男東徹東稷東澍東璣鏞洛男東化東洵東睦東徹男永焄世焄任焄成洙男東震東爽東德仁鎬男能洙福洙能洙男東寬福洙男東寬出東璫東元京鎬男容洙進鎬男璠洙敬鎬男璠洙贊洙相洙哲洙泰鎬繼男晋洙出錫鳳男晋洙出祚洙鉉洙聖鎬男宗洙尚洙出鍾宇男尚洙鍾休男彰洛內外諸孫繁不盡錄銘曰  
 二水三山鍾精聚氣降公之日天若有意壽不免天才不售世天於我公前後何異先號後笑易有其理一子五孫餘慶在是梧竹有陰鳳雛無數我銘于珉以徵萬歲

癸丑至月

族後孫 在洙 謹撰

晚圃申公墓碣銘

星山 李基允

赤羅郡船放之山向酉而崇三尺者故縣監中公諱正遠字舜瑞之墓也公之孫羲源宅洙二氏來余曰吾等將豎石于吾祖之阡以其銘爲吾子憂辭不獲按其狀公以 憲廟辛丑三月二十八日生自幼氣貌異凡及長業令馬遊京洛與當世大人交 高宗壬申四月登武科內而歷守門將訓練主簿判官外而任鎮海縣監忠清道水虞候嶺營左別將次擬統營統制使公以病謝歸杜門養靜自號曰晚圃蓋以田園爲晚計也享年七十四而卒甲寅五月初六日臨終曰吾早

事棘韋而國家久無兵革未售素志又舉勤儉二字遺戒子孫曰無使先業有墜也於此可見公自期之大述先之善而及葬鄉里士友之輓誄而送之者多至數百此又可見時望之有推也其先鵝洲人以高麗鵝洲君諱益休為遠祖屢傳而諱祐全羅道按廉使至孝廬墓雙竹生血淚處享涑水院入 本朝歷軍器寺正諱光貴禦侮將軍諱始生龍驤衛左副將軍諱翰 贈工曹叅判諱應奎 贈左承旨諱夢得有諱之孝號鷹巖享泉谷社於公十世玄祖曰維鐸曾祖曰鼎萬祖曰思範父曰熙述通政妣淑夫人安東金氏淑夫人星州都氏命行女公都氏出也配淑夫人商山朴氏父彥祐生二男三女男鍾善出鍾聖女行朴大植李章國權普淵進士鍾善男即羲源鍾聖嗣男即宅洙朴男晚頃晚篋李男活泰連權男楠壽榿壽宅洙男東鎮東柱銘曰文武之材經濟之志不遇盤錯奚試利器齋志以歿公曰有咨我且悲公作銘昭之

灘隱公墓誌銘

不肖孫 在洙

府君姓申氏諱樂遠字益三灘隱其號也自鼻祖壯節公諱崇謙十二傳至諱益休金紫光祿大夫以軍功封鵝洲君子孫仍為貫是鵝洲氏之一世祖也至諱祐號退齋生諱光富光貴邑龜分派自此始焉光貴仕 本朝知鳳州事軍器寺正至諱夢得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生諱之孝號鷹巖設壇泉谷以享士林之薦生諱命夔生諱考亨宣教郎義禁府都事

至諱弼周與剛窩任先生相尚道義請撰鷹巖先祖墓碣文子諱維鎮書其文生諱鼎勳於府君會祖也祖諱祖休考諱熙舜妣德山黃氏鍾大女也 哲宗甲寅生府君子新禮第府君天資超凡七歲丁外艱不離喪次不脫經帶朝夕奠酬接禮一如老宿又後喪入棺前七日不粒食哭踊累至滅性從伯氏膺基公歎曰篤哉乃如之人三年居廬一遵古人所戒每遇先忌必致如在之誠雖鄰家祭餽於深夜必整冠齋肅而嘗之極寒極暑未嘗休息於茶酒之肆一有荒歲脈親數三家絕火府君賣田一區以錢與穀計口出給其有老病者特加饌代竟不至流離教吾大人嚴立課程若有過失輒廢食家人惶懼密請府君所敬畏使之楚撻僕僕然後方略降辭色其嚴如此大人尋常語此不覺悚身不肖之親聞者也教不肖才六七歲擁衾懷臥約曰今日所讀字以指畫書于汝腹汝能知則真吾孫不知則驅出衾外竟夕不八十數歲畫學于族叔字士聖氏夜讀於府君之側府君曰汝知讀法乎正冠危坐先讀一遍汝亦如之至人定鍾然後府君就寢繼讀前受一回而暇寐嚴慈兼至晚年以蛇浦天水事先君居先盡傾家產人或問其猝窹府君泰然曰侮辱在先墓而為後孫者不雪豈能安乎府君素有遜隱之趣嘗曰我無官守何憂於廟堂之事家事已聽於子亦無憂於米鹽薪水之幹吾與鷗鷺曾有約於為親漁樵之日盍往之持一竿竹道遙乎錦水之灘吟五言一絕曰三公不換物惟有此江山灘響聲塵世誰知萬古閒有灘吟遺稿而為動亂所變 噫噫自得以之終焉歲戊午十月十四日也享年六十五時癘歷大熾不能禮襄權厝後丙寅移葬于古億谷板反山弘德嶝負震原此吾先子夢點之地也配咸陽朴氏道基女也生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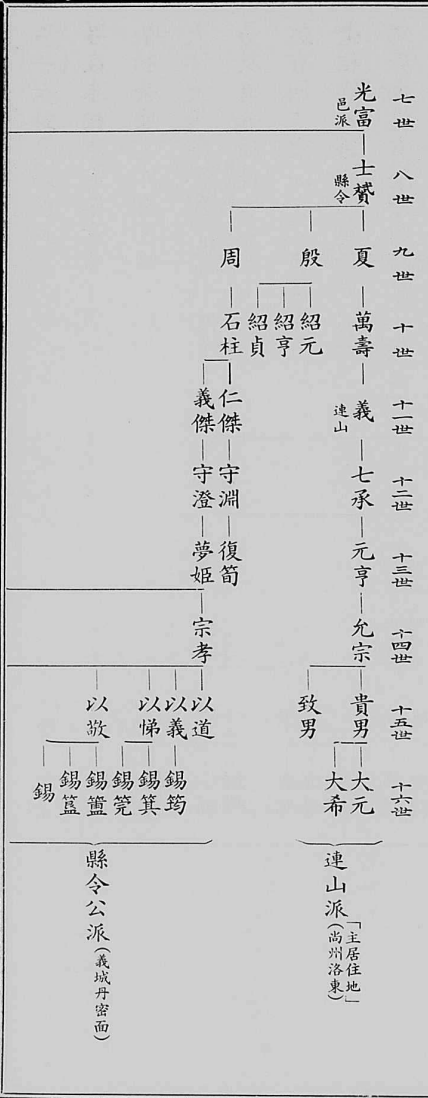
男一女鍾夏鍾殷鍾周月城朴顯日其女婿而无男有三女曰金曰司空曰殷孟祚嗣子也鍾夏男在洙相洙宅洙景洙聖洙鍾殷男基洙鍾周男廣洙元洙在洙男榮俊榮晚榮國相洙男榮璧榮胎榮煥宅洙有五男而出鍾聖后景洙男榮琦榮瑠榮石榮民聖洙男榮文榮道榮俊男大勳大休大燁餘不錄於乎府君早孤一無高明薰陶之澤而仰模先賢垂裕後昆類多後屬之所未易及者如使能言君子史其顛末而讀之爲人子者油然而興孝之心林下空老未展其抱者憾然有同志之淚矣不肖爲府君之孫讀書修身未副吾府君期待之萬一罪負幽明乃敢粗述父老相傳之語記而爲行略銘而爲墓誌銘曰於乎丕顯王考之德七歲能孝天賦之篤天藏地秘錫厥幽宅有蔭子姓振振不億終不可諠堪語片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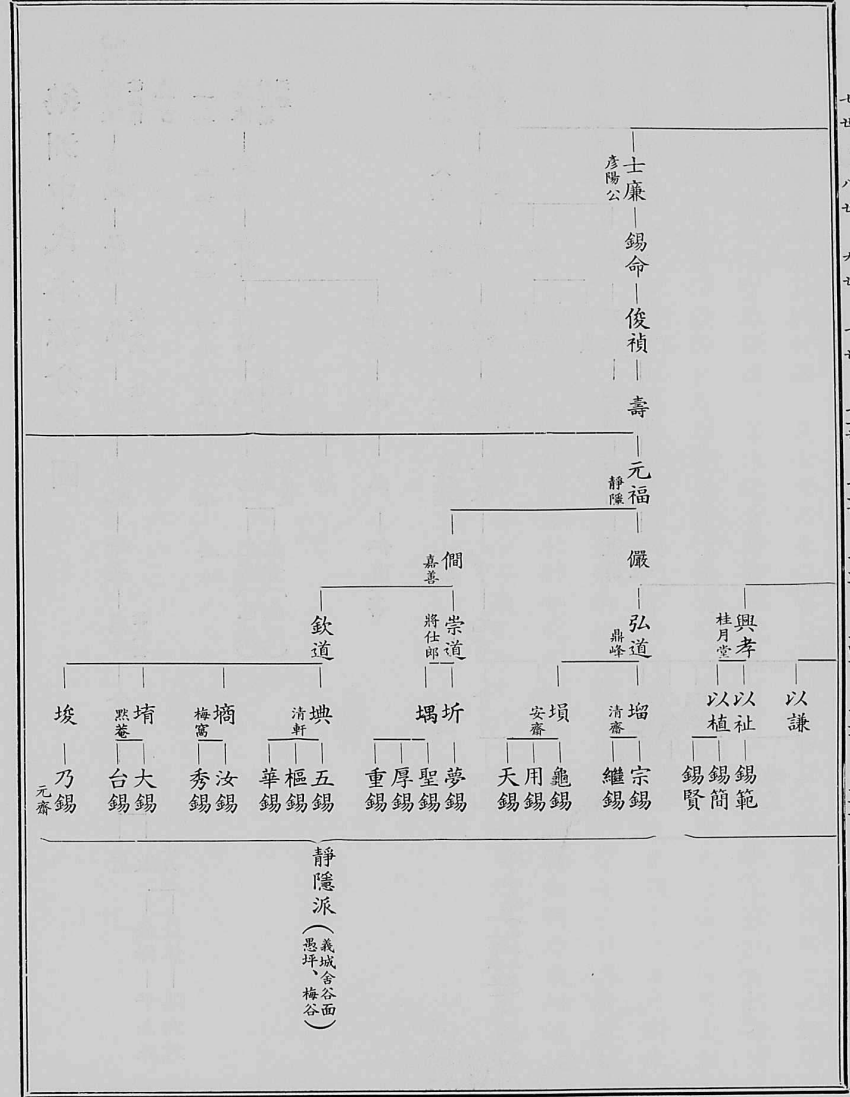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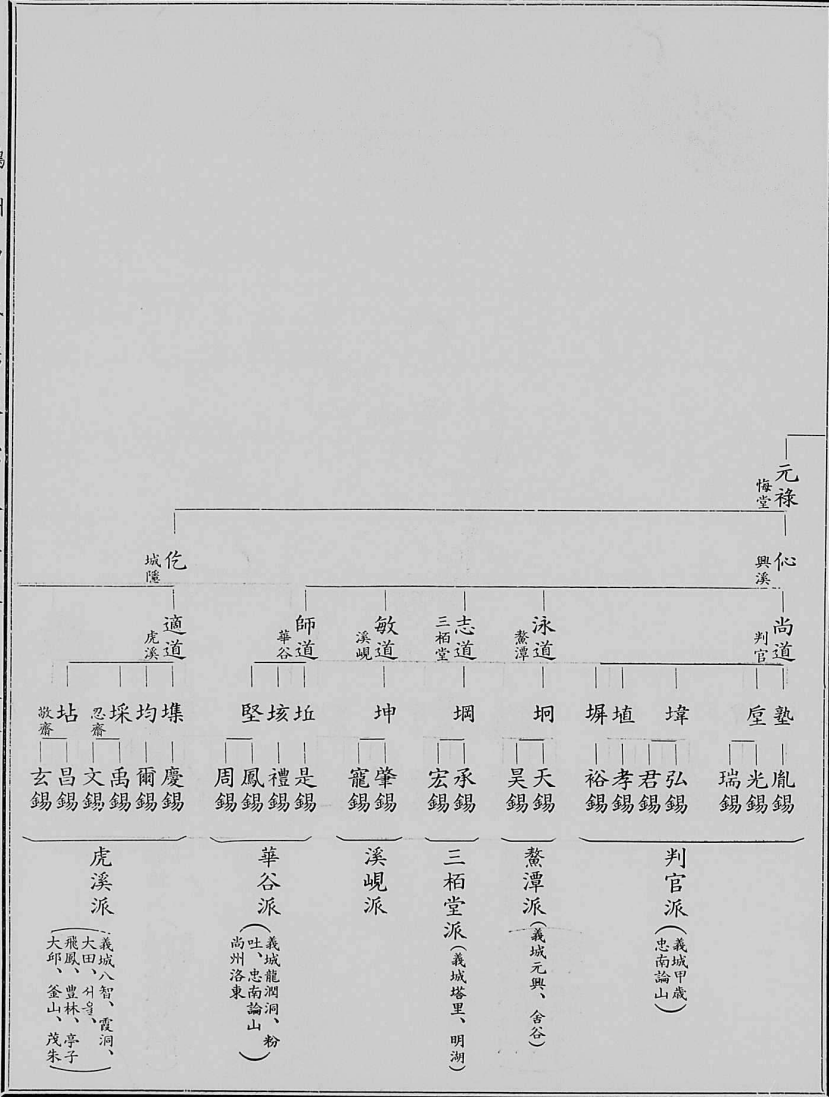
### 鵝洲申氏本源分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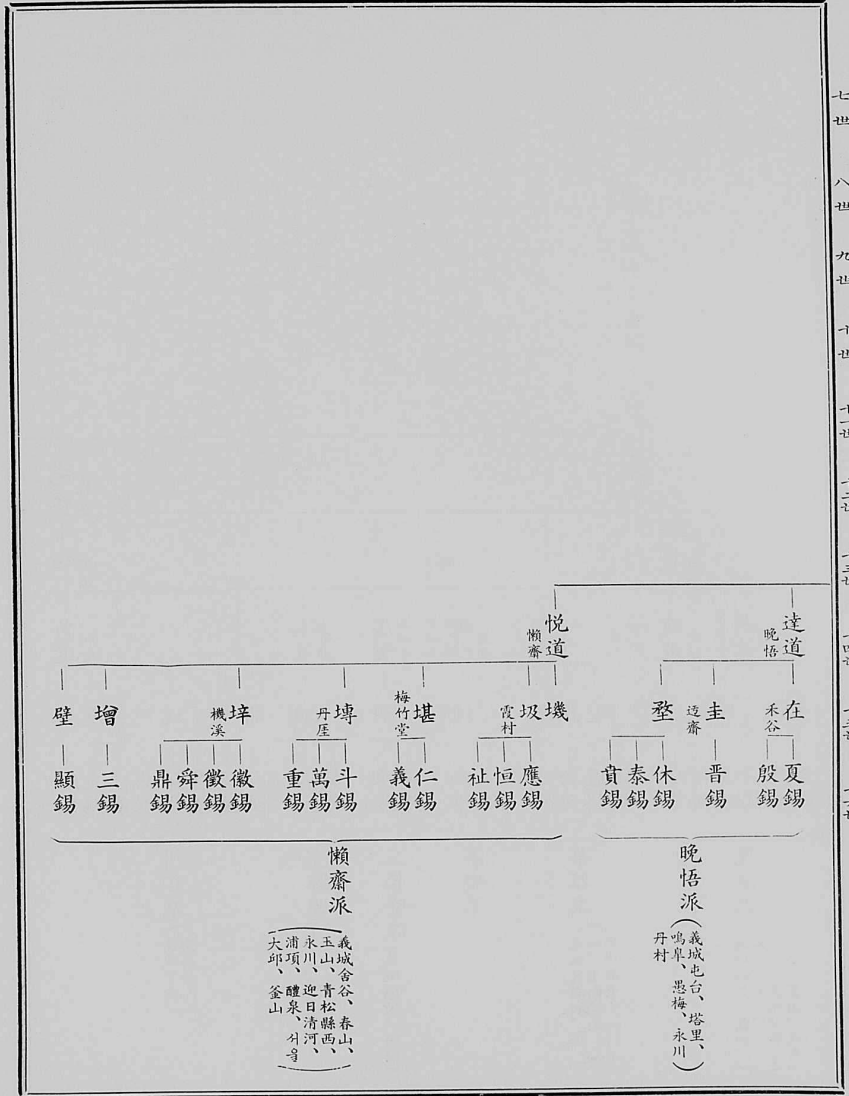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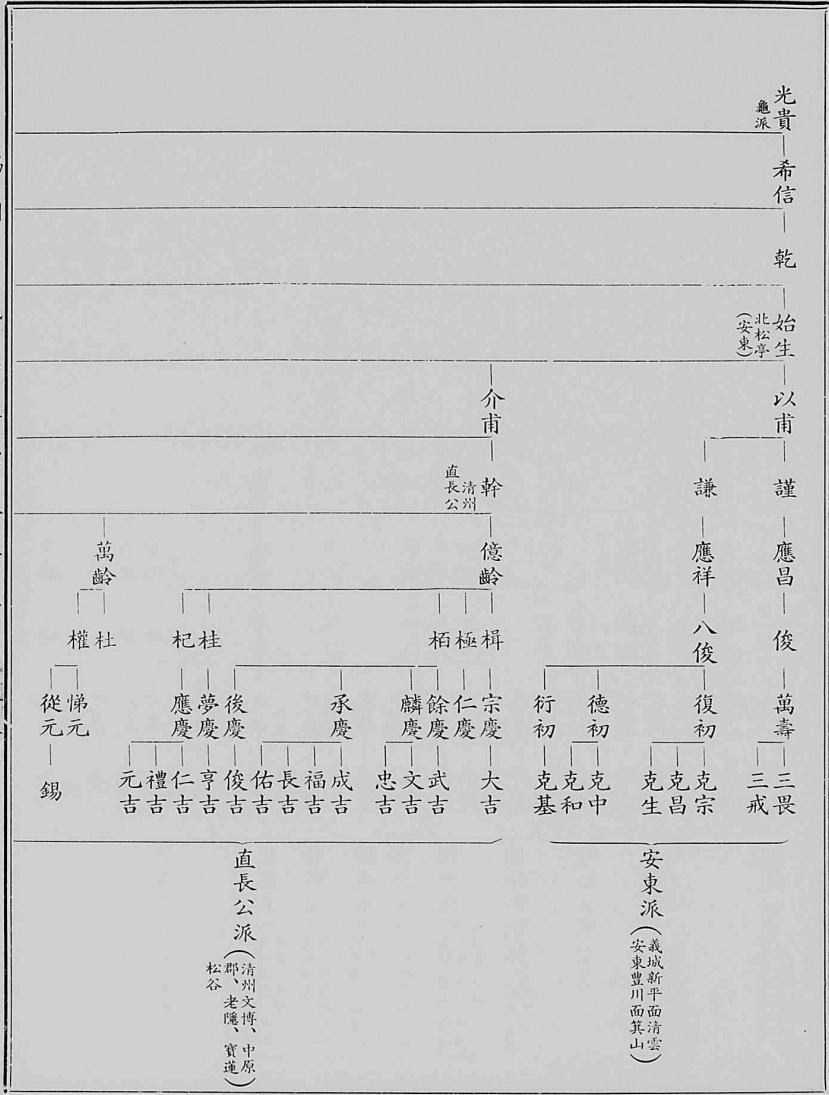
始祖崇謙諡社節 甫藏 弘尚 晟 勁 愈毗 命夫 應時 令材 楠  
 能吉諡社節 益休數封鵝洲君 英美 晉升 得昌 允濡 祐 光富(邑派) 光貴(龜派)  
 得安 守 弘 仁甫文科  
 淑水月軒 益保 平山派  
 益休 鵝洲君

七世 光富(邑派)  
 八世 士贊縣令  
 九世 夏 萬壽 義連山 七承 元亨 允宗  
 十世 殷 紹亨 紹元  
 十一世 仁傑 守淵 復箭 宗孝  
 十二世 石柱 義傑 守澄 夢姬  
 十三世 致男 貴男 大元 大希  
 十四世 以道 以義 以悌 以敬  
 十五世 錫筠 錫箕 錫筧 錫篋 錫籃 錫  
 十六世 連山派(主居住地 高州洛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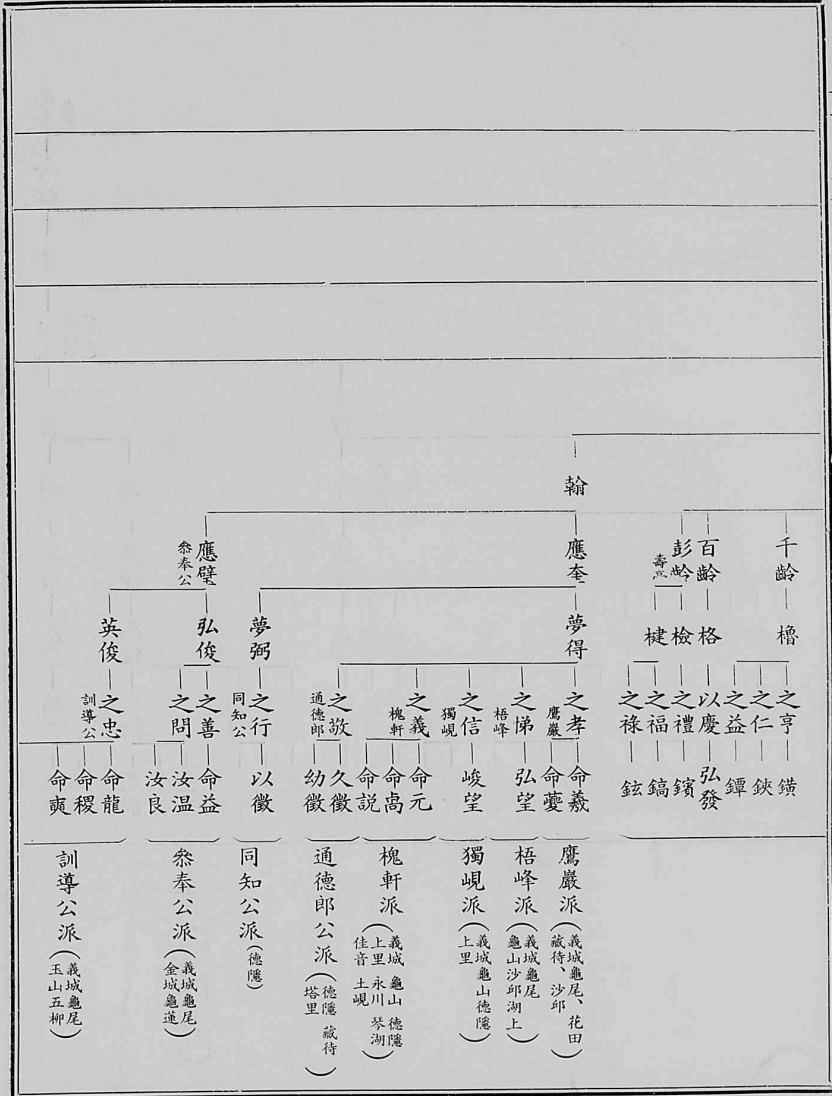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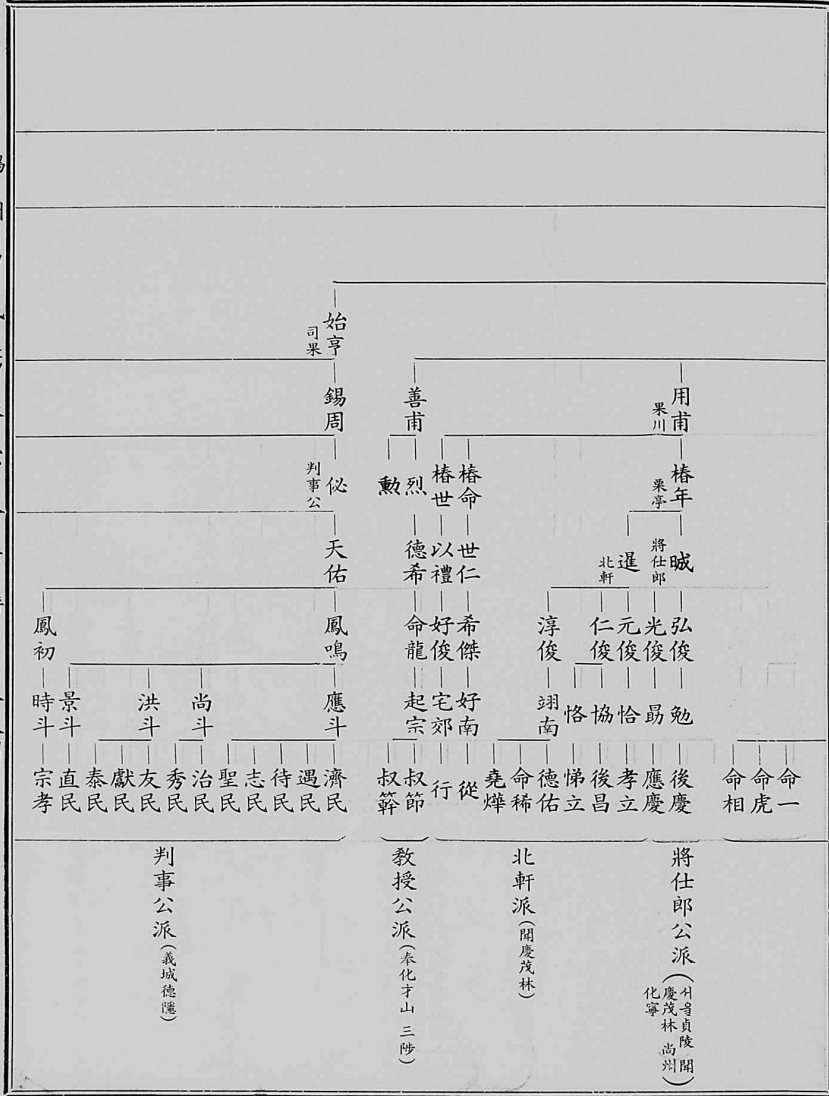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分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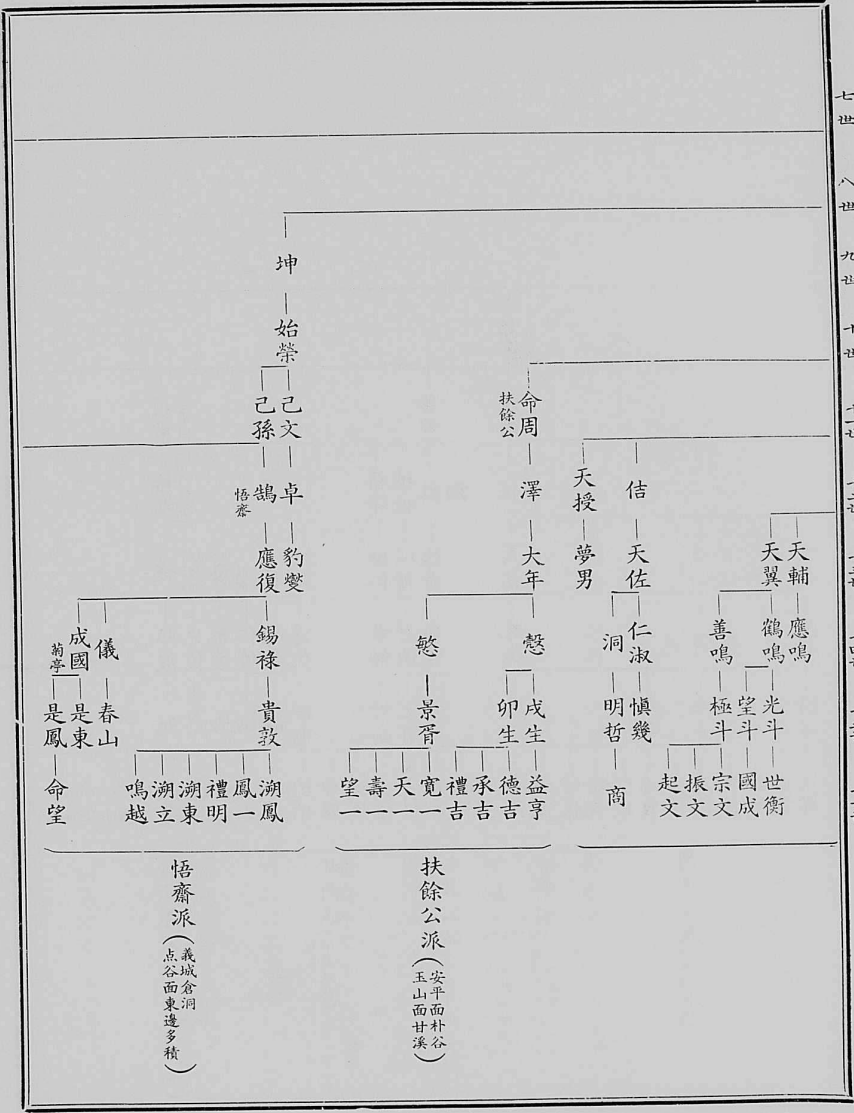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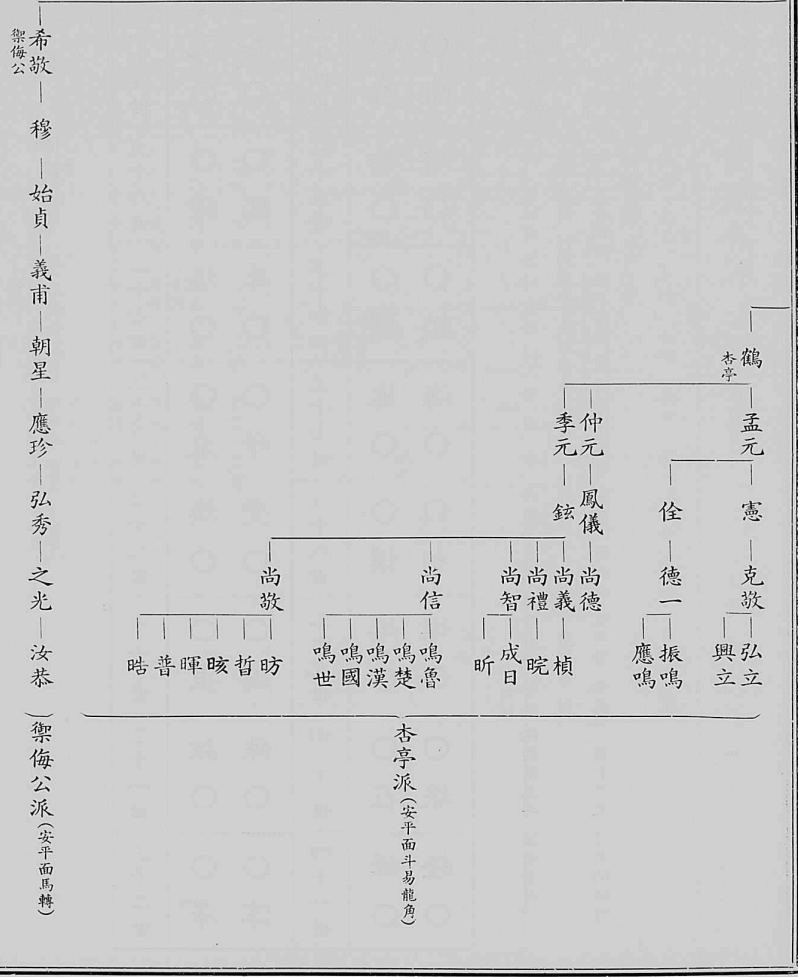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行列圖 (상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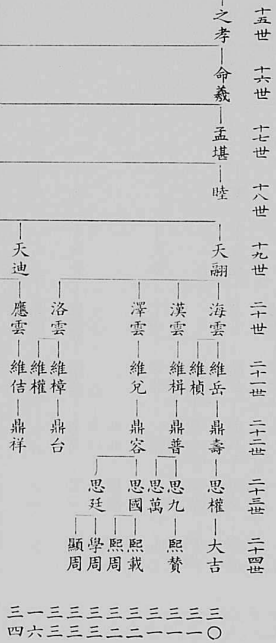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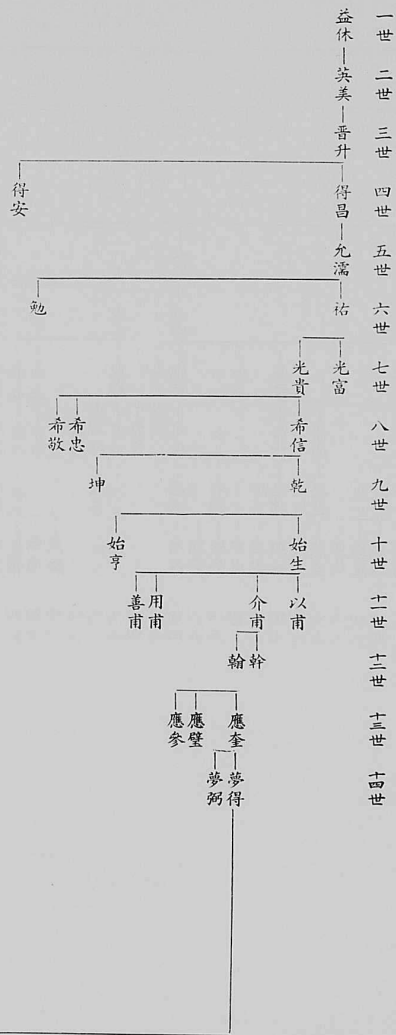
行列은五行(金生水·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順에依許어定許어發音.

三十三世	柄 ○	煇 ○	二四世	熙 ○
三十四世	煜 ○	燾 ○	二五世	遠 ○
三十五世	均 ○	培 ○	二六世	鐘 ○
三十六世	鏞 ○	鎰 ○	二七世	洛 ○
三十七世	泳 ○	海 ○	二八世	東 ○
三十八世	模 ○	相 ○	二九世	煥 ○
三十九世	燁 ○	燁 ○	三十世	圭 ○
四十世	在 ○	塚 ○	三十一世	鉉 ○
四十一世	鐸 ○	銓 ○	三十二世	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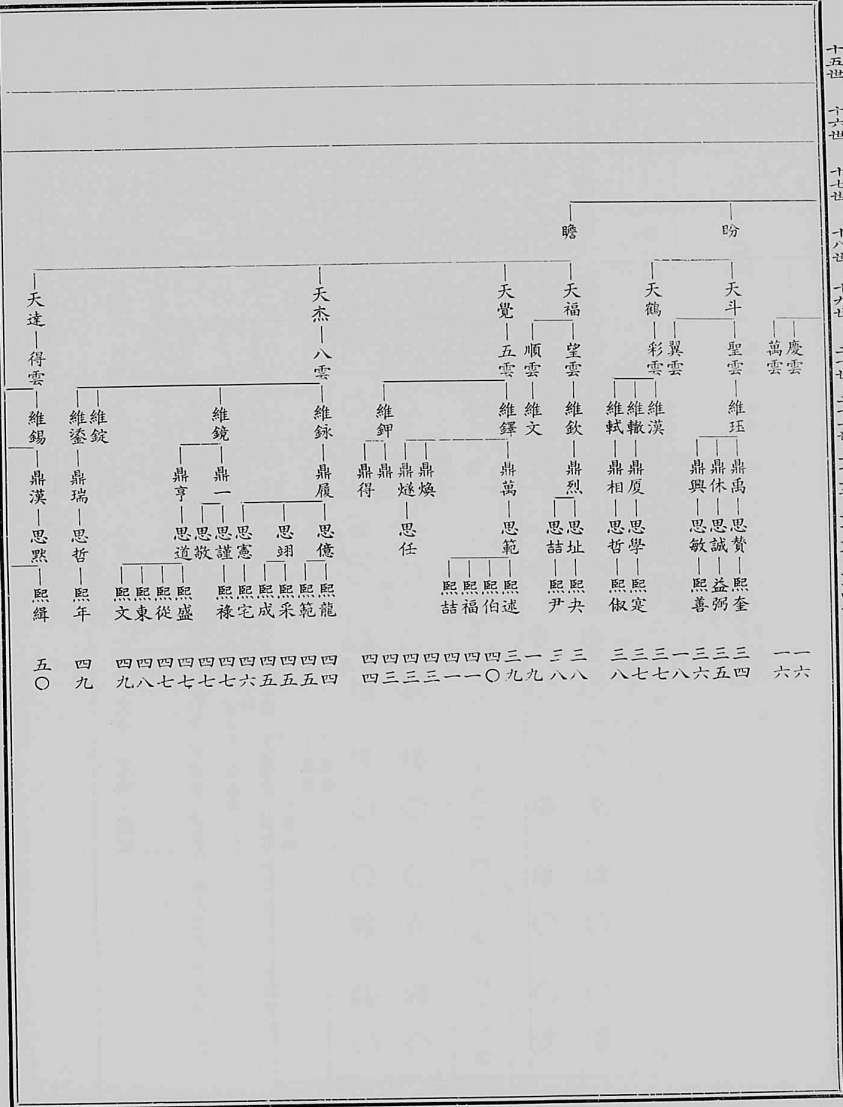
※ 作名上の注意

- 一、先祖의 諱나 號外 同一 姓名、字、作號等으로 妄發되는 일이 絶對없도록 注意할것.
- 一、必司 行列字等 使用許어 世代等 分別할 事 有되도록 留意할것.
- 一、先後代의 行列字等 同時 使用許어 世數、行列에 混同할 念處가 많으므로 可及的이 避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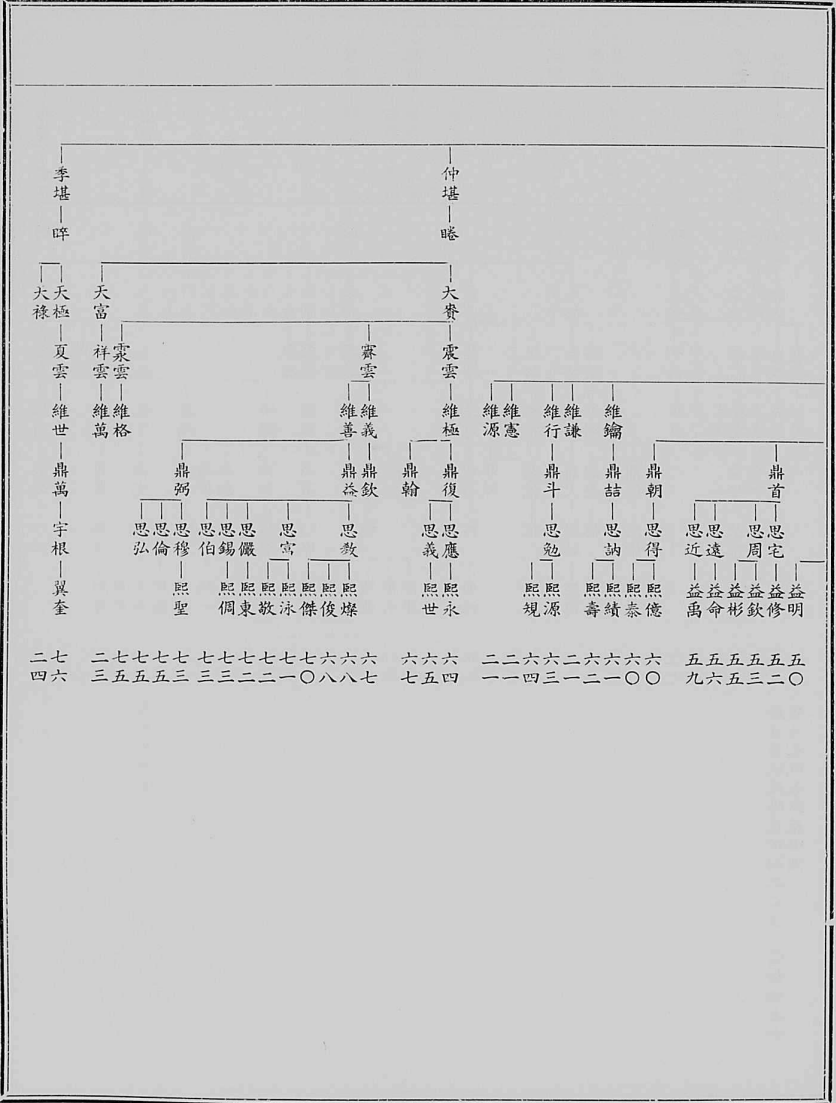
鵝洲申氏鷹巖公派 世系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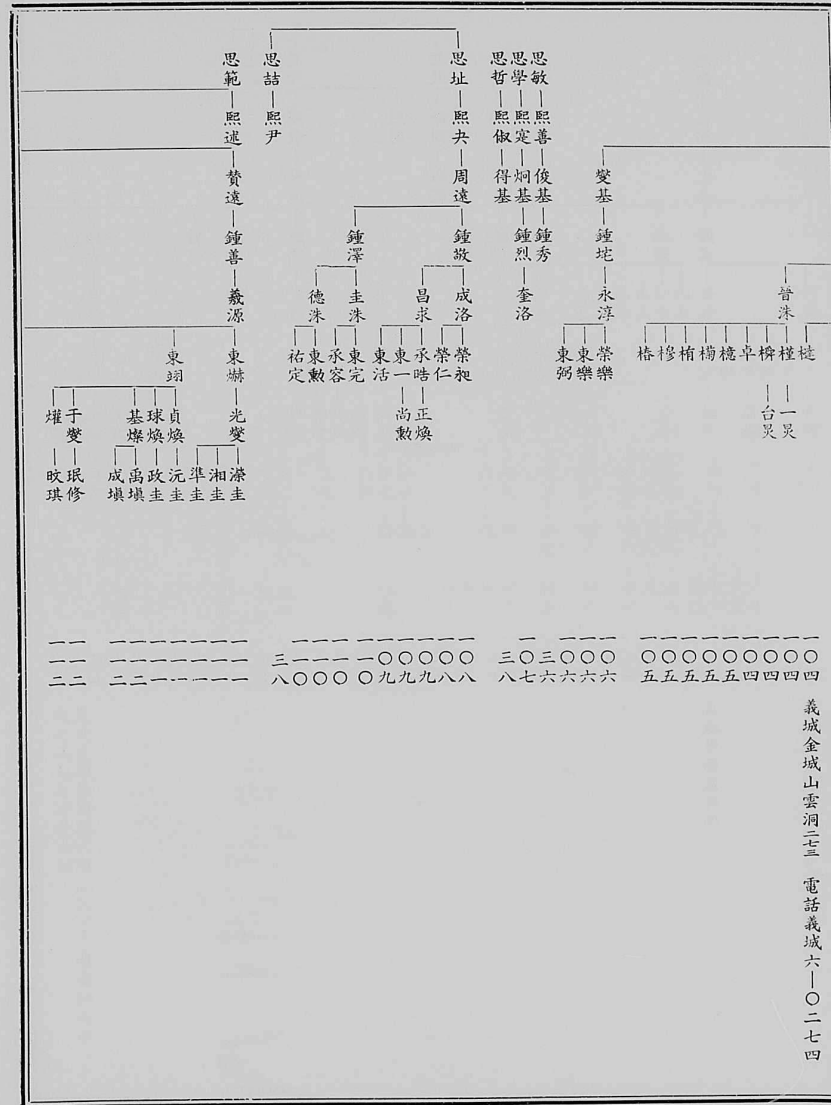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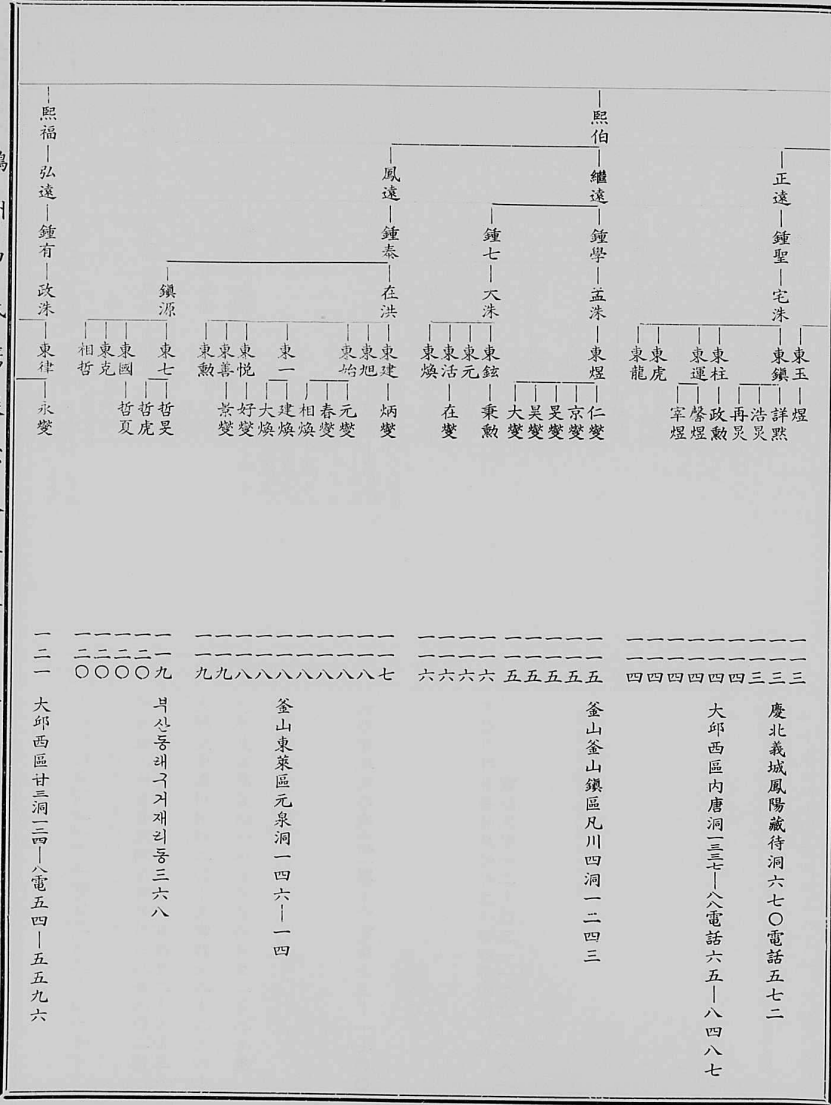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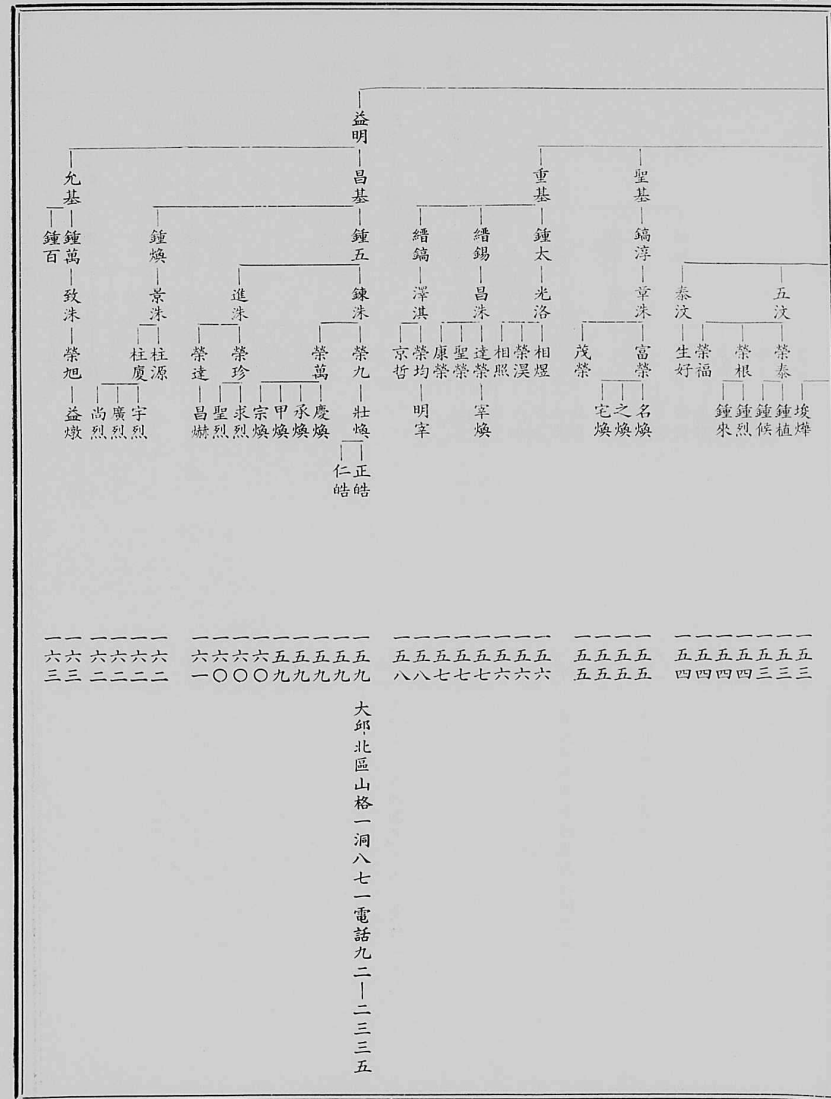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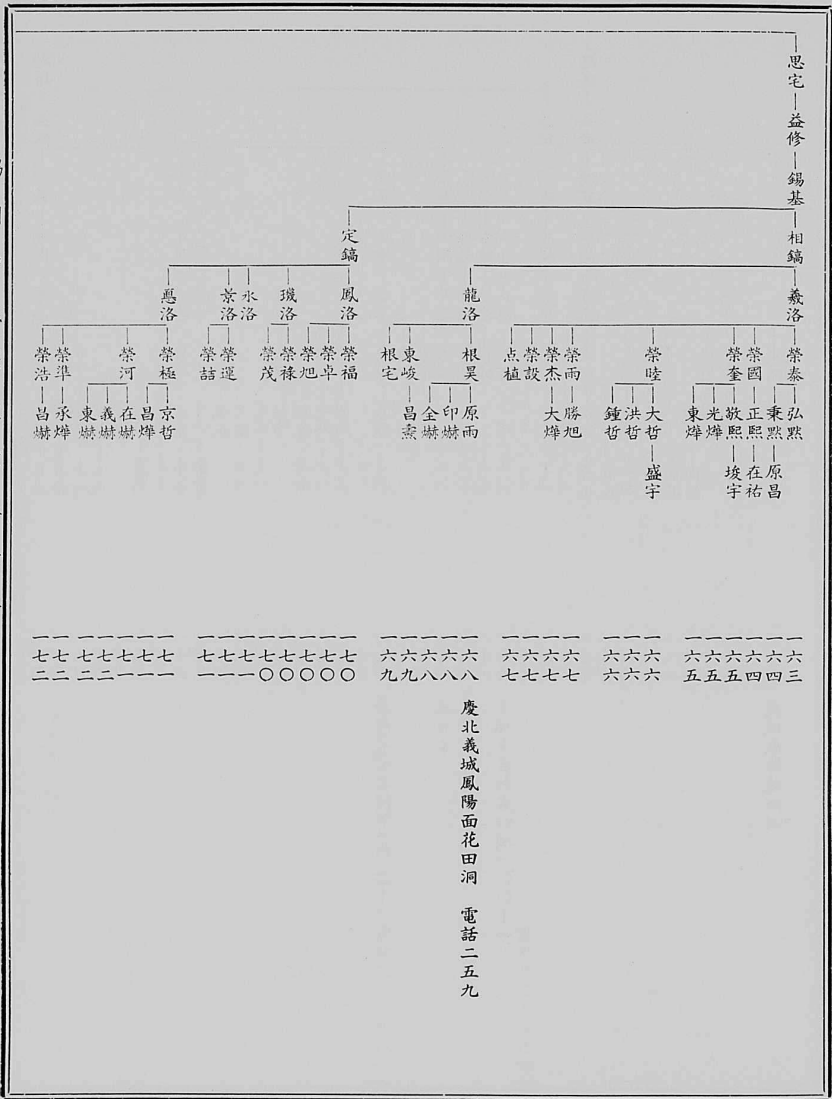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世系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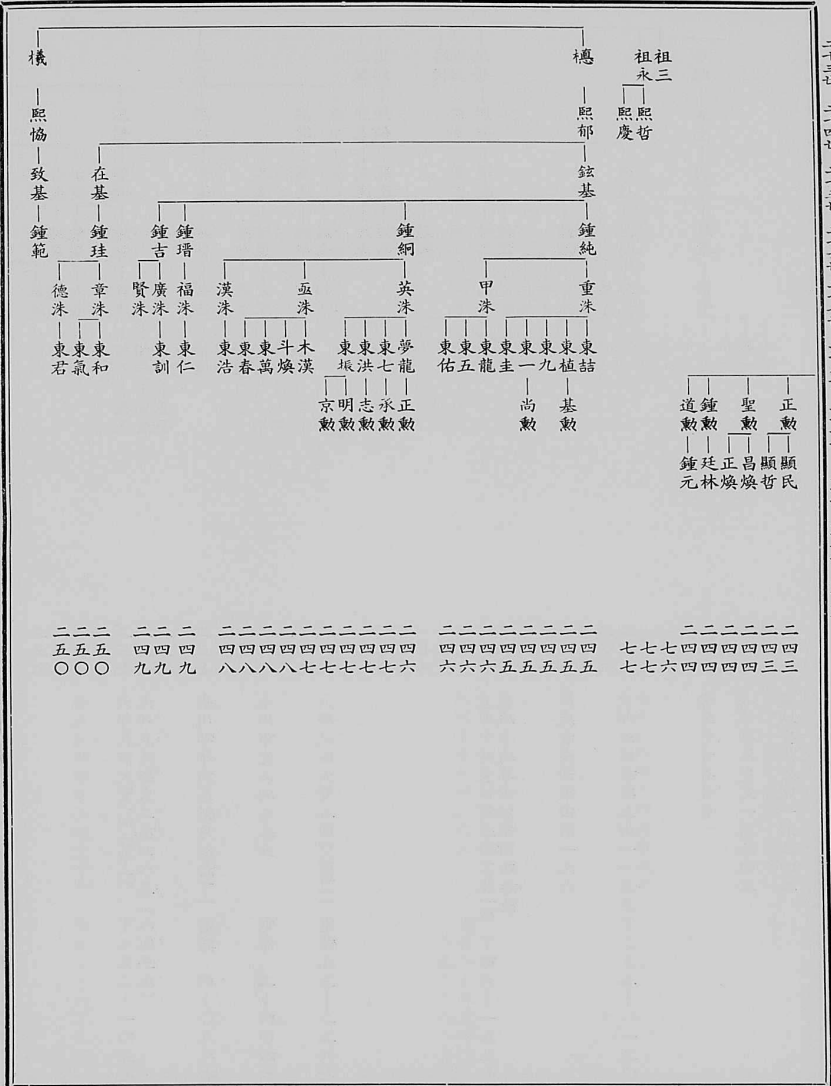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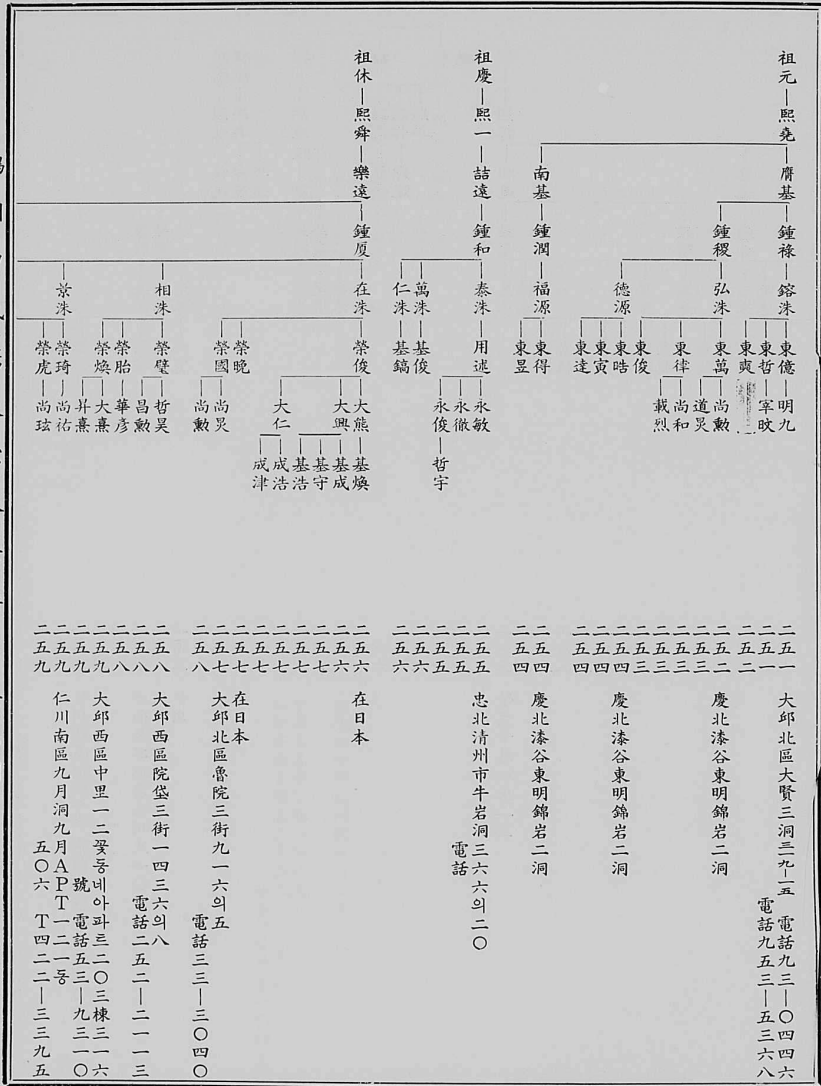














鵝洲申氏先世系譜

始祖

申崇謙

初諱能山號野叟諡壯節其先全羅道谷城人佐高麗太祖為開國元勳大將軍後唐明宗天成二年丁亥從太祖征甄萱桐敷之戰為王代死今大邱府道封壁上虎騎街大帥開國公三重大臣毅景珣戴匡臣禮葬於江原道春川昭陽江悲方洞為三墳世傳疑塚云配享麗太祖廟庭李朝受命仍配享麻田崇義殿平山太白山城大帥祠奉安鐵像事蹟載麗史本傳及行狀左贊成文貞公孫舜孝記遺事左議政文純公朴世采振別傳領敦寧忠文公金祖淳探神道碑銘并序 配位失傳

能吉  
官元尹

甫藏

諱東國通鑑作甫官元尹墓配失傳

女金浩

金海人實文閣大提

弘尚

官三韓壁上功臣兵部尚書開國公聖帝子文憲公崔冲門人奏請立箕子殿祀得允旨 墓配失傳

晟

號紹源堂官判門下省事元尹諡文元隨考尚書公居中學嘗有詩一首 睿宗四年奏請立養賢庫 墓配失傳

勁

號宜隱官積慶室副使太子太保兼實文閣大提學竟棄官歸隱諡文正 墓配失傳

愈毗

官承旨同正或云近侍左右 墓配失傳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先系

一 世 二 世

命夫 愈毗 官錄事直長同正 棄任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墓配失傳

應時 學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勳賜衛國功臣號 贈謚敬德 墓配失 傳

令材 官都官大直國家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墓配 失傳

禔 官兵部郎中致仕 國家屢徵不赴以直針 釣難達日因自號消 虛子時人云非無獵 車難善養老臣屈非 師禮嚴陵老灘時非 運值玄真不須歸 墓配失傳

行 字彞景就東峯官朝 奉即兼寶文閣大堤 學屢薦馬易東南臺 早棄仕歸老田里謚 文字 配而陽洪氏父耶事奇 ○按而陽洪講及華 海師全載錄 墓失 傳

益保 官右僕射或云同正 (平山派)

益休 鵝洲君 (鵝洲派)

淑 字而源疏月水軒官 禮部尚書兼左僕射 叅知政事或云同 正諫議大夫以明經 術之學當時人稱衣 冠領袖毅宗十四年 庚辰秋七月癸未卒 事蹟在麗史及本傳 墓配失傳 按舊譜 左代言公諱仲明註 曰或傳朝奉郎下有 左僕射淑右僕射益 保寔生自明及公云 而今按華海師全消 處子諱補有二子一 曰行二曰淑而諱行 有子仲明諱淑有二 子一曰益保二曰益 休然則舊譜之傳統 於斯確辨而左僕射 公非朝奉郎公之下 乃朝奉郎公之弟也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一 世 子益休 신익휴 官金紫光祿大夫門 下侍郎以軍功封鵝 洲君子孫仍以爲貴 墓開城府三岐里 配慶州金氏 墓失傳

二 世 子英美 영미 官權知戶長檢校太 子太師 配密城郡夫人朴氏父 典法判書育權祖保 勝將軍奇風會祖典 容全同正元光外祖 竹山朴育章 墓配 失傳

三 世 子晉升 진승 官令同正都察署令 墓尚州清慎洞盧菴 前千坐 配金海金氏父平章事 珣祖金寧君時興會 祖主簿同正風棋 墓失傳

四 世 子得昌 득창 官散員同正 配吳氏父散員同正淑 主 配晉州鄭氏父判事安 校祖文科洪旦會祖 太子詹事仲紹 墓 失傳

五 世 子允濡 윤유 諱貞肅初諱元濡避 忠宣王諱改 官本翊大夫判圖判 書兼軍器寺別檢校 事麗朝以清名直節 比之唐介忠烈王六 年庚辰啓請斬撰表 郡丹密面清慎河盧 幕失傳設壇以祀 配星州李氏父持平堰 墓失傳萬姓譜配全 州崔氏云

六 世 子祐 호 見下 子勉 中郎將

允濡 祐 호 見上

七 世 子光富 광부

八 世

九 世 子得安 득안 一云留安 女具藝 綾城入政承沔城府 院君子具榮儉判書

十 世

十一 世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號退齋司馬文科奉  
常大夫司憲府掌令  
全羅道按廉使神虎  
衛保勝攝護罕麗末  
廉深持身事父母至  
孝父辛盧墓三年朝  
夕號哭雙竹生于血  
淚處事聞 諡閔名  
其里曰孝子里刻石  
以表事載續三綱行  
實勝國時與治隱吉  
再並嚮南下公入高  
州望景山治隱入善  
山金烏山本朝  
太宗有潛龍舊架以刑  
曹判書屢徵不起乙  
丑十二月二十日卒  
墓尚州丹密面蛇浦  
卯坐文壯公鄭經世  
恭撰遺墟碑文享尚  
州涑水書院杜門洞  
表節祠  
配淑夫人若木柳氏父  
崑山府院君益貞祖  
判事伯根九月二十  
日辛墓合附

出入堂省以剛直行  
權奸賊中顯大夫內  
府令軍器寺主簿文  
肅公之春李良爲  
文祭之  
配咸昌金氏父判官安  
道成寧君饒孫墓失  
傳  
(邑派)

子光貴 諱升  
任本朝知鳳州軍軍  
器寺正正月二十九  
日辛墓慶幕洞午坐  
失傳  
配晉州鄭氏父縣監之  
紹祖判書得仁會祖  
郡守貽墓失傳  
配順興安氏父判事巨  
鼎祖令同正台佐會  
祖令同正君輔外祖  
佐郎竹山安吉八月  
十九日辛墓合附失  
傳

子希信 諱烈  
通訓大夫丹陽郡守  
四月二十日辛墓失  
傳  
配淑人密陽朴氏父進  
士繼興祖進士致明  
會祖判事立墓三月  
二十日辛墓失傳

子乾 諱烈  
內禁衛將五月三十  
日辛墓失傳  
配懷川黃氏父護軍居  
謙墓失傳  
配全州李氏父萬戶承  
衍祖司諱曆六月二  
十日辛墓失傳

子始生 諱生  
號北松亭禦侮將軍  
進勇校尉副司勇一  
云上將自尚州移居  
安東豐北面鼎寺洞  
家北種松數十株爵  
然蒼翠鄉有大事每  
稟決于公坐於松下  
故至今稱北松亭公  
事云二月十二日辛  
墓醴泉稷谷甲坐  
配淑人安東金氏父縣  
監三近祖奉禮郎革  
會祖典農正得兩外  
祖保勝將軍兼監察  
安東權希正墓雙墳  
有碣

子以甫 諱伯  
訓導  
配延日鄭氏父舍人  
贈吏曹參判弘胤號  
南溪  
(安東派)

子介甫 諱旦見下  
六

子用甫 諱旦  
朝奉大夫果川縣監  
兼利川氣宇宏確才  
智早牽晚節廉退不  
復任墓醴泉稷谷明  
堂噉外祖金比安公  
瑩下甲坐  
配淑人安東權氏父習  
讀實城墓合附有碣  
(果川公派)

(龜派)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希忠 諱考  
河東縣監

子希敬 諱敬  
禦侮將軍 墓義城  
郡鳳陽面楓林洞浦  
田良坐 配墓合芝  
(禦侮公派)

女康居義  
信川人縣監父允蒼  
子康慎左弼善康揚  
進士

子坤 諱  
習讀  
女黃孟金 進士

子始亨 諱亨  
禦侮將軍司果  
墓配失傳

子善甫 諱旦  
教授  
墓稷谷同原  
(教授公派)

女金誠美  
善山人直提學父三  
司右尹天富子壽貞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始生

介甫 見上

顯信校尉定略將軍  
忠武衛司直正月二  
十六日辛酉遷泉稷  
谷東幕甲坐有表石  
配令人星州李氏父  
會祖金山郡事汝信  
四月二十日辛酉義  
城郡鳳陽面新禮洞  
栢岡子坐有碣

子幹 心

奉訓郎行尚衣院直  
長自義城移居清州  
山東文博里子孫因  
家馬駕行自守教子  
義方有遺訓  
中宗己亥二月二日辛  
墓文博齋舍後壬坐  
之原五世孫應恭撰  
碑文  
訓大夫行栗峰道察  
訪原道墓雙墳魂游  
石下埋誌石○郭察  
訪墓在直長公墓東  
岡壬坐娶清州韓氏  
墓上下堂  
(清州派)

女鄭龜齡

監祭子金壽禮縣監  
子金壽仁縣監女碧  
珍李孟專正吉號耕  
隱李希點密直  
東萊人縣監 贈吏  
判子鄭雍修撰鄭賜  
直提學 贈左贊成  
鄭儀縣監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子翰 心

贈通政大夫掌隸院判  
法事行龍驤衛左部  
將自安東郡豐山面  
鼎寺洞移居義城郡  
鳳陽面新禮洞墓風  
陽面泉洞壬坐有碣  
配 贈淑夫人長善吳  
氏父掌令永年祖生  
員禮二月二十二日  
辛酉附後有碣

子應奎 心

中宗甲戌生  
中宗甲辰四月十八日  
辛 贈嘉善大夫工  
曹參判兼同知義禁  
府事行承任即恭陵  
祭奉墓義城郡鳳陽  
面泉洞考塋下午坐  
有碣  
配 贈貞夫人昌寧曹  
氏父忠順衛良範  
中宗己卯生  
明宗丁巳三月三十日  
辛酉新禮洞栢岡祖  
妣李氏塋後子坐有  
碣

子夢得 心

字商卿  
中宗己亥五月二十八  
日生 贈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兼經  
筵參贊官  
宣祖丁未四月二十四  
日辛酉年六十九墓  
義城郡安平面石塔  
平橋洞甲坐有碣  
配 贈淑夫人月城朴  
氏父 贈工曹參議  
敏樹祖祭奉享孫會  
祖以文外祖祭奉成  
陽朴景信  
中宗庚子生  
宣祖己巳十二月二十  
四日卒有三子一女  
墓合附  
配 贈淑夫人高敞吳  
氏父祭奉士翼祖訓  
導贊會祖縣監紹文  
外祖忠順衛成昌金  
世清  
中宗丙辰生  
仁祖癸亥十二月三十  
日辛酉年六十八有  
四子墓附乾墓階下  
有床石

子之孝 心

字達夫 號廣巖  
明宗辛酉三月十八日  
戊寅生容顏粹美英  
爽絕倫性本孝友氣  
宇剛毅九歲丁母夫  
人憂哀毀終制年才  
成童與弟椿峯受學  
于惟一齋金先生彦  
璣門學業日就先生  
大奇之十八為校任  
一時儕流莫不敬服  
二十五鄉人推為校  
長端坐齋室容儀整  
肅諸生無敢喧嘩過  
者皆趨未敢曳履馬  
兵革之亂奉母夫人  
吳氏避隱于廣洞巖  
穴間猝遇兵即挺身  
受兵及全母氏於危  
禍之地兵見公風儀  
卓絕不忍違害而竟  
剔左肩而去公神閒  
氣定處置從容攬葛  
而嚙之截衫而裁之  
濡血作書寄訣于仲  
弟之悌宣城任所其  
書略吾之殞身命也  
君既許身國家無以  
我為念竭力勤王可

子命義 子命夔

見下 一五 二五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也干戈搶攘中君之  
 死生亦未可知足掌  
 書宣城二字脫有不  
 幸一家親屬以此為  
 的索君之遺骨云命  
 遂以殞是五月二十  
 三日也享年三十二  
 梧峯題亡兄手抄文  
 選卷尾性理語後有  
 曰亡兄自幼少有志  
 於學比長頗見成就  
 四書及經傳手書口  
 誦之其專致於事業  
 有非朋徒之所能及  
 而區區踐履之實惟  
 舍弟知馮懶齋公悅  
 道探聞韶誌述公美  
 蹟塞軍威郡軍威邑  
 廣峴洞板反山寅坐  
 剛窩任必大撰碣銘  
 江阜柳尋春撰誌銘  
 拓庵金道和撰殉考  
 遺壙碑銘士林設壇  
 于泉谷歲一薦亨有  
 實紀一卷行于世  
 配成昌金氏父習讀彊  
 一云俊昌祖主簿以  
 廉會祖將仕郎參奉  
 世藩  
 明宗丙辰三月一日生  
 辛酉三月十八日卒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墓合附  
 子之悌 子剛  
 字順夫 號梧峯  
 明宗壬戌七月十九日  
 生  
 宣祖己丑增廣甲科第  
 三人歷司導直長成  
 均典籍司憲府監察  
 禮安縣監兼任安東  
 司諫院正言侍講院  
 文學兼三字銜全羅  
 都事禮曹佐郎正郎  
 全州江界判官司憲  
 府持平巡察體察統  
 制三營從事官全羅  
 道暗行御史慶尚道  
 按察使工曹正郎忠  
 清都事咸鏡道評事  
 昌原府使官至通政  
 大夫承政院同副承  
 旨兼經筵祭贊官春  
 秋館修撰官值兵革  
 亂召集精銳堵截賊  
 路出入臺閣盡忠敢  
 言歷典州郡皆有治  
 績父喪泣血廬墓  
 仁祖甲子正年八日卒  
 享年六十三以宣武  
 扈 聖敷一等 贈  
 嘉善大夫史曹參判  
 兼同知經筵義禁府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墓義  
城郡羽谷面栗谷已  
坐忠簡公李民黨撰  
行狀詢隱李光庭撰  
墓誌鶴沙金應祖撰  
碣銘有文集五册十  
卷行于世亨藏待書  
院副提學李堂撰  
上樑文金鳴齊啓光  
撰奉安文孤山李惟  
樟撰常亨祝文始卜  
居龜尾  
配 貞夫人咸安趙氏  
父 贈刑曹判書址  
祖 贈參判庭彥會  
祖 贈參議淵外祖  
習讀安東權悛癸亥  
生庚寅正月八日卒  
享年八十八墓合附  
先生天姿粹美器度  
寬偉居家以孝友為  
本持身以忠信為主  
幼受學于惟一齋金  
先生彥璣門長遊鶴  
峯金先生誠一門得  
聞陶山旨訣及其釋  
褐登朝進退明正迹  
不近於權貴志不事  
於于謁莊毅有守務  
持大體畫粹於板蕩  
之時著直於乘簡之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日當光海昏朝見忤  
北黨摟遞躡躑躅竟至  
開廢多年其後 長  
陵改玉朝著清明簡  
在上心特收擢用而  
稱病陳疏堅臥不起  
蓋揆諸當時群賢之  
出處實與金文貞其  
義暗合然則敬亭李  
公祭文中公則不起  
之句五峯李相公挽  
詩曰銀臺新 命辭  
嚴召可謂庶幾乎先  
生之微意者也先生  
為文章清新俊潔有  
古作者風當時之知  
先生者皆以公輔期  
之柳文忠公一見稱  
為第一人物蒼石李  
公贈詩亦曰臺閣即  
今多後進朝廷誰復  
記先生大山李先生  
謂梧峯辭承旨一疏  
此君子末年大節云

(梧峯派)

子之信

字立夫 號獨峴  
明宗丙寅生性仁厚温  
雅有孝友至行文辭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早達善詞賦連居解  
魁隨二兄受學于惟  
一齋金先生彦璣門  
中年廢舉業安養以  
終蓋其志操恬靜無  
意外墓遠邇士友皆  
稱道嗟惜壬申卒墓  
緞谷司直公塋後甲  
坐  
配平海黃氏父泰奉椽  
乙丑生壬辰卒墓合  
窆外孫奉祀  
配月城李氏父崇業墓  
義城安平石塔承旨  
公墓青龍嶺乙坐  
(獨峴派)

子之義 의의

字宣夫 號槐軒  
通德郎天賦溫雅沉  
潜好學有文行志節  
望重當世遺稿後入  
四錄

宣祖丁丑生壬午十一  
月九日卒墓安平石  
塔層岩辛坐  
配恭人公州李氏父奉  
正大夫守內資寺正  
瑠祖經濟會祖宣務  
郎成均典籍克恭外  
祖安東金汶

宣祖丙子生癸未十一  
月十五日卒墓石塔  
雙墳有碣

(槐軒派)

子之行 이행

出叔父夢弼后

子之敬 이경

字直夫 通德郎

宣祖乙未五月五日生  
受學于旅軒張先生  
顯光門文望重於世  
庚子八月五日卒墓  
豐林洞介田谷丙坐  
有床石有遺稿

配恭人玉山張氏父乃  
度號儉谷祖 贈掌  
隸院判決事士璵會  
祖主簿獻外祖忠義  
衛韓山李增甲辰正  
月二十二日生壬戌  
十二月一日卒墓合  
祔

(通德郎公派)

女金希孟

安東人子金學廈堅

子之訓 이훈

天早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子夢弼 字聖

字殷卿 贈資憲大夫漢城府判尹 中宗壬寅十月五日生 九月一日卒墓柩岡 子坐有床石 配 贈貞夫人高敬吳氏 父祭奉士翼正月十七日卒墓雙墳

子之行 字聖

生父夢弼 字敬夫 行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 宣祖甲申九月一日生 以財補國蒙進崇三代二月十七日卒墓 泉洞圓峯乙坐有床石 配貞夫人全義李氏 父進士光玉正月一日卒墓雙墳 (同知公派)

子應壁 字明

字文玉 恭陵祭奉墓 義城鳳陽面龜尾河池內山西坐 配端人安東權氏 父訓 專用網墓鳳陽面內 泉洞璞玉洞卯坐 (祭奉公派)

子應參 字明

字汝舟

女李張

女南應鐘

子南億萬億命

女李莒

之孝

命羲 字明見上

字宅嶠 宣祖甲申生 仁祖戊辰 除宣教郎 義禁府都事 仁祖乙亥八月二十八日卒墓義城郡安平面石塔橋洞祖妣吳氏 坐有碣 配令人玉山張氏 父敏業 仁祖壬午七月五日卒墓雙墳

子孟堪 字明

字子勝 宣祖甲辰生 宣務郎 賓寺主簿 仁祖己未十月十五日卒墓石塔橋洞陽地 亥坐有床石 配令人安東金氏 父啓功 郎繕工監直長 狹 宣祖乙巳十月二十二日 日生 仁祖甲子九月二十九日卒墓軍威邑廣峴板反山鷹巖公堂下 甲坐有床石

子睦 字明

字汝雍 仁祖己巳生 己亥八月十四日卒墓泉洞奈判公堂下午坐 配真城李氏 父進士爾樟 仁祖丙寅生 庚戌二月二十五日卒墓雙墳

子天翹 字明

字漢遠 號畫靜堂 孝宗壬辰生 尤有德望 文詞名筆 爲士林推重 多寫碣銘 己丑正月十六日卒 享年五十八 墓船放山西坐 配安東權氏 父祭奉得與 丁酉生 庚辰十一月二十二日卒墓雙墳

子海雲 字明

字士浩 肅宗庚申生 壬子卒墓 軍威郡軍威面山月里 巽坐 配仁同張氏 父從仕郎 冕墓船放山斗谷子坐

子維岳 見下

三〇 見下

子維楨 見下

三一 見下

女郭萬元

玄風人子 郭必華必文

女成爾滿

昌寧人子 成攀柱

子維楫 見下

三一 見下

女金聖鏢

子金潤 德潤河女 中

女李奎五

延安人

子維兌 見下

三二 見下

子維世

出夏雲后

女朴昌世

咸昌人

韓洲申氏鷹巖公派世譜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女趙孟三  
女閔思文生員

子維樟  
見下  
三三

子維權

女李春生  
真寶人

子維估  
見下  
三四

子維估  
出伯父應雲后

女桓

女金大應  
上洛人子金宗瑛

子洛雲  
癸未生

配竺山全氏父武科一  
元  
配成陽吳氏父學時墓  
船放山西坐

女崔承佑  
子崔宗杰宗熙宗衡

女鄭周衡  
女權思約

子應雲  
墓考墜下巽坐  
配仁同張氏父翼辰墓  
雙墳

子慶雲  
字士興  
配順天張氏父漢遇  
配蔚珍林氏父柱漢

子萬雲  
配星州李氏父河

子天迪  
字啓叔  
墓考丁酉生癸未卒墓  
儂谷板反山已坐  
配一善金氏父道接墓  
合祔

女任世章  
豐川人號慕醒堂子  
任爾天任爾載女金  
道與李汝達申一生  
李秀垓李集縣監李  
時輝金履楷

女曹善基  
昌寧人

女邊彥章

子天斗  
字樞瑞  
肅宗乙卯生丁未三月  
二日卒享年五十三  
墓鳳陽面桃院洞葛  
蒲谷卯坐

配咸陽朴氏父折衡將  
軍龍驤衛副護軍震  
烽五月八日卒墓合  
宗咸親朋咸祝壽賜

女李命錫

女李台尹

女張龍瑞

子聖雲  
字君望  
肅宗己卯生庚午十一  
月二十九日卒享年  
五十二墓葛蒲谷考  
塋左良坐

配咸陽朴氏父守規三  
月八日卒墓儂谷茂  
圃山護軍公塋下右

子維珏  
見下  
三四

女洪漢益  
岳林人

女李晦根  
延安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盼  
字汝明  
仁祖癸酉生  
肅宗戊戌以大耋特除  
嘉善大夫行龍驤衛  
副護軍

景宗甲辰正月十五日  
設慶席于桃園以逮  
宗咸親朋咸祝壽賜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仍呈壽酌有桃園慶  
會銖  
英祖乙巳二月十九日  
辛享年九十三墓德  
谷復園山午坐  
配貞夫人順天金氏父  
忠義衛如式正月十  
九日辛墓合附  
配貞夫人平海丘氏父  
尚岷三月十四日辛  
墓附左雙墳

附

午坐  
配一暮金氏父重瑞九  
月二十四日辛墓德  
谷板反山鷹巖先祖  
堂下甲坐

子翼雲 익운  
字夢叔

配順天張氏父漢旭  
配蔚珍林氏父柱漢墓  
失傳

女吳學麟  
海州人

女吳學仲  
海州人

女南道錫  
宜寧人

女孫緝  
屏山人

子彩雲 채운  
字龍瑞

丁亥生辛卯七月十  
日辛墓院堂谷山庚  
坐

子維漢

子維輶

子維軾

三見下  
三七  
三八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瞻 첨  
字汝弼

仁祖戊寅生  
肅宗丁亥辛墓鳳陽面  
鶴峴新基巽坐有床  
石  
配安東權氏父鎬墓合  
附

子天福 천복  
字裕甫

配仁同張氏父慶最墓  
失傳

面亭子洞巨頭山午  
坐

子天覺 천각  
字聖任

顯宗丁未生  
英祖戊午辛墓安平面  
朴谷乾坐  
配咸安趙氏父護軍重  
廉墓鶴峴洞葛谷巽  
坐

配順興李氏墓乾堂下  
同坐

子望雲 망운  
字君若

肅宗庚辰生  
英祖乙亥辛  
配咸安趙氏父通德郎  
此  
配順天張氏父雲翰墓  
失傳

子順雲 순운  
朴氏

女朴宗憲  
竹山人

子五雲 오운  
字彩世

肅宗甲戌生  
肅宗癸酉辛墓安平面  
朴谷乾坐  
配竹山朴氏父再泰墓  
鳳陽面慈仙庵後山  
西坐  
配月城孫氏父步麟墓  
乾堂合附

女李顯道  
永川人子李以彭五  
錫

子維欽

女李宗道  
永川人

子維文 문

女朴來慶

子維鐸

子維鉀

女裴相夏

女李春敏

三見下  
四三  
中龍明鵝洲人  
真城人子李宗蓮女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女南啓萬  
英陽人子南景淳景  
泌

子天杰 子号

字德秀 號景陶齋  
顯宗庚戌生  
肅宗辛卯生員  
英祖辛亥六月八日卒  
文詞夙就有題屏九  
歌道于子孫墓安平  
面馬轉里紫山丙坐  
有床石  
配宜人咸安吳氏父以  
周墓附後

子八雲 子号

生父天覽 字彩卿  
肅宗丙子生  
英祖戊子三月一日卒  
墓德谷復圓山甲坐  
配南平文氏父兵使在  
茲墓仁同郡若木玉  
萬里後山  
配永川李氏父益蕃墓  
同原子坐

子維錄

見下  
四四

子維鏡

見下  
四七

子維錠

見下  
四九

子維漆

見下  
四九

女李頰

真城人父正臣女金  
揆雙

女金宗植

上洛人子金陽進恒  
道

女金迪源

豐山人子金相禹

女朴聖倫

咸陽人女曹元雙女  
全得宗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天達 子号

字兼善 號花谷  
肅宗壬戌生癸巳生員  
英祖丙寅五月三日卒  
享年六十五  
墓花田洞院旨松亭  
巽坐南有大岩有床  
石  
配宜人真城李氏父箕  
微墓合附

子得雲 子号

字士從  
肅宗乙酉生  
正宗辛丑五月二十三  
日卒墓考堂下巽坐  
有床石  
配安東金氏父行秋墓  
生員公塋下乾塋後  
同坐有床石

女李宜泰

真城人子李春數春  
栽

女李玄極

碧珍人父益華耕隱  
孟專后子李聖臣慶  
臣正臣女李春浹朴  
春基

子維錫

見下  
五〇

子維鑰

見下  
六一

子維謙

見下  
六三

子維行

見下  
六三

子維憲 子号

配楊州趙氏墓安平面  
朴谷乾坐

子維源 子号

配安東權氏父佑詰墓  
花田洞小谷自來壘  
仲兄塋下

女柳敬天

豐山人文忠公西庄  
成龍后子光渭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女趙夏奎

女鄭堯懋

女朴再杰  
竹山人

女金夢佐

安東人子金履達進士

女南重衡

英陽人子南震英女金達兼聞詔人

子仲堪

字君勝

宣祖丁未生癸卯二月八日卒墓億谷板反山壬坐

配開韶金氏父之瑞正

月二十四日卒墓雙墳

配真城李氏父欽達十月二十五日卒墓附下

子暎

字甫明

英祖朝武科墓義城郡召文面屯台洞後山庚坐

配咸陽朴氏父宗楷墓

雙墳

子天賚

字聖休

墓佳音面中男山子坐

配永川李氏父必煥墓

召文面寺洞後西坐

子震雲

字龍瑞

配中和楊氏父采和

墓葛山卯坐

配英陽南氏父通政塚

墓寺洞院錯谷西坐

墓寺洞院錯谷西坐

墓寺洞院錯谷西坐

子維極

字宗倫

咸陽人父慶增子朴

宗倫

咸陽人父慶增子朴

咸陽人父慶增子朴

咸陽人父慶增子朴

咸陽人父慶增子朴

見下

見下

見下

見下

見下

見下

見下

見下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女權就義

安東人

女丁赫

義城人

子天富

字龍祥

女趙嶝

咸安人

女裴壽耆

達城人

字龍祥 配岳林洪氏父世聘

女李鳳昌

全義人

女崔大成

慶州人

女崔壽星

慶州人子崔柱

子祥雲

慶州人子崔柱

女徐泰登

達城人

女曹喜國

昌寧人

女徐惟積

達城人

子維萬

身思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子李堪 계장

天性孝友高學文詞  
夙就推重於世墓軍  
威邑廣峴洞紫山  
坐  
配平海丘氏父宗徽墓  
合祔

子晔 익

配與陽李氏父久啓

子天極 철규

配草溪下氏父三迪

子夏雲 희운

配星州李氏父溪一

子維世 見下  
七六

真城人子李思敬

女鄭以銓

子鄭淵女南復八

女張命錫

子天祿 철규

英陽人

女南大夏

女孫是燮

月城人

女趙重呂

咸安人

女權重奩

安東人

女金壽殷

安東人通德郎父震  
遠子敬秋敬錫敬徵

女李丕

女金汝孝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命夔 명기 見上  
七

字宅振

宣祖己丑生丙辰二月  
二十四日卒墓德谷  
板反山鷹巖公塾後  
良坐  
配慶州鄭氏父元明資  
憲大夫禮曹判書信  
后庚寅生丙辰二月  
十日卒墓合祔有床  
石

子耆亨 익형

字元老

宣祖庚戌生宣教郎義  
禁府都事丙辰十月  
七日卒墓德谷板反  
山考塋下良坐有床  
石  
配宜人星州李氏父軍  
資監奉事友伯外祖  
平山中景一  
宣祖癸丑生庚戌六月  
七日卒墓雙墳

子昞 익

字祝明

仁祖戊寅生乙酉十月  
十八日卒墓板反山  
考塋下良坐  
配慶州李氏父弘業  
仁祖庚辰生己巳三月  
十五日卒墓雙墳

子天鳳 철봉

字雲舉

顯宗辛丑生丁酉三月  
十一日卒墓德谷麻  
田谷坤坐  
配咸安趙氏父承旨重  
呂祖中樞成一會祖  
主簿道壬寅生丁  
巳十一月一日卒墓  
雙墳

子弼夏 익하

初諱觀 字見叔

肅宗辛未生  
英祖丙子正月五日卒  
墓德谷板反山坤坐  
配全義李氏辛未生丙  
申九月六日卒墓同  
原附下

配真城李氏父慶大丁  
丑生五月一日卒墓  
同原附左

配咸陽朴氏父東式祖  
世敏丁亥生庚戌三  
月二十一日卒墓鳳  
陽面無等谷未坐

子弼周 익주

初諱規 字汝平

丁丑生乙未二月十  
九日卒墓分明洞後  
山甲坐  
配羅州丁氏父萬鍾外  
祖漢陽趙以新八月  
二十二日卒墓附左

女李慶大

星州人女任義大

子維鑽 見下  
七六

子維銓 見下  
七六

女崔柱天

月城人子崔思徹

女張天穆

仁同人子張羽張羽  
廷

女李宅樑

延安人子李慶龍

子維鍵 見下  
七七

子維鎮 見下  
八一

子維鍊 見下  
八四

子維鉉 見下  
八四

出朔靖后

女李昇龍

碧珍人耕隱孟專后  
子李仁國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女洪有泰

南陽人子洪正

女權得甯

安東人子權可銓

女南塗

英陽人子南春鍾仲鐸

子弼宣

英陽人子南春鍾仲鐸

子弼靖

出天羽后

子弼靖

生父天慶

女朴再燮

密陽人

子維鉉

見下八五

子天慶

字雲瑞

肅宗壬戌生壬戌辛墓

船放山西坐

配玉山張氏墓船放山西

西麓吐日洞

子天羽

字雲翼

肅宗乙丑生辛巳七月

二十日辛墓船放

山東麓西坐

配陽城李氏父松齡正月二十三日辛墓合

女李廷弼

永川人子李錫恒

子天標

字視安

仁祖癸未生己丑四月

二十九日辛墓信義

谷乾坐

配義城丁氏父通德郎

時彥祖進士瑜外祖

草溪鄭後橋

仁祖癸未生十二月二十

十六日辛墓附後

子天壽

字仁叟

顯宗甲寅生癸亥十一

月十九日辛墓鳳陽

面信義谷子坐

配草溪下氏父三達墓

同麓亥坐

配漢陽趙氏父永徽外

子應聃

字陽仲

肅宗乙酉生癸巳正月

十五日辛墓德谷板

反山後甲坐

配永川崔氏父秀宇外

祖玄風郭天齋癸未

生庚寅十二月五日

辛墓附同上坐

女趙景淑

咸安人子趙相玉女

黃汝憲林必植

女洪有受

南陽人子洪凍女金

淵先

女洪受楚

岳林人子洪漢樞漢

子益聃

字陽甫

丁未生甲申十二月

一日辛墓信義谷

配永川李氏父應春甲

辰生辛亥三月二十

三日辛墓雙墳

子維元

見下八八

子維亨

見下九〇

子維貞

見下九〇

女洪周萬

岳林人

子維德

見下八五

子維穆

見下八八

女具師瞻

綾城人子具東薰

女朴慶迪

義興人子朴在淳

鵝洲中氏鷹巖公派世譜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祖坡平尹來哲墓仁  
同郡鐵店  
配星州李氏父世調墓  
信義谷亥坐

子復聃 復聃

字仲玄  
庚戌生丙寅十月七  
日辛墓石塔

子維星 見下  
九〇

女朴忠稷  
咸陽人子朴命基女  
申學教

女金始誠

開韶人子金宗漢

女朴師倫

咸陽人子朴瑛朴璋  
朴璟女李之芝

女卞廷烈

草溪人子卞垢

子天旭 天旭

初諱天甲 字子開  
甲子生壬戌八月十  
八日辛墓鳳陽面藏  
待洞東麓檢豆山西  
坐

子尚聃 尚聃

字陽伯  
戊子生丙子五月四  
日辛墓鳳陽面板項  
西坐  
配蔚珍林氏父德齡五

子維鎰 見下  
九一

女李後成  
永州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瞪 瞪

字視寬  
配玉山張氏墓信義谷  
亥坐

女金九淵

子金善慶善長

子天健 天健

字仲行  
墓鳳陽面板項西坐  
配永川李氏墓信義谷  
姑張氏坐左

子天任 天任

字日

女朴萬裕

配咸陽朴氏父震華祖  
以樸會祖中樞宗敏  
外祖獲軍與城李以  
樞三月二十日辛墓  
雙墳

子國聃 國聃

字周伯  
甲辰生辛亥五月四  
日辛墓安平面石塔  
小林坡谷辛坐  
配一善金氏父重璋籠  
巖澗后甲辰生己酉  
正月十三日辛墓安  
平面佳道谷紫山乙  
坐

子弼禹 弼禹

子維鏤 見下  
九一

女金龍海  
楊根人

女李宗料  
真城人女金績熙

女趙星列  
漢陽人子趙祥奎女  
玉汝南

女洪再光  
岳林人子洪夏慶

女朴元天  
咸陽人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女張慶述  
玉山人子張照榮

女趙重尹  
咸安人子趙峰趙整

趙嶷趙峻

女李 楠  
子李星三星台

二十二世

子鼎壽  
字老瑞

英祖甲寅生  
正祖己酉卒墓船放山  
配興陽李氏父會質荅  
石琰后墓仁同郡文  
山里西坐  
配仁同張氏父鵬彩墓  
船放山斗谷子坐

二十三世

子思權  
字衡之

配星州李氏父爾玉墓  
船放山佛堂陽地子坐

二十四世

子大吉  
字德章

初諱熙元 字德章  
正祖乙卯生正月四日  
卒墓義城郡安平面  
石塔洞麴岩上西坐  
配星州李氏父宇根祖  
之銓會祖大春外祖  
海州吳光宅丁巳生  
三月十九日卒墓義  
城郡鳳陽面船放山  
佛堂陽地姑瑩下子  
坐  
配慶州金氏父琮玉祖  
光滂會祖有聲外祖  
義城金光潤壬申生  
墓鳳陽面花田洞小  
谷亥坐

二十五世

子碩遠  
字近道

純祖辛巳生丁丑二月  
六日卒墓義城郡鳳  
陽面花田洞小谷亥  
坐  
配海州吳氏父祖綱祖  
敬逸會祖聖權外祖  
慶州金大淵丙戌生  
丙戌七月十八日卒  
墓花田洞中三峯下  
乾坐

二十六世

子鍾振

子鍾大

見下  
九五  
九七  
見下  
九八

子鍾律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海雲  
維楨  
字國興  
一五  
見上

肅宗庚寅生  
正祖甲辰卒墓船放山  
丙坐  
配真城李氏父瑋墓附  
後

子鼎壽  
字子亨  
出維岳后

子鼎普  
字旦

英祖己酉生  
正祖辛亥卒墓鳳陽面  
鶴峴方山子坐  
配屏山孫氏父編墓同  
麓

子思九  
字子容

英祖辛未生乙卯卒墓  
鶴峴考瑩下子坐  
配延安李氏父長根墓  
同麓右子坐

子熙贊  
字聖弼

生父思國 字聖弼  
戊辰生  
配真城李氏父相建祖  
淑會祖權國外祖密  
陽朴光弼

子浩遠  
字熙世

子鍾兌

見下  
九八

維楫  
字應宣  
一五  
見上

肅宗庚辰生  
英祖辛未卒墓船放山  
上峯子坐  
配月城崔氏父南鳳墓  
合附

子鼎復  
字亨  
出維極后

女朴鼎實

密陽人子朴守根女  
鄭 女李

子思萬  
字外也

英祖乙亥生己酉卒  
墓鳳陽面板項洞後  
山亥坐  
配密陽朴氏父啓純  
配順天朴氏父聖仁醉  
琴軒彭年后墓同原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女李憲常

驪江人子李鼎達鼎  
大鼎仁女金清進生

女孔胤道

參奉子孔致和

女柳煉

文化人子柳河文女  
姜稷欽

澤雲

子鼎容

字君謙

英祖甲子生己卯九月  
十一日卒

一日卒墓鶴峴前山  
午坐

配順天朴氏父溫古壬  
辰生乙未正月十七

日卒墓鶴峴堤下異  
坐

配密陽朴氏父鳳徵庚  
午生壬申二月二十

五日卒墓鶴峴東山  
卯坐

子思國

字忠彥

甲午生壬午十一月  
十一日卒

配驪江李氏父呈祖通  
政折衝將軍龍驤衛

副護軍希誠曾祖宜  
植外祖鶴州申道權

癸未生癸未十二月  
二十九日卒

子熙載

字而重

庚戌生十一月十一  
日卒

配海州吳氏壬子生

子學遠

生父熙周 字法喜

生養奉祀

憲宗戊申六月十二日  
生丁巳十二月二十

日卒墓花田洞山

配浙江張氏父觀垂庚  
戌八月十二日生己

巳十月十六日卒墓  
雙墳

子鍾瑤

見下

女李宗宇

全州人

女朴正煥

咸陽人琴隱成陽后

女朴凌成

咸陽人子基斗基奎

定憲公琴隱成陽后

女都赫龍洪斗欽

子熙周

字子

字文用 壽職通政  
大夫折衝將軍行龍  
驤衛副護軍

純祖乙丑五月二十日  
生壬辰十二月九日

辛享年八十八墓鶴  
峴堤下射場原

配淑夫人牛峯李氏父  
楨萬祖濡

純祖丁卯七月二十七  
日生辛卯二月十四

日卒享年八十五墓  
合祔

子熙贊

出思九后

女都悌元

星州人

子學周

字子

子顯周

子敦遠

字烈

子教遠

字烈

洛雲

子鼎台

癸卯生

配鐵城李氏父元伯墓  
失傳

維樟

字君見上  
一六

辛酉生

配咸陽朴氏父承大墓

配咸陽朴氏父承大墓

子思廷

字彥邦

女李命迪

星州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船放山 應雲

維佑 身引見上 一六

字周卿已亥生 一六 英祖丁卯生 配建城徐氏 船放山中坊

子鼎祥 習公 英祖丁卯生 配建城徐氏 達城人

維珏 身引見上 一七

字二玉 英祖戊午生 正祖乙卯四月八日卒 享年五十八 墓葛浦 谷卯坐 配永川李氏父折衝將 軍金知中樞府事應 翼墓同原良坐 配咸陽朴氏父震龜墓 花田洞凍谷山亥坐

子鼎禹 習公 字重直 英祖庚辰生丁丑十一 月十七日卒享年五 十八 墓佳音面大產 岩直谷子坐 配興城李氏父春郁壬 午生六月三十日卒 墓合附

子思贊 外勉 字致九 正祖丁巳五月八日生 丁酉五月五日卒享 年五十一 墓義城郡 春山面玉井洞紫山 陽地首谷叔母權氏 塋下左良坐 配金海金氏父如弼三 月十一日卒墓合附

子熙奎 習才 字應元 純祖甲申十月八日生 容貌端雅心小膽大 平生無難處之事鄉 族儕友莫不敬畏 戊戌三月十三日卒 享年七十五 墓義城 郡佳音面般岩山北 麓丘時田谷異坐 配驪州李氏父宅宇 純祖辛卯十月十五日 生己亥十月十六日 卒享年六十九 墓春 山面西齋洞內池下 右嶺辰坐

子熾基 習기 字聖守 哲宗己未十月十二日 生己卯六月十四日 卒墓佳音面縣里八 火洞內國時堂卯坐 配咸陽朴氏父祥宇戊 午生丁酉二月二十 七日卒墓佳音面玉 溪洞紫山甲坐有三 女

子鍾堡 一〇〇下 字應元

子鍾述 一〇〇下 江陵人子泰烈述烈

女劉炳龍 咸陽人子在述在學 在坤在極

女朴根煥 平澤人子炳坤女洪 觀根

女林春植 寶陽人子永春

女朴大鎬

女朴基煥 密陽人子朴致壽銀 山君永均后

子思誠 外勉 字允九 生父鼎首 四月四日卒墓花田 凍谷考塋後酉坐 配金海金氏父如弼八 月二十八日卒墓附 後

子益弼 外勉 字國卿 純祖戊子生六月十日 卒墓佳音面般岩北 麓丘時田谷異坐 配安東高氏父麟瑞十 二月二十日卒墓花 田洞大谷池上子坐

子宅基 外勉 字敬文 哲宗甲寅正月二十四 日生癸卯二月六日 卒墓花田洞凍谷亥 坐

女朴琰祚 月城人子朴斗曠斗 淳斗貞女鄭淳達崔 世賢金炳機

子鍾甌 一〇〇下 孝令人子司公燦

女蔡澤模 仁川人子蔡燦河燦 俊燦玉

子鍾坨 一〇〇下 見下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鼎休 外勉 字德重 丙戌生墓凍谷妣塋 左酉坐 配安東權氏父益星墓 春山面玉井洞紫山 首谷良坐

子燮基 外勉 字希文 哲宗己未正月二十五 日生己未五月二十 二日卒墓藏待洞紫 山放梅燈申坐 配驪州李氏父汶英己 巳生癸未三月十八 日卒墓乾塋下右側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子鼎興 정흥

字安重  
辛卯生墓春山面所  
郎洞長嶝卯坐  
配坡平尹氏父光燾墓  
所郎谷池右嶝巽坐

子思敏 시민

字明彦  
配固城李氏墓安平面  
松峴洞長嶝巽坐

子熙善 희선

字和仲  
戊午正月十八日生  
己巳四月二十四日  
卒享年七十二  
配義城金氏墓軍威面  
下谷洞共同墓地

子俊基 준기

字致文  
丁未三月二十八日  
生  
配宜寧南氏父熙鶴戊  
申三月生

子鍾秀 종수

辛未生

女尹光祚

坡平人父德身

女朴俊淳

咸陽人子柱履柱宇  
琴隱咸陽后

女朴泰鳳

龜山人子朴海植洪  
植源植女南錫柱柳  
淵正晦根

女權滄

安東人子權必大女  
李璵固城人李在衡  
真城人

女金正魯

女宋在浩

治城人

女鄭雲台

東萊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彩雲  
維漢 신현

字忠彦  
丁卯生壬子四月十  
二日卒墓院堂谷山  
西坐  
配姓失傳墓亮子洞巨  
頭嶝午坐

維轍 신현

字允中

女李寅綱

真城人父宗述景玉  
齋薑后子李敬坤

女柳志鼎

豐山人父進士東起

女權中玉

慶州人文簡公世嫡  
后子金奎房  
安東人自樂堂守經  
后子權汪

女都景魯

星州人青松堂磨后  
子都世鎬

子思學 사학

字斌日

子熙寔 희식

字養碩

子炯基 형기

字景瑞

子鍾烈

一〇見下  
七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庚子生丁卯二月二十七日辛墓院堂谷山庚坐  
配義城金氏墓旺是谷山巴坐

英祖丁卯生丙戌五月十七日辛墓旺是谷山巽坐  
配義城金氏墓全原

正祖甲寅生甲戌五月十七日辛墓院堂谷山丙坐  
配月城李氏墓義城郡義城邑業洞素山寅

戊寅生甲申正月十八日辛墓素山而所浪洞圓峯下酉坐  
配金海金氏甲戌生丁丑四月四日辛墓錦泉洞稷峴甲坐  
配安東權氏墓稷峴甲坐

哲宗戊午生癸亥三月二十六日辛墓義城郡風陽面  
配豐川任氏

女閔五植  
驪興人子閔丙大明智齋樞后

彩雲

維軾 身引見上一八  
字精一  
墓軍威峴西亥坐  
配姓失傳墓乾梧下同坐

子鼎相 正名  
字德三  
辛酉生丙辰五月十五日辛墓軍威峴乾坐  
配義城金氏墓雙墳

子思哲 사철  
字誠彥  
壬子生癸丑十一月十八日辛墓軍威峴乾坐  
配坡平尹氏墓附下

子熙傲 희우  
字聖道  
戊子生己未八月二十一日辛墓軍威峴子坐  
配慶州崔氏墓山雲面傳若谷山坤坐

子得基 득기  
字守若  
哲宗辛酉生壬申十二月二十四日辛墓風陽面蛇谷山卯坐  
配安東權氏癸亥生正月二十五日辛墓軍威郡上谷洞極樂山酉坐有二子三女

子鍾敬 一〇八  
子鍾澤 一一〇  
女金正冠 經  
慶州人子金準經大

望雲

維欽 身喜見上一九  
字汝敬  
英祖壬戌生  
正祖己酉卒  
配英陽而氏父墅墓失傳

子鼎烈 정열  
字維鐸  
生父維鐸

子思址 사지  
元祖李氏父會積祖元額會祖持平義學外祖陽城李光春

子熙夬 희규  
字而善  
純祖乙丑九月十三日生通政大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倉知中樞府事兼五衛將乙酉十一月十四日辛享年八十一墓藏待洞後癸坐

子周遠 子烈  
生父熙伯 字周卿  
哲宗辛酉生壬申十二月二十四日辛墓風陽面蛇谷山卯坐  
配安東權氏癸亥生正月二十五日辛墓軍威郡上谷洞極樂山酉坐有二子三女

女朴錫基  
春川人子朴鍾守鍾學鍾林鍾益鍾順鍾述

鵝洲中氏鷹巖公派世譜

五雲

維鐸 身引見上一九  
字汝振  
英祖己酉生庚子十二月十三日辛墓船放山西坐  
配安東權氏父以鎬上二月六日辛墓億谷板反山卯坐

子鼎萬 正名  
字君則  
英祖甲戌生五月七日辛墓軍威郡孝令面不老洞後自包谷乾坐  
配驪江李氏父鼎赫十一月十六日辛墓同原青龍嶺子坐

子思範 사범  
初諱思稷  
正祖乙巳生四月二十五日辛墓軍威郡孝令面不老洞自包谷考堂下乾坐  
配高陽殷氏父一夏十一月十三日辛墓安平面朴谷乾坐

子熙述 희서  
字而善  
純祖乙丑九月十三日生通政大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倉知中樞府事兼五衛將乙酉十一月十四日辛享年八十一墓藏待洞後癸坐

子贊遠 찬원  
字舜一  
憲宗戊戌生丁卯八月六日辛墓軍威郡廣峴洞德谷板番山壬坐有床石

子鍾善 一一一  
見下

女李春 真城人

女李會成 全州人

子正遠 正烈  
字舜瑞 號晚園  
通政大夫行鎮海縣監忠清水虞候  
憲宗辛丑三月二十八日生甲寅五月六日辛墓軍威船放山先登下酉坐有碑石

子鍾善 一一一  
見下

子鍾聖 一一三  
見下

女朴大植 龜山人子朴晚墳晚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女李維相

配淑夫人商山朴氏父  
彦佑己亥生庚子正  
月十五日卒墓鳳陽  
面花田武台山乾坐  
有床石有二子三女  
子鍾善出伯父贊遠  
后

子繼遠

字舜輔  
憲宗乙巳八月十三日  
生丁巳正月九日卒  
墓新坪洞索山坐  
有床石  
配月城朴氏父益祥庚  
戌生十二月十九日  
卒墓醴泉有三子一  
女

子鍾學

見下

子鍾七

見下

子鍾泰

見下

女李鉉泰

延安人子李東永

女李章國

莞女徐 李章之  
李運額

女權普淵

安東人進士子權楠  
壽達壽

子熙伯

字叔祚  
二月十六日卒墓善  
山郡長川面梨峴子  
坐有床石  
配月城李氏父相佑二  
月二日卒墓藏待索  
山金長山庚坐有床  
石有四子

子弘遠

字岐瑞  
丁巳生壬申五月二  
十四日卒墓鳳陽面

子鳳遠

見下  
威陽人子承國

子鍾泰

見下

女吳錫禧

威陽人子承國

子熙福

字汶善  
癸酉生庚午卒墓安  
平朴谷陽地乾坐  
配星州郡氏父宅龜甲  
戌生庚午卒墓合芝  
無子女

子弘遠

字聖集  
憲宗己酉生乙丑十二  
月二十九日卒墓金  
城面立石索山丁坐  
配南陽洪氏丙午生甲  
子十二月二十六日  
卒墓乾堂下附有一  
子二女

子鍾有

見下

女金榮培

金海人父顯翼子鍾  
億鍾稷鍾九

女權秉琳

安東人子寧福

子熙喆

字兩吉  
戊辰十二月一日卒  
墓軍威船放山先塋  
下西坐有床石  
配岳林洪氏父嘉喜大  
夫同知中樞鎮熙祖  
贈戶曹參判宅明會  
祖恩國外祖全州李  
光吉敬齋魯后三月  
十九日卒墓軍威不  
老洞自包谷丑坐有

子亨遠

字舜集  
哲宗辛酉十一月八日  
生己巳五月十二日  
卒墓塔谷先妣韓氏  
塋右庚坐有床石  
配永川李氏父淋在祖  
魯珍會祖天發外祖  
海平金熙性牛威世  
憲后甲子九月二十  
五日生甲辰十月十  
七日卒墓麗峴後山

子鍾晚

見下

子鍾億

見下

子鍾慶

見下

子鍾伯

見下

女朴周鉉

月城人子海歸女海  
州吳○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床石有一女  
配清州韓氏父楨裕祖  
光珠會祖命儀外祖  
南平文以重清平尉  
紀后壬寅生癸丑五  
月十九日卒墓藏待  
紫山塔谷庚坐有床  
石有三子

速射谷壬坐有床石  
有三子  
配金寧金氏父春瑞丁  
卯十月二十二日生  
五月二十六日卒墓  
塔谷西坐有一子二  
女

女柳珠植  
豐山人子榮和石和  
女本宗中○文忠公  
西厓成龍后

子明遠 別名  
字順八  
丁卯正月一日生壬  
子十二月十七日卒  
配商山村氏丁卯八月  
七日生戊子正月十  
七日卒墓在塔谷西  
坐有床石有一子五  
女

子鍾洛 見下  
一三二

女李光永  
延安人子萬洙

女李潤甲  
驪州人子聖根

女朴晚出  
龜山人子八基

女金龍鎮  
安東人子文煥

女殷璟基  
幸州人子鍾泰

子攸遠 別名  
字順七  
己巳三月十九日生  
四月十八日卒墓失  
傳

子鍾八 見下  
一三三

子鍾呂 見下  
一三五

女南致烈  
英陽人子啓福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五雲  
維鉀 身見上一九

子鼎 習

女鄭

子鼎烈 習  
己卯生  
配楊氏父大春  
出維欽后

子鼎燧 習  
字君鑽  
丁丑生  
配東萊鄭氏父重泰墓  
失傳

子鼎煥 習  
字君實  
配東萊鄭氏父重泰墓  
失傳

子思任 習  
사임

女洪象林  
岳林人子洪璧永進  
永女昌寧曹錫典本  
宗中鍾應安東權秉  
奎

女金慶熙  
廣州人子金教興教  
永教敬

月十日卒墓度峴後  
山乾坐有二子一女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辛酉生  
配仁川蔡氏父允楫墓  
墓仙庵西坐雙墳

維錄 身見上  
字鳴大  
英祖丁未生  
正祖癸丑二月十二日  
辛墓板反洞後山西  
坐

英祖丁未生  
正祖癸丑二月十二日  
辛墓板反洞後山西  
坐  
配延安李氏父大白南  
溪輔后墓同原右

子鼎得 諱亨

子鼎履 諱이  
字謹叔  
英祖丁卯生戊辰五月  
二十七日辛享年六  
十二墓板反洞店谷  
池上右山巽坐

英祖丁卯生戊辰五月  
二十七日辛享年六  
十二墓板反洞店谷  
池上右山巽坐  
配英陽南氏父玳墓億  
谷齋舍後山乾坐

子思億 諱이  
字萬甫  
英祖己丑生乙卯三月  
二十四日辛墓安平  
面朴谷乾坐

英祖己丑生乙卯三月  
二十四日辛墓安平  
面朴谷乾坐  
配昌寧曹氏父胤平墓  
雙墳

子熙龍 諱昌  
初諱熙模 字士弘  
正祖癸丑五月十七日  
生乙卯六月八日辛  
墓板番洞上村復圓  
峴巽坐

正祖癸丑五月十七日  
生乙卯六月八日辛  
墓板番洞上村復圓  
峴巽坐  
配孝令司空氏父折街  
將軍行龍驤衛副護  
軍鎭墓板番洞後山  
甲坐

子大遠 諱元  
字汝元  
十二月六日辛墓億  
谷板反洞復圓峴上  
配光山金氏父通德郎  
祇教墓板項洞鷹巖

十二月六日辛墓億  
谷板反洞復圓峴上  
配光山金氏父通德郎  
祇教墓板項洞鷹巖  
公瑩右麓公性素根  
天事親至孝年甫十  
歲母夫人病思驚湯  
時值隆冬川澤腹堅  
履冰號泣一驚出於  
沙陸進供病愈里有  
饋肉則每懷奉親及  
遭母喪廬墓三年號  
泣不絕繼之以血行  
路隕淚父喪廬墓三  
年一如前喪而親在  
嘗嗜西瓜故種成於  
墓廬之側秋霜冬雪  
不敢萎枯以供三年  
朝夕之奠

子鍾應 一見下  
三六

子鍾英

子嘉遠 諱  
出熙采后

子聲遠 諱  
出熙采后

子鍾浩 一見下  
三七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思翊 諱이  
字翼汝  
甲午生甲午五月二  
日辛墓安平面蟻谷  
九鳳山下巽坐

甲午生甲午五月二  
日辛墓安平面蟻谷  
九鳳山下巽坐  
配密陽朴氏父聖源墓  
合祔

子熙範 諱범  
配龍宮全氏父聖規外  
祖慶州金龍瑞癸亥  
生墓失傳

配龍宮全氏父聖規外  
祖慶州金龍瑞癸亥  
生墓失傳

子熙宅 諱宅  
出叔父思憲后

子熙成 諱成  
純祖己卯生壬辰正月  
十二日辛享年七十  
四墓蟻谷九鳳山巽

純祖己卯生壬辰正月  
十二日辛享年七十  
四墓蟻谷九鳳山巽

子聲遠 諱遠  
生父熙龍 字汝亨  
二月十一日辛墓板  
番洞復隱峴子坐原

生父熙龍 字汝亨  
二月十一日辛墓板  
番洞復隱峴子坐原  
配密陽朴氏墓先齋後  
壬坐原有二子一女  
子福昌

子鍾達 一見下  
一四一

子鍾震

女表寅根

子鍾虎 一見下  
一四二

女金熙雲

光山人父憲相子墓

子鍾彥 一見下  
一三九

女金憲相

光山人子金熙雲

字汝翼  
純祖戊寅生乙未正月  
六日辛享年七十七  
墓板番山先齋後乾  
坐

純祖戊寅生乙未正月  
六日辛享年七十七  
墓板番山先齋後乾  
坐  
配密陽朴氏父相云風  
峰漢男后墓同麓同  
坐

女朴禹欽

女李明燦

清州人子朴永祐永  
祐永祐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坐  
配慶州金氏父宗錄已  
丑生庚子三月二十  
六日卒墓板及谷末  
溪磴午坐

配永川李氏十二月十  
一日卒墓先齋舍後  
乾坐

元基恭

女南萬祐

英陽人

女李善綱

真城人子李義坤

女金在河

金海人金珽錫

女張烈武

浙江人

子鎮遠

生父照列 初諱駟

達 字明七

憲宗壬寅生丙戌七月

十七日卒墓安平面

新安洞店洞庚坐

配海州吳氏父曠鶴庚

子生己卯三月二十

日卒墓安平面蟻谷

芝深谷

子鍾鎬

見下 一四三

女金元淳

安東人子金相根

女張龜洛

浙江人子張相韓相

女金璇鍊

一善人子金河龍河

女李暎秀

固城人子李庭孝範

五洪五

子思憲

外孫

子熙宅

生父思翎

純祖甲子生正月十八

日卒墓板反山先塋

下

配光山金氏父潤世外

祖真城李平淳丁卯

生墓

子鎮遠

生父照列 初諱駟

達 字明七

憲宗壬寅生丙戌七月

十七日卒墓安平面

新安洞店洞庚坐

配海州吳氏父曠鶴庚

子生己卯三月二十

日卒墓安平面蟻谷

芝深谷

八雲

維鏡

字明見 見上 二〇

英祖庚戌生壬子十一

月十六日卒墓板反

後山乾坐

配永川李氏父後宗十

二月二十日卒墓雙

墳附右

配龍宮全氏二月二日

卒墓防城谷堤內子

女南鏡龜

英陽人父珪

女朴祥國

咸陽人子朴履健

子鼎一

字君元

英祖壬子生

配咸陽朴氏父楸

子思謹

字道成

三月二十二日卒墓

馬轉後山乾坐

配真城李氏父元圭正

月十九日卒墓馬轉

紫山丙坐

配李州殷氏父國梅十

一月二十九日卒墓

防城谷亥坐

子思敬

字道成

三月二十二日卒墓

馬轉後山乾坐

配真城李氏父元圭正

月十九日卒墓馬轉

紫山丙坐

配李州殷氏父國梅十

一月二十九日卒墓

防城谷亥坐

子思道

字道成

三月二十二日卒墓

馬轉後山乾坐

配真城李氏父元圭正

月十九日卒墓馬轉

紫山丙坐

配李州殷氏父國梅十

一月二十九日卒墓

防城谷亥坐

子熙祿

字盛求

八月二十八日卒墓

馬轉後山子坐

配全州李氏父孟春十

一月二十七日卒墓

馬轉岩地谷子坐

子熙從

字從久

純祖己丑生四月十五

日卒墓馬轉岩地谷

壬坐

子湖遠

生父熙從 字慶元

哲宗辛酉生辛酉六月

八日卒墓安平面開

城谷草田磴乾坐

配義城金氏父熙龜十

月五日卒墓安平面

馬轉洞後山子坐

配載寧李氏父哲榮辛

未生卒墓開城谷草

田磴乾坐

子湖遠

出伯父熙盛后

子鍾元

見下 一四四

子鍾律

出南遠后

子鍾化

見下 一四五

女鄭喜秀

東萊人

女張泰巖

浙江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配安東金氏父道慶乙  
已七月十四日卒墓  
馬轉場岩壬坐

子南遠 字必遠  
十一月七日卒墓安  
平開城谷草田嶺  
乾坐

子鍾律 見下  
一四七

配星州都氏十一月七  
日卒墓同原

子銅遠 字敬遠  
辛巳生戊午四月二  
十六日卒墓釜山青  
鶴洞後山

子鍾久 見下  
一四七

配安東金氏墓馬轉洞  
紫山丙坐

配星州都氏父聖浩戊  
子生丁未一月二十  
日卒墓釜山堂甘洞

子立遠 字敬之  
丙子生己亥八月二  
十七日卒墓馬轉洞  
岩地谷壬坐

子鍾獻 見下  
一四七

配海州吳氏父泰運乙  
亥生壬戌正月二十  
七日卒墓角谷先堂  
下壬坐

女都正漢

子熙東 字熙仲  
丙申四月二十四日  
生辛亥四月二十八  
日卒享年七十六墓  
馬轉角谷乾坐

配安東金氏父益欽祖  
柄瑚會祖景春外祖  
光州金奎都丁未十  
一月三日生丁未三  
月九日卒墓防城谷  
堤內子坐

子熙文 字錫英  
己亥生

配慶州李氏父柱臣

子琪遠 星州人子都甯浩重  
浩  
初名明遠 字德一  
丁丑六月九日生

配東萊鄭氏父朝仁戊  
戌三月一日生

子鍾道 香三  
戊辰三月六日生

子鍾重 香考

子熙年 字重秀  
甲辰十一月二十日  
生己亥十一月二十  
一日卒墓報恩郡三  
井面柿木洞書堂洞  
庚坐

配安東權氏乙卯二月  
二日生丙午四月十  
八日卒墓合祔

子貞錫 字應三  
戊寅九月十七日生

配務安朴氏乙酉生甲  
辰三月十四日卒墓清  
州郡琅城面培山洞  
壬坐

子泰善 丁巳十二月十一日  
生

子泰連 乙丑九月六日生

女下南珠 草溪人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八雲

維錠 身習見上  
字君集 二〇

丁巳生癸丑卒墓板  
反後山子坐

配一善金氏父達聲墓  
合祔

女鄭來昌 清州人

女李漢東 興海人

維塗 身習見上  
字明遠 二〇

丙寅六月二十四日  
生癸酉卒墓比安玉  
蓮寺後內西坐  
配高敬吳氏父叔麟九  
月五日卒墓鶴峴村  
前甲坐

子鼎瑞 字漢寶  
癸丑生

配慶州崔氏墓義城郡  
鳳陽面鶴峴已坐

女洪宅述 南陽人

子思哲 初諱思魯 字安了  
戊寅生墓義城郡鳳  
陽面龜尾丙坐

配月城李氏墓比安玉  
蓮邊

子熙年 字重秀  
甲辰十一月二十日  
生己亥十一月二十  
一日卒墓報恩郡三  
井面柿木洞書堂洞  
庚坐

配安東權氏乙卯二月  
二日生丙午四月十  
八日卒墓合祔

子貞錫 字應三  
戊寅九月十七日生

配務安朴氏乙酉生甲  
辰三月十四日卒墓清  
州郡琅城面培山洞  
壬坐

子泰善 丁巳十二月十一日  
生

子泰連 乙丑九月六日生

女下南珠 草溪人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維錫 字汝伯 見上

英祖己酉七月二日生  
正祖戊午四月二十七  
日辛墓院旨松亭生  
員登南丑坐有床石  
配永川李氏父通德郎  
文天敬亭氏歲后庚  
戌生癸丑四月十九  
日辛墓青松郡安德  
面晚壽亭西橫谷辛  
坐有床石

子鼎漢 字紀元

英祖甲戌生  
正祖甲辰十一月二十  
二日辛墓院旨松亭  
巽坐  
配羅州丁氏父通政大  
夫金正台應四月二  
十六日辛墓新寧面  
槐亭里開谷山坤坐

子思默 字會仲

正祖丁酉生乙卯三月  
十日辛墓院旨松亭  
艮坐  
配梁山李氏父重變祖  
梅會祖命聖外祖金  
海金致龍丁酉生十  
二月五日辛墓同原  
乙坐

子熙緝 純祖甲子生十二月二  
十九日辛墓院旨村  
前癸坐

配月城朴氏父顯幹祖  
鼎臣會祖生員天佑  
外祖麗興閣繡織己  
巳生五月十四日辛  
墓合附

子永基 憲宗戊戌生四月十日  
辛墓院旨村前

配全州李氏父魯凡祖  
時福會祖道華外祖  
尚山朴尚謙庚子生  
墓雙墳

子聖基 憲宗戊申生戊子二月  
十六日辛墓院旨村  
前

配坡平尹氏父鶴圭七  
月三日辛墓雙墳  
配盆城裴氏父李厚甲  
子生甲子六月十九  
日辛墓安平面月村

子重基 哲宗癸丑四月十六日  
生甲寅正月二十九  
日辛墓沙火洞索山  
坤坐

配密陽朴氏父天俊壬  
戌四月二十六日生

子益明

子昌基

子鍾錄 一見下

子鍾祐 一見下

子鍾福 一見下

子鎬淳 一見下

子鍾太 一見下

子縉錫 一見下

子縉鎬 一見下

女李鍊相 驪州人子李溫極沂  
極吳極守極

子鍾五 一見下

子鍾煥 一見下

女洪瓛燮 南陽人

女李元奎 真城人松安君子脩  
后子李在洛世洛啓  
洛守洛

女任亨淳 豐川人進士學洙孫  
剛窩必大后子任達  
植承彬範彬

女鄭衡洛 東萊人子鄭極純極  
祀極必

女李振宇 全州人子李奉儀性  
儀

子鍾萬 一見下

子鍾百 一見下

女金成淵 義城人子金柄武柄  
克女申鍾宇南錫奎

子允基 字聖謙 憲宗甲辰十一月十一  
日生乙卯四月二十  
六日辛墓泉谷巳坐  
配金海金氏墓花田堤  
内子坐

字致寬 純祖戊寅七月三日生  
癸未十一月十三日  
辛墓鳳陽面安谷堤  
内石城右乾坐

字琪彥 憲宗戊戌十二月二十  
三日生戊戌正月十  
一日辛墓花田洞池  
内乾坐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配坡平尹氏父奎棟壬子八月十四日生甲子六月十六日卒墓泉洞齋舍谷卯坐

女權鍾國

安東人子權承穆

女金五奎

安東人子金哲鎮榮鎮

女鄭源善

草溪人子鄭德永

女李允坤

真城人松安君子脩后子李元七

子錫基

字文觀 號龜圖 憲宗丁未四月二十四日生己巳十月十二日卒享年八十三墓義城郡鳳陽面鶴峴

子相鎬

見下一六三

子定鎬

見下一七〇

女鄭鎮協

鳥山人剛毅公湖史祖墜下巽坐有床石 李泓久

女柳時建

豐山人文敬公謙庵雲龍后子柳成夏璉夏相夏承夏宣夏女金浩鎮

女柳大榮

墓合附

子鼎首 字聖源 初諱鼎國 英祖庚辰正月二十四日生己巳十一月十五日卒墓義城郡鳳陽面院旨松亭丑坐有床石 配月城李氏父嘉善大夫折衝將軍會知中樞府事慶洛一云景洛甲申四月十日生癸卯八月九日卒墓義城郡安平面石塔平橋洞陽地山主簿公瑩西邊亥坐有床石

子思宅 字內則 正祖壬寅九月一日生辛亥八月五日卒墓鳳陽面鶴峴洞巽坐有床石 配延安李氏父奎驥祖延裕會祖爾溲南溪輔后丙申七月二十日生庚寅三月二十日卒墓院旨松亭艮坐有床石

子益修 字德彥 純祖己卯七月二十五日生癸亥二月二十四日卒墓安平面石塔洞紫山丁坐有床石 配豐山柳氏父護軍進一祖華祚會祖建春文敬公謙庵雲龍后外祖安東權以度壬申五月十七日生戊辰正月二十七日卒享年八十七墓義城郡鳳陽面花田洞大三峯下壬坐有床石

配永川李氏父鼎在祖魯書會祖榮發忠簡公紫岩民寅后外祖安東權中諱甲辰正月九日生乙丑六月九日卒享年八十二墓合附

子思周 字 正祖辛亥生壬寅二月二十九日卒墓義城郡鳳陽面吉泉洞鷹巖谷辰坐 配開韶金氏父達源乙卯生四月十三日卒墓安平面石塔洞桃

子益欽

字吳若 純祖辛巳十一月五日生癸未十二月三十日卒享年六十三墓鳳陽面泉洞鷹巖谷辰坐

女張佑圭

仁同人子張錫根〇根鶴根

女洪叙九

南陽人西潭璋后子洪斗燮

女朴泰德

龜山人子朴垣植桐植女洪淵玉蔭〇

女洪機燮

南陽人西潭璋后子洪在祚在祺在祐女張永珏

子德基

字潤弼 憲宗戊戌九月二十六日生戊子二月七日卒墓鳳陽面吉泉洞鷹巖谷辰坐

配咸陽朴氏父大達祖弘吉會祖來哲琴隱咸陽后外祖丹陽禹

子鍾國

見下一七三

女鄭賢愚

晉陽人子鄭東春史敷東駿東德女趙洪衙序二

女趙性器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木谷茂坐  
配李州殿氏父成萬壬  
中生九月九日卒墓  
花田洞大三峯中層  
西坐

輔后外祖申鼎夏祭  
酉生戊戌九月二十  
七日卒墓鳳陽而吉  
泉洞鷹幕谷乙坐有  
一子

文繼己亥十月十日  
生庚午十月一日辛  
享年九十二墓吉泉  
洞鷹幕谷卯坐

咸安人子趙銀奎  
序三

女朴圭鎮

江陵人子朴正姪女  
盧永隱  
序四

女全在鳳

龍宮人翁坡元發后  
子全周錫大錫萬錫  
守錫元錫女任守形  
序五

子定鎮

慶州人子金琪燮女  
李成煥

女金達俊

慶州人子李光來光  
吳

子圭鎮

一七六  
見下

女李範相

哲宗甲寅生正月二十  
一日卒墓花田洞川  
邊仙郎堂乙坐有床  
石  
配宜寧南氏父履祚祖  
有漢會祖宗儒外祖  
坡平尹行豫乙卯生  
丁卯五月八日卒墓  
合葬

子碩基

配咸陽朴氏六月十四  
日卒墓同原

子哲基

憲宗戊申生二月二十  
七日卒墓漆谷大三  
峯東麓西坐

配咸安趙氏父基靖戊  
寅生九月二十五日  
卒墓鳳陽而吉泉洞  
鷹幕谷乙坐

配順天朴氏父承休祖  
麟煥會祖守謙文穆  
公可實后外祖義城  
金世杞己丑正月十  
二日生卒丑十月四  
日卒墓安平而桃山  
洞店谷山已坐有床  
石有四子一女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益彬

字士文  
純祖甲午生七月十七  
日卒墓花田洞大三  
峯原  
配碧珍李氏父炳奎祖  
震僊會祖安命靖簡  
公孟尊后外祖昌原  
黃宅坤五月二十日

子相堉

字達三  
生父益欽  
哲宗庚申生乙卯八月  
六日卒墓花田洞後  
大三峰祖妣殷氏  
左戌坐  
配溇州都氏父世錫乙  
卯生戊辰六月二十  
二日卒墓合葬附西

女李太植

永川人子李炳起女  
金柱天柳元善殷繚  
杓

子榮基

字化伯  
哲宗戊午生丁未四月  
十七日卒墓花田洞  
武台山辛坐有床石  
配浙江張氏父益規祖  
華漢會祖重台外祖  
密陽朴政福乙卯八  
月一日生戊寅七月  
十九日卒墓鳳陽而  
花田洞武台山同原

子西鎮

一七七  
見下

子并鎮

一七七  
見下

子鍾堉

出養墓后

子右鎮

一七八  
見下

女姜泰文

晉州人子姜基錫  
序五

子斗鎮

一七九  
見下

女權寧萬

安東人子權五信  
序一

女金璋喜

慶州人子金商龍  
序二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女李淇守  
驪州人子李永煥永伯女朴相守禮五略

子光鎬 一七九 見下

子命鎬 一八四 見下

女朴基肇  
咸陽人子朴東範東吉東昌東矩女李章輝康萬裕丁周燮

女都案鎬  
星州人子都聖弼青松堂后女李在利殷鍾盛朴耆福

女朴信祚  
月城人子朴斗甲斗東斗乙斗光柳村從男后女申榮準申龍

子鴻基 一七九 見下  
字聲遠  
憲宗丙午八月十一日生丙戌三月二十日卒享年四十一墓義城郡安平面龍泉洞川邊坤坐  
配宜寧王氏父鎰兼祖信圭凝溪浩后

子益命 一八四 見下  
字和叔  
純祖戊子二月二十日生  
高宗丙戌二月十八日卒享年五十九墓義城郡安平面金堂洞後大峯上壬坐

子思遠 一八四 見下  
初諱赫周字允之號鳳舞堂 有琴書自娛筆書墨于三峯下日事文詞手抄遺史為後孫之要覽  
正祖乙卯生  
憲宗癸卯七月一日卒墓義城郡鳳陽面花田洞凍谷堤內大三峯下壬坐  
配丹陽高氏父益縉祖錫瓊會祖舜諧外祖豐基泰彥明丁巳生辛卯四月十五日卒墓花田洞凍谷堤下壬坐  
配永川李氏父通德郎貞復祖夢麟會祖載天外祖月城李益興癸酉生三月十二日

女南元鎮  
英陽人子南大淳

子性基 一八四 見下  
字道彥  
哲宗辛亥十月二十七日生甲子三月二十八日卒享年七十四墓鳳陽面花田洞遊磴下乾坐  
配驪州李氏父載燁祖宅健會祖宗詰白雲堂奎報后外祖密陽朴東浩  
哲宗甲寅四月二十四日生戊寅十月十七日卒墓同原雙墳

子載基 一八四 見下  
字聖日  
哲宗乙卯十一月十六日生丙寅九月十日卒享年七十二墓花田洞凍谷堤內大三峯下祖塋下壬坐  
配延安李氏父寅熙南溪輔后丙辰生戊寅九月十日卒墓雙墳  
配成陽朴氏父基學祖華成琴隱成陽后  
哲宗壬戌七月十五日生十二月二十一日卒墓同原公塋下乾坐

坐 卒墓禹氏西聯墳同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女朴詔九  
商人子朴能國能浩貞肅公安信后女

女吳約洙  
海州人子吳相周相漢相武相禹女朴

子京鎬 一九一 見下

子進鎬 一九一 見下

子敬鎬 一九二 見下

子仁鎬 一八八 見下  
信川人父康斗然子康鎮國鎮鏞鎮夏女申碩守孫著憲

女朴震東  
順天人父朴海敷子魯甲魯煥魯祐文穆公可實后女申普遠

申彰鎬  
序四

女洪武龍  
南陽人子洪泰植西  
潭璋后

子泰鎬 一九三  
見下

子錫鳳 一九四  
見下

女金潤基  
一善人子金鑽東鎮  
萬序一

女金宗鎬  
金海人女金浩寅

子聖鎬 一九五  
見下

子鍾宇 一九五  
見下

子鍾休 一九六  
見下

女黃璋鉉  
昌原人子黃永杰永  
澤

子英基 영기

字德汝  
哲宗乙卯十一月十六  
日生壬戌五月十六  
日辛基花田洞武台  
山甲坐

配東萊鄭氏父雲祥壬  
戌生丙寅十二月二  
十八日辛基武台山  
西坐

子璟基 경기

初名燦基 字子建  
哲宗壬戌九月七日生  
庚辰二月二十八日  
辛基軍威郡德谷板  
反山齋宮谷北麓子  
坐

配慶州崔氏父榮柱辛  
酉五月二十七日生  
庚午八月二十八日  
辛基軍威郡德谷板  
反山齋宮谷北麓姑  
塋東癸坐

子思誠 사성

出鼎休后

子思近 사근

配高靈朴氏父致遠墓  
鳳陽面院旨村後路  
邊巽坐雙墳有床石  
後火葬

女朴永煥

密陽人龍巖雲后

女李斗綱

真城人松安君子脩  
后子李明坤周坤驥  
坤宜坤性坤鏞坤

子益禹 익우

生父思得 字友三  
純祖丁亥生墓軍威郡  
軍威邑薪城洞葉山  
坤坐  
配慶州金氏父東發外  
祖屏山朴來植丁亥  
生墓軍威邑內良葉  
山麓

子大基 대기

哲宗壬戌生壬申十月  
八日辛享年六十九  
墓火葬  
配延安李氏父英求祖  
大植曾祖慶浩南溪  
輔后丁巳生忌七月  
七日墓軍威郡召保  
面大興洞初試谷池  
內良坐

子世基 세기

字士顯  
乙丑生癸亥七月十  
八日辛墓軍威郡軍  
威邑內良洞共同山  
配慶州李氏父鍾麟益  
齋齋賢后辛酉生庚  
午十一月十七日辛

子鍾均 一九七  
見下

女朴相祚  
月城人柳村從男后

女洪淳萬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子鼎朝 性五

字性初  
英祖壬午生甲申二月二十九日卒墓鳳陽沙阜洞大谷山西坐配仁川蔡氏父仁福一云允休丁亥三月二十六日卒墓雙墳

子思得 性壽

字士謙  
正祖辛亥三月十日生己酉四月十二日卒墓鳳陽面龜山洞若下山良坐配順天金氏父麗海丙辰八月十四日生庚午八月三日卒墓合附有床石

子熙億 性以

字德九  
癸酉生己巳十一月二十六日卒墓花田凍谷壬坐有床石配咸陽朴氏父命基祖忠穆會祖春元琴隱成陽后甲戌生正月十九日卒墓雙墳有床石

女李鎮五

星州人府院君能一后子李性浩善浩學浩

子敬基 性紀

字聖和  
憲宗乙巳三月十二日生庚子十二月五日卒墓花田凍谷東邊壬坐有床石配南陽洪氏父宅亮西潭璋后憲宗庚子正月六日生丁未七月十二日卒墓鳳陽面沙邱洞末內山末坐

子鍾協

一見下

子鍾根

二見下

子鍾樂

二見下

子鍾植

二見下

子熙泰 性訓

字德五  
純祖壬午正月六日生壬午十二月七日卒墓鳳陽面花田洞武台山乾坐配碧珍李氏甲申四月十八日生甲申四月十七日卒墓沙邱洞間谷山西坐

子敬基 性紀

出伯父熙億后

子成基 性紀

字成集  
哲宗乙卯生壬寅九月二十四日卒墓花田洞小谷壬坐配慶州李氏父圭協癸

子鍾昊

二見下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得雲 維鑰 性見上

子鼎喆 性習

英陽人英毅公敬后子熙承熙中熙章女安東權營煥加平李在中陽山李孝發

子思訥 性壽

子熙績 性以

子益禹 性以

出思近后  
興海人臨淵齋三益后子裴道煥女申鶴遠

女裴亨模

女朴來鎮

商山人

女李寧鉉

麗州人父嘉善子永國永爽

子昊遠 性以

子鍾八

二見下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字開伯  
英祖乙卯生墓涑谷堤  
內大三峰下良坐  
配一善金氏父始亨墓  
堤內同原子坐

字漢瑞  
墓花田洞涑谷堤內  
中三峰下  
配羅州丁氏父碩運墓  
大三峰下

字舜則  
墓花田洞中三峰下  
壬坐有床石  
配月城崔氏父基東墓  
院旨雙邊里川邊子  
坐  
配豐山柳氏忌正月十  
五日墓花田洞小谷  
於里噓壬坐有床石

子熙吉 訓習  
出橫后

子熙壽 訓子  
丁亥生五月十二日  
辛墓  
配南陽洪氏父柄斗七  
月二十日辛墓花田  
堤內子坐

子吳遠 豆烈  
出伯父熙績后

子台遠 訓烈  
甲子生甲子十二月  
二十日辛墓花田洞  
山  
配順興安氏父中鎬甲  
戌生

子厚遠 耳烈  
庚午生庚申正月七  
日辛墓花田洞山

子鍾亨 見下一

子鍾弼 見下二

子鍾桓 見下二

子鍾三 見下二

女金根河 見下二

女金東煥 見下二

子鍾孟 見下二

子鍾仲 見下二

子鍾韶 見下一

子鍾九 見下一

子鍾吉 見下一

女金鎮億 見下一

子鍾詔 見下一

子鍾麟 見下一

子鐫錫 見下一

子鐫臣 見下一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得雲

維行 身習見上  
字君益 二一

辛未生墓義城郡鳳  
陽面花田洞小谷自  
來噓乾坐  
配咸陽朴氏墓雙墳

子鼎斗 習子  
字大受

癸卯生墓開慶郡龍  
岩面司馬谷戌坐  
氏墓義城郡  
新平面光山里座舍  
洞巴坐

子思勉 外明  
字聖從

丁丑生丙寅十二月  
十四日辛墓新平面  
法方洞辰坐  
配原州金氏父戴光祖  
象秋會祖重萬墓槐  
山郡延豐面柳上里  
陽山乾坐

女林瑞羽  
蔚珍人子林振

子熙源 訓烈  
字成一

丙午正月二十六日  
生乙未五月二十六  
日辛墓先妣堂下乾  
坐  
配慶州金氏父奎容丙  
午六月二十日生戌  
午十月十六日辛墓  
附右雙墳同坐

子泳基 習子  
生父熙規 字建中

戊子十一月十二日  
生  
配安東權氏父壹善祖  
用德會祖濟仁辛卯  
十一月十三日生丁  
巳十二月一日辛墓  
祖妣堂下乾坐  
配義城金氏父址洙祖  
道應丙申三月九日  
生

女李昌喜  
完山人子鍾訓鍾德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女鄭寅基

延日人子象鉉一鋪

子思應

字應守

戊申生墓金泉市院洞後山戌坐  
配交河盧氏墓院洞後山酉坐  
配成安趙氏

子熙永

字寬玉

癸卯生都事墓院洞後山午坐  
配星山裴氏墓墳同坐

子熙規

字明老

乙卯五月八日生  
配完山李氏父容守己未生戌戌十二月二十四日辛墓而陽山乾坐

女安圭錫

順興人子瑤鉉弼鉉

子泳基

字得水

出伯父熙源后  
配順興安氏父榮鎮祖教源會祖德良壬寅九月五日生

子瑛基

字敬和

戊戌十一月二十四日生

子鍾哲

字香翹

辛未九月十五日生

子鍾九

見下

子鍾赫

見下

子鍾泰

見下

子鍾烈

見下

女吳錫根

海州人子永煥

子聲遠

字得水

贈通政  
丁卯八月五日生壬午五月十六日辛墓金泉市校洞田二三九番地坐  
配一善金氏父進士乘坤墓高州郡功成面靈吾里山九三番地坐  
配慶州金氏父士有壬

子思義

字士昌

己丑生庚申二月十九日辛墓義城郡佳音面尺火村後巳尾山乙坐  
配開韶金氏父弘澤六月二十八日辛墓合祔

子熙世

字堯則

庚申八月二十七日生丁巳四月二十三  
日辛墓億谷鷹巖先祖塋左南麓三墳下壬坐  
配星州李氏父敬德戊辰五月四日生七月二十日辛墓

子淑遠

初諱龍基

字允一  
號石戶  
純祖戊子三月二日生丙申十二月二十三  
日辛墓義城郡金城面屯台洞後山先塋後亥坐  
配碧珍李氏父三奎丙戌正月二十七日生己丑十一月十七日  
辛墓鳳陽面藏待洞後山子坐  
配成陽朴氏七月二十一日辛墓鳳陽面藏待洞後山坐

子濟遠

初諱

女金濟興

義城人子相道相宇相赫女任禹淳李元景達永德鄭殷澤亦樂齋致寬后

子鍾斗

見下

子鍾鶴

見下

女李守坤

真城人子元鎬元培

女任錫宰

豐川人子益淳泰淳世淳女朴周營

女金熙遠

海平人子在日在瀨在武在錫

女金繻輝

義城人父拓庵道和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子鍾漢

見下  
二二七

字衛賢  
丙申八月二十七日  
生壬寅四月二十一日  
卒墓年咸豐軍威  
而德樂村後卒坐  
配達城裴氏父益鳳癸  
巳十月二十九日生  
癸酉二月十三日卒  
墓繼繼佛堂曜乾坐  
配真城李氏丙辰五月  
六日生

子浩遠

出照贊后

子治遠

字周一

劉劉

子鍾河

見下  
二二八

子鍾洛

見下  
二二九

子鍾喆

見下  
二三〇

女金壽大

安東人子氣鍾女李  
鉉

女任翊鎬

豐川人子直宰正宰  
讀宰疏宰女張米龍  
中基恒南英佑徐鍾  
寬

女黃三錫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賽雲

維義

字平仲  
見上  
二二

配咸陽朴氏父致大

子鼎翰

習勉

女朴祥敦

子鼎欽

習喜

配達城徐氏父惟誠  
生父維喜

女權以度

安東人

女李震茂

碧珍人耕隱孟專后  
父安命

女李光錫

延安人

女李岳銓

碧珍人父炳奎耕隱  
孟專后

女殷成泰

高陽人

女李鍾煥

長水人子八洙  
金州人子歲求英求

霽雲  
維善 身見上  
字明仲 二二

英祖戊午生戊午卒墓  
巢野放鶴洞直川山  
丙坐  
配咸陽朴氏父慶悛墓  
遠坪子坐

子鼎欽 諱容  
出伯父維義后

子鼎益 諱익  
字國弼

通政大夫倉樞士辰  
生四月十一日卒墓  
青松郡縣西面月亭  
河後西坐  
配光山金氏父致龍乙  
未生七月八日卒墓  
放鶴洞水溪山異坐

子思教 諱교  
字汝長

正祖乙卯生十月八日  
卒墓永川郡慈川面  
通長谷素山亥坐  
配永川皇甫氏父汲甲  
寅生八月二十四日  
卒墓岩洞素山異坐

子熙燦 諱찬  
字光之

純祖甲戌二月十五日  
生癸丑十月十日卒  
墓細谷卯坐  
配開韶金氏父昌壽乙  
亥生墓合附

子復遠 身見  
字順章

生父熙俊  
憲宗甲辰生十二月二  
十八日卒墓細柳谷  
卯坐  
配島川鄭氏父鍾奎九  
月十六日卒墓合附

子鍾局 見下  
二三一

女全敬夏  
龍宮人子金呈變知  
變秋變女李夢符李  
起鳳

女朴文燮  
咸陽人

女許湜  
金海人子許華

子熙俊 諱후  
字釋之

戊寅生辛卯十二月  
二十二日卒墓遠坪  
野三磴子坐  
配永川李氏父載權五  
月十日卒墓細谷冠  
後山卯坐  
配月城金氏父聲應癸  
巳生乙卯四月二十  
日卒墓乾位雙墳

子復遠 身見  
出伯父熙燦后

子德遠 諱원  
字慶璋

哲宗甲寅生四月七日  
卒墓古老面鶴岩洞  
水溪山異坐  
配綾城具氏父宰澤己  
未生七月八日卒墓  
合附  
配仁同張氏父春水甲

子鍾億 見下  
二二二

女金相博  
金海人子金聖

女朴魯鳳  
順天人

子守遠 諱원  
字右仁 號鶴休

哲宗己未十月十一日  
生天姿溫公篤實具  
心撫孤恤貧貸糧無  
數壽職通政壬申十  
二月二十八日卒墓  
鶴岩洞細谷甲坐  
配金海金氏父斗性壬  
戌生丁未十二月一  
日卒墓水溪山午坐

子鍾局 諱구  
出復遠后

子鍾寅 見下  
二三四

子鍾漢 見下  
二三五

女皇甫玷  
永川人子皇甫春皇  
甫日皇甫辰

女尹炳機  
坡平人子尹九瑞鉉  
瑞大瑞

女趙台領  
咸安人

女曹奎龍  
昌寧人子曹正鎬

子鍾栗 見下  
二三六

女金成壽  
清道人子金泰奉鳳  
根元出

子啓遠 身見  
字慶來

甲午六月二十九日  
生八月十六日卒墓  
茅田谷酉坐  
配月城崔氏父奎運九



子洪遠 喜烈  
字慶三  
月六日卒墓合附

丙寅生六月九日卒  
墓火葬

配 番禺姜氏父安秀祖  
永樞曾祖敦錫丙寅  
生己巳卒墓岩洞冠  
越山良坐

子鍾周 見下  
二三六

子鍾成 見下  
二三六

女李畢熙 見下  
月城人子李在伯在  
和在壽

女李範教 見下  
全州人子李鍾琪女  
金祿銀

女曹秉國  
昌寧人子曹元煥述  
煥在煥

女李章翰  
永川人

女林泰植  
平澤人子林炳玉女  
朴應煥金銀台李元  
和

女朴魯圭  
密陽人子朴鎮在永  
在泰在

子望遠 喜烈  
字雲日  
配 金寧金氏父玟圭

子鍾海 見下  
二三七

子佐鎬

子熙傑 喜烈  
字元之  
配 慶州李氏父植奎松

女朴七淳  
咸陽人子朴相衡相  
義相泰

女金養聲  
義城人子金鎮河景  
河星河

子熙泳 喜烈  
字德文  
丁亥生六月五日卒  
墓茅田谷辛坐

配 咸陽朴氏父桂文甲  
子生五月三十日卒  
墓合附

子景遠 喜烈  
字應瑞  
癸丑十一月二十一日  
日生十二月二日卒  
墓岩洞小作谷良坐

配 月城金氏父秀鎮已  
巳生丙子二月六日卒  
墓青松普賢山都  
小南子坐

子鍾聲 見下  
二三七

子鍾起 見下  
二三八

女金支鉉  
光山人子金永祚永  
珠

子逸遠 喜烈  
字春瑞  
丁巳二月二十四日  
生戊午二月二十五  
日卒墓火葬

配 密陽朴氏父在遠庚

子鍾巖 見下  
二三八

女朴鍾植  
月城人子朴進善

岡希楨后

出在遠后

女孫永文  
月城人子孫秀澤秀  
煥女權赫附

子思富 喜烈  
字汝華  
丙寅生丁未十二月  
二十五日卒墓放鶴  
洞細谷午坐

配 密陽朴氏父宗真甲  
子生十月十六日卒  
墓青松郡西面迷伊  
嶺丙坐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子熙敬 字致化

丁未生十月五日卒  
墓古老面鶴岩洞西  
山中層  
配月城李氏父斗而辛  
亥生四月五日卒墓  
古老面鶴岩洞北便  
山中層

女孫楨寧

一直人子孫敬一敬  
五

女朴海坤

順天人文穆公可實  
后子朴暉東

子思儼 字贊

子熙東 字致大

配月城金氏父和應  
庚申生

子應遠 字致大

丁亥八月八日生九  
月十八日卒墓失傳  
配月城李氏父鍾秀三  
月二十九日卒墓月  
城郡西面阿火里深  
谷共同墓地  
女朴晉榮  
月城人子朴允祚女  
金千準鄭雲薰

子鍾伊 見下

子鍾泰 見下

子鍾春 字致大

女朴基永

務安人子朴聖泰元  
泰景泰女李鍾武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子思錫 字贊

子熙個 字贊

女韓星七

清州人子韓國彥

子範遠 字贊

乙酉生  
配月城崔氏

子鍾石 字贊

子鍾珏 字贊

子鍾琦 字贊

女姜永壽

晉州人

子思伯 字贊

女權大衡

安東人子在直在貞

女柳星樞

文化人

女蔣永幹

牙山人

女朴顯文

咸陽人琴隱咸陽后

子思穆 字贊

女崔鶴東

慶州人子崔聖學

子熙聖 字贊

子道遠 字贊

子鍾萬 見下

二四〇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墓彌坪壬坐  
配驪州李氏墓彌坪甲  
坐

墓古老面獐項回谷  
庚坐  
配清州韓氏墓放鶴後  
山子坐

生父思弘 字敬祇  
高宗丙子十一月二十  
六日生辛亥八月十  
三日卒墓樂田洞後  
山子坐  
配坡平尹氏父永祥甲  
子九月十三日生辛  
巳十二月十二日卒  
墓火葬

字德明  
壬辰九月十四日生  
辛丑六月三日卒墓  
樂田洞後山四五  
一番地  
配咸陽朴氏父鍾心甲  
午十一月三日生丙  
寅六月七日卒墓樂  
田洞後山四五  
一番地  
向有二男

子鍾澤 二四〇見下  
子鍾潤 二四一見下

配慶州金氏父泰奉命  
後癸丑(一九一三  
)一月二十八日生

子教遠 立剗  
字道明

己亥十月二十四日  
生乙卯十一月二十  
八日卒墓達城郡多  
斯面教會山一〇五  
番地西坐  
配寶城吳氏父相寅庚  
戌三月八日生甲子  
(陰)十月二十三  
日卒墓達城郡多斯  
教會山西坐卯向

子鍾喆 二四二見下  
女梁基錫 南原人

女河正石 晉州人子慶姬慶用

女金永泰 金海人父孝在子日  
映東映康映允映映  
恩

女田相寶 泰山人父舜九子知  
惠成南

粟雲

維格 身見上  
字致彥 二二  
癸丑生  
配達城徐氏父恒進

女金宗肅 月城人

女孫敬祖 慶州人

女金遠明 平康人

女朴宗源 潘南人

女南龍海 英陽人

子思倫 外是  
子思弘 外喜  
初諱思規

墓放鶴洞後子坐  
配高敞吳氏墓屏岩寺  
谷千坐

子熙聖 外昌  
出伯父思穆后

女韓宗夏 清州人子一鉉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夏雲

維世 身見上二四

生父澤雲 字持叔 墓失傳 配岳林洪氏父壽德墓失傳

子鼎萬 字成滿

初諱鼎滿 庚子生辛丑六月三日辛墓泉洞池內西坐 配玉山張氏庚子生戌申十二月三十日辛墓泉洞村後亥坐

子宇根 字植汝

壬戌生丁卯十二月九日辛墓石塔戌坐 配延安李氏癸亥生庚申二月九日辛墓石塔戌坐

子翼奎 字景元

戊子二月三十日生 丁丑二月三十日辛墓石塔乾坐 配安東權氏戊子九月二十二日生甲戌八月二十六日辛墓泉洞池內亥坐

子羽振 字繩汝

戊午三月一日生戌午十一月二十五日辛墓泉洞池內乾坐 配清州韓氏戊午正月十三日生辛未十二月十八日辛墓石塔亥坐

子鍾權 見下二四

河夏

維鑽 身見上二五

字孟堅 癸丑生丙辰十二月七日辛墓鳳陽面龍生山亥坐 配安東權氏父得鍊十一月二十九日辛墓鳳陽面龍生山右谷乾坐

子鼎光 字士近

生父維鑽 庚子生癸巳正月十七日辛 配海平金氏父琇庚子生甲午三月六日辛

子祖三 生父鼎潤

聞詔人父龍翼

女金應極

配密陽朴氏父而煥祖 翰世松堂英后壬子生六月十二日辛墓 同原乾坐附右

女趙錫範

漢陽人父起良

女朴光

女朴漢年

維銓 身見上二五

子鼎光 字伯父維鑽后

丁卯生己巳九月四日辛墓鳳陽面三丁 公甲坐

子鼎潤 字魯遠

甲辰生癸巳辛墓龍生山西坐 配真城李氏墓龍生山西坐合附

子祖三 出鼎光后 真城人

子熙哲 字伯濬

戊午正月六日生丙申辛墓德谷板反山先妣塋下丙坐 配成陽朴氏墓合附

維鍵 身見上二五

字開彥 庚子生戊寅二月九日辛墓鳳陽面分明河後山先妣塋同麓 良坐 配全義李氏父昌義祖 生員夏行會祖文深 外祖光山金錫胤丙申生辛亥五月一日辛墓安平面石塔山丙坐

子鼎燮 字魯遠

甲子生戊申正月十一日辛墓德谷板反山未坐 配西原鄭氏父重燦祖 大年會祖一周外祖 安東金景海壬戌生 乙亥二月三日辛墓 鳳陽面新禮洞中里 寮山乙坐

子祖永 字子休

甲午八月九日生丙申七月五日辛墓德谷板反山未坐 配英陽南氏父亨鐸祖 躋會祖中樞之兼外 祖義城金天杓甲午 生墓附右丙坐

子熙慶 初諱熙說

丁卯生乙未辛墓新禮洞祖妣鄭氏塋右 谷丑坐 配海平金氏父命碩壬申生己巳五月十七日辛墓合附

女任景洙 豐川人子任相殷

女朴弼燦 龜山人

女金

鵝洲申氏鷹巖公派世譜